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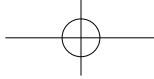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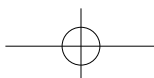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180차 연차 대회 폐회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덕분에 삶에 찾아오는 여러 선한 것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참되며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아담스 와드 집회소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첫번째 시험, 미술가 미상

어린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할 지 알기 위해 기도하려고 집 근처 숲에 들어갔다. 조셉 스미스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All Rounds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위치한 사스케하나 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가 1827년부터 1829년까지 그 강둑 근처에 살았을 당시의 모습을 대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 조셉은 금판 번역을 마쳤으며 이것이 후에 물론경으로 출판되었다. 이 강둑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에게서 야론 신권을 받았고 (교리와 성약 13:1 참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펠기세텍 신권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28:20 참조)



2010년 5월호 목차

제 47 권, 제 5 호

2 제180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4 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 신권 관능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10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여중에게 부어
줄 것이며”
줄리 비 벡

13 우리가 걸어야 할 본분의 길
키스 비 맥밀런 감독

16 구속주, 우리의 반석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장로

18 어머니와 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22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26 교회 역원 지지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27 2009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28 2009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29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엘 톰 페리 장로

32 경전의 축복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36 도움과 구원의 손길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38 주님이 명하시면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

40 깨어 항상 힘쓰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44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신권 모임

47 병 고침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51 거룩한 선교사 부름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54 위대한 아론 신권
데이비드 엘 벡

56 계속 인내하십시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60 부지런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4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68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75 “온 영광 그의 이름에!”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78 주님께 향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81 구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첼렐 시 렌트

8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87 주님 다시 부활했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91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러셀 엠 벨슨 장로

95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8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101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103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106 의에 관한 것들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108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닐 엘 앤더슨 장로

112 폐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청녀 총회

114 담대하라
앤 엠 답

117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메리 앤 쿡

120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123 비디오 발표 자료: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124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128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130 연사들이 청소년에게 전한 말씀

132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133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133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34 교회 소식



제180차 연차 대회 요약

2010년 4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폐회 기도: 에릭 터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루 언스워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쪽, 호페인스 편곡, 미출판;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2010년 4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린 지 로빈스 장로. 폐회 기도: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음악 제공: 오펜 종교 교육원 연합 합창단; 지휘: 라이언 에겟트와 앨런 매튜스;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43쪽, 데이레이 편곡, 잭맨 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96장, 더핀 편곡, 미출판.

2010년 4월 3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폐회 기도: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음악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 신권 합창단; 지휘: 로날드 스타헬리;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차드 엘리엇: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가 109장, 맥테빗 편곡, 미출판;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홀 편곡, 미출판;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쇠막대”, 찬송가 170장, 스타헬리 편곡, 미출판.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케네스 존슨 장로. 폐회 기도: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 “이 즐겁고 기쁜 날”, 찬송가 38장; “주님 부활하셨네”, 찬송가 122장; “This Is the Christ”, 무디, 브래드포드 편곡, Nature Sings 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이 노래책 46~47쪽, 머피 편곡, 미출판;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장로. 폐회 기도: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머피 편곡, 미출판; “구유에서 나신 예수”, 찬송가 121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2010년 3월 27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일레인 에스 돌튼. 개회 기도: 칼리 구블러. 폐회 기도: 캔드릭 스매일리. 음악 제공: 유타 리하이 스테이크, 리하이 동 스테이크, 리하이 북 스테이크, 리하이 남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웨브;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웹 편곡, 미출판;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송가 40장, 왓킨스 편곡, 미출판; “강해져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2010 청소년 축전, 미출판; “예수님은 구원 반석”, 찬송가 181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웹 최고음부 편곡.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프랜시스 몬슨 자매의 사진, 존 루크.
뒤: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웨스턴 폴튼.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의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던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린지 브릭스, 코디 벨, 마크 웨인버그, 웨스턴 폴튼, 제니카 하인철펜, 브랜든 플린트, 로버트 케이시; 아르헨티나: 루시오 자비에 플레이타스와 크리스티나 라파엘 로페스 폰세카; 브라질: 로레나이 아테마 포체토와 아나 클라우디아 솔리; 칠레: 오스카 슈미트너; 체코 공화국: 베브 로비슨; 프랑스: 카를로스 곤잘레스; 필리핀: 에드윈 레드리노; 미국 옥든: 존 스나이더.



토요일 오전 모임 | 2010년 4월 3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신앙을 행사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로 좋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로 교회가 조직된 지 180년째 해가 됩니다.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실제로 진리를 찾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회복하여 이 교회를 조직하신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830년 이후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매년, 교회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교회 회원 여러분, 새로운 개종자와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어 사랑으로 감싸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신앙을 행사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드와 지부,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너무나 훌륭하게 봉사해 주셨고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 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차 대회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필요한 인도주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난 3개월만 보더라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몽골, 볼리비아, 페루, 애리조나,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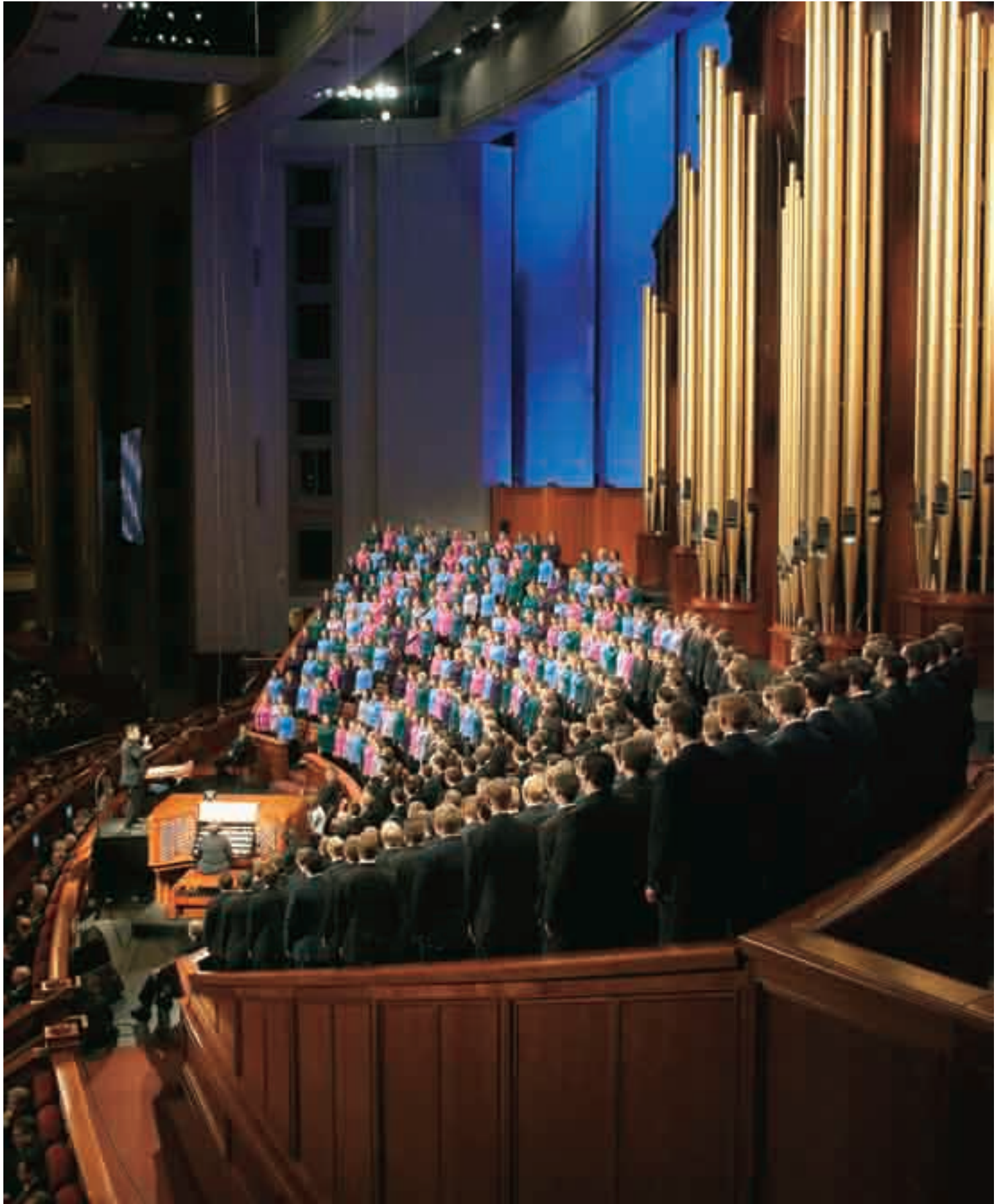
포르투갈, 우간다에 이르는 세계 여러 곳에 인도주의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파괴적인 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아이티와 칠레를 도왔습니다. 재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은 교회 회원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과 재능, 전문 기술과 지식 등 자신의 자원을 함께 나누며 인도주의 지원을 기꺼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는 교회 복지 활동으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이든 첫 번째로 도착하는 구조단이 되려고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성전 건축은 그런 성장을 잘 보여 줍니다. 최근에 우리는 유타 주 페이스에 지어질 새로운 성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타 옥든 성전은 개보수 작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새로운 성전을 헌납할 것입니다. 또한 애리조나 주 길라 벨리, 필리핀 세부 시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헌납하거나 재헌납할 것입니다. 회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발맞춰 계속해서 전 세계에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사랑하는 고인들을 위해 매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의식을 집행합니다. 직접 의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연차 대회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제 아내 프랜시스도 넘어져 엉덩이 뼈와 어깨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두 차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몇 주 동안 입원을 한 뒤에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내는 잘 지내며 계속 상태가 호전되어 곧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청년 총회에 참석했고, 이번 주말에도 한두 차례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갈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이곳에 참석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과제, 실망감과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은 여러 복음 주제를 다룬 말씀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분들은 자신이 전할 말씀에 대해 하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신권 권능

신권 권능이 가족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전까지 신권은 마땅히 내야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 여러분과 도처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의 인도에 따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죄와 부도덕, 악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작전 계획은 우리가 고안하지 않았습니 다. 그 계획은 주님의 영감과 계시를 통해 왔습니 다.”¹

그러한 협의를 거치면서 교회의 운영 구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교과 과정이 전부 재구성되고 조직의 목적과 상호관계가 새로 정립되었습니다. 협의와 재구성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의 핵심 단어는 신권이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구약전서의 영웅인 기드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수천 명의 용사들로 조직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용사들 중에서 단 3백 명만 선발했습니다.

기드온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강가에서 물을 마실 때 대부분의 용사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병사들은 기드온에게 선택 받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용사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병사들을 선택했습니다.²

우리는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는]”³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은 땅이 동요[하며]”⁴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⁵ 사탄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면 모조리 파괴하려고 합니다.⁶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루시퍼입니다.⁷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다가오는 일들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드온이 이끈 작은 군대는 기록된 바와 같이 “각기 제자리에 [섰기]”⁸ 때문에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⁹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¹⁰ 그 후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몰몬경이 기록된 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¹¹ 조셉은 그 판을 번역할 권능을 받았습니다.¹²

번역을 하는 동안 조셉과 올리버 카우더리는 침례가 언급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¹³ 그러자 하늘에서 온 사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교사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닌]”¹⁴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대신권,¹⁵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¹⁶을 부여했습니다. 이 신권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던 대제사 멜기세덱의 이름을 따라 불립니다.¹⁷

그리고 이 신권은 그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신권 열쇠를 통해 하늘의 모든 권능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고, 교회 초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이제, 신권이 회복된 지 18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 수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상을 덮고 있는 수십 억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물론경에는 우리가 숫자로는 절대 우세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권 권능이 있습니다.¹⁹

선지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 그 수가 적더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 지면 위에서 그들의 다스림이 작더라.”²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즉 결국 온 세상을 부풀게 할 [또는 들어올릴] 누룩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²¹

우리는 온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질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맞붙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모든 장로가 알아야 할 것: 신권으로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원리들에 관한 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그 말씀이 출판될 때 저는 제목을 “모든 장로, 그리고 모든 자매가 알아야 할 것”²²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제가 자매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형제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딸, 자매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매들이 도외시된다면 신권은 커다란 힘을 잃습니다.

신권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그분께서 부여하신 권세이자 권능입니다.²³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권 권세는 거의 모든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 장로 정원회와 대제사 정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이 신권 권능을 나누는 일보다 빨리 진행되는 듯합니다. 신권 권능이 가족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전까지 신권은 마땅히 내야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이 그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것이 하늘의 위계질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청소년을 가장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후기 성도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과 조직에서 수행하는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가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²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가정 안에서 신권이 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리하는 권세는 늘 아버지에게 부여되며, 모든 가정사와 가족 문제에서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려도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다른 가족을 위해 신권을 행사하도록 지명됩니다. 이러한 장로들 중에는 스테이크 회장, 사도, 또는 심지어 교회 제일회장단 중 한 명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 다른 장로들이 이 중요한 의식 집행을 인도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다면 감리는 아버지가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아버지가 기름 부을 사람과 기도할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감리 역원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 축복을 집행하도록 인도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감리자에게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 어느 신권 지도자가 와 있든지 식탁에서 기도를 감리하고 가족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²⁵

베트남 전쟁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된 교회 회원들을 위해 우리는 몇 차례 특별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모임을 마친 후 저는 해롤드 비 리 회장님 곁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한 건장한 후기 성도 젊은이가 리 회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 있는 중이라고 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리 회장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형제님의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몹시 실망한 그 청년은 “아버지는 축복을 주는 법을 모르실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가장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방법을 모르신다면 형제님이 의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는 형제님 뒤에 서서 형제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젊은 군인은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2년 후, 저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청년은 저에게 그 일을 상기시켜 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의자에 앉을 테니 두 손을 제 머리에 얹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권 권능이 우리 두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위험한 나날을 보내는 그 몇 달 동안, 그 축복은 제게 힘이 되었고, 또한 저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스테이크 대회를 마친 후에 지도자들을 성임하고 성별했습니다. 그 일을 마칠 무렵, 그곳 스테이크 회장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 임지로 떠나는 한 청년을 장로로 성임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예” 하고 답했습니다.

그 청년은 앞으로 나오면서 세 명의 형제들에게 성임을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뒤줄에 그 청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에 띄어 저는 “저분이 아버지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형제님을 성임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님에게 이미 성임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아버지가 형제님을 성임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은 오늘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후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부터 장로로 성임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전쟁 중에 공적이 생기면 진급을 시켜서 그 자리를 메우는데,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성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팔을 두르고 의식을 집행하는 내내 그를 지도했습니다. 성임을 마쳤을 때 청년은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난생 처음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성임해 주었어야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혹은 사도가 그 청년을 성임했다 한들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신권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로와 대제사,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작지만 강력한 기드온의 3백 명의 용사들처럼, 일어나 자신의 자리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장로와 대제사, 모든 정원회와 그룹,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불러내도록 그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이 나이와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²⁶

선지자 니파이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²⁷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권 형제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게으른 사람, 심지어는 죄책감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권 형제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과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권능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힘과 격려를 얻는 원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²⁸

신권이 없는 가정은 신권 정원회가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가정에서도 축복이 결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래 전, 자그마한 덴마크 노부인이 누운 침대 곁에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고집 센 중년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더 사셔야 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보내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몸집이 작은 이 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 보며 덴마크 억양이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네게 그럴 힘이 있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²⁹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사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정해진 사실입니다.

신권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협의하고 준비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권 권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권 권세는 성임을 받아야 오지만, 신권 권능은 충실히 성약을 지키고 성약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야 얻습니다. 이 힘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고 사용할 때 더욱 커집니다.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받은 부름의

신성한 본질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도록 여러분이 받은 신권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의 가족과 대적의 악행 사이에서 방패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종종 대적이 우리 교회 모임을 방해할지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큰 방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과 그의 추종자들은 가정과 가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남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복음 원리와 율법으로 보호받고 영원한 신권 성약 안에서 안전하게 인봉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원리와 권능, 모든 믿음, 모든 의식과 성임, 모든 성약, 모든 말씀, 모든 성찬, 모든 권고와 교정, 인봉과 부름, 해임과 봉사, 이 모든 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가족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³⁰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권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 신권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신앙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가족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homas S. Monson, "Correlation Brings Blessings," *Relief Society Magazine*, 1967년 4월, 247쪽.
2. 사사기 7:4~8 참조.
3. 물몬서 8:30; 또한 교리와 성약 45:26; 조셉 스미스—마태 1:23, 28 참조.
4. 교리와 성약 45:26; 또한 교리와 성약 88:91 참조.
5. 교리와 성약 52:14
6. 교리와 성약 10:22~23 참조.
7. 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36~37; 76:25~26 참조.
8. 사사기 7:21
9. 교리와 성약 112:30
10.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11. 조셉 스미스—역사 1:33~34, 59 참조.
12. 물몬서 소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13. 조셉 스미스—역사 1:68~69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1
15.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16. 교리와 성약 107:3
17.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 또한 히브리서 7:1~4; 앨머서 13:15 참조.
18. 교리와 성약 42:58 참조.
19. 니파이전서 14:14 참조.
20. 니파이전서 14:12
21. 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1968년 10월, 123쪽.
22. Boyd K. Packer, "What Every Elder Should Know and Every Sister as Well: A Primer on Principles of Priesthood Government," *Tambuli*, 1994년 11월호, 15~24쪽 참조.
2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141쪽;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14:28~31 참조.
24. Harold B. Lee, "Preparing Our Youth," *Ensign*, 1971년 3월호, 3쪽.
25.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1939년), 287쪽.
26. 교리와 성약 1:19
27. 니파이전서 14:14
28. 교리와 성약 82:10
29. 에베소서 2:20~22
30. 모세서 1:39



줄리 비 벅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주님의 영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영을 받으며, 어떻게 그 영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 난 해에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후기 성도 자매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시련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고 하나같이 진지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재난, 사고, 질병과 같이 괴로운 일은 많지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일은 드뭅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와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지만, 사실상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답고 머리가 명석하더라도 이 필멸의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했던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 오는 슬픔, 망설임, 약해지는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는 큰 소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지닌 가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강한 간증이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많은 일이 하나님의 딸들 손에 달렸습니. 자매님들과 만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과 의로움, 굳건한

가족과 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는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의문에 답을 구하고 엄청난 적대세력과 어려움에 대항하여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시

명석한 여성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본다거나 마음속 깊이 열망하는 모든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에는 시간이나 힘 또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삶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도 대부분 중요한 일들입니다. 훌륭한 여성은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 더 편하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여기거기서 호소하고 현혹하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여성은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신 있게 이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계시를 받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주님의 영을 동반할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소망해야 하며, 그만큼 합당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항상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축복이 따릅니다.² 또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삶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더해집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무수한 답은 경전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³ 경전에서 얻는 통찰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므로 매일 시간을 내어 경전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⁴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진지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적고

떠오르는 영감과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종종 가까운 곳에 연필과 종이를 놓아 둡니다.

계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시시각각 옵니다. 예수님이 보살폈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힘과 평안을 얻고 인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한 아이들이 관심을 받으려고 떼를 쓰며 시끄럽게 구는 순간에도 영의 도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면 영이 멀어질 것입니다. 올바른 장소에 거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을 줄이려면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시의 영을 동반하면 적대세력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중요한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끊임없이 재생이 가능한 힘의 원천이기에, 소란스러운

시대에도 풍성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걷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⁵ 인도하는 영을 신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또한 이 영은 우리 마음을 밝히고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며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알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⁶ 약속된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가 이를 구하고, 받기 위해 준비하며, 신앙을 행사하고, 계시를 풍성히 받을 것임을 믿을 때 옵니다.

상호부조회-가르치고 영감을 주며 강화하는 조직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로 이 후기에 그분의 딸들을 도우시고자 상호부조회를 주셨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영감 받은 방법으로 맡은 역할을 다할 때, 여성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호부조회가 맡은 핵심적인 책임은 자매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 자매들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모든 자매들과 영적으로 결합하여 큰 힘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의 딸이 지닌 참되고 영원한 본질을 확인시켜 줍니다. 상호부조회는 신성한 단체이고 인도하는 빛이며 여성들이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영감을 주며 돌보고 보살피는 조직입니다. 모든 선한 여성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⁷라는 상호부조회의 모토를 실천합니다.

상호부조회로 진급한 청년나 침례를 받은 여성은 영생을 준비하도록 강화하는 여성 단체의 일원이 됩니다.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것은 한 여성이 교회에서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받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여성은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분을 동반할 수 있는 합당성에 따라 행동하는 여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조직되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단련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수가 많긴 적긴 상관없이 앞으로 나와 이 위대한 일을 돕는 데 동참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여성은 늘 귀여움 받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받아 행동을 고치는 아기가 아닌 여성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셨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신 의로운 소망과 바람은 모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훌륭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을 자격자가 됩니다.”⁸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

훌륭한 여성은 항상 자신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종종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가 왜곡된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근원으로부터 그 평가 기준을 구하고 확인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그분의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도울 때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영을 받으며, 어떻게 그 영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여전히 실망을 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⁹ 성공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요엘서에는 이 후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예언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분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¹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 예언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후기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종종 내면에 훌륭한 영성을 지닌) 훌륭한 여성들이 무수히 이 교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표현하며, 좋은 의미에서 세상 여성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여성들이 보이는 모범은 후기에 교회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¹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데 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거라 믿고 계십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할 때 주님께서는 후기에 그분의 여종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야곱서 2:17; 모사이야서 4:26; 교리와 성약 38:35; 44:6 참조.
2.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3. 니파이후서 32:3 참조.
4. 제3니파이 19:24~33 참조.
5. 교리와 성약 11:12.
6. 교리와 성약 11:13~14 참조.
7. 고린도전서 13:8.
8. Eliza R. Snow, address to Lehi Ward Relief Society, 1869년 10월 27일, Lehi Ward, Alpine(Utah) Stake, in Relief Society, Minute Book, 1868~1979년,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6~27쪽.
9.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2004년), 10쪽 참조.
10. 요엘 2:28~29 참조.
11. 스펜서 더블류 김볼, “The Role of Righteous Women,” *Ensign*, 1979년 11월호, 103~104쪽.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우리가 걸어야 할 본분의 길

본분은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면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유덕한 일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도처에서 분쟁과 재난이 일어납니다. 가끔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전하리라.”¹ 우리는 이 약속을 큰 위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난이 닥쳐와 “우리가 걷는 고요한 길”²을 철저히 가로막는다 해도 인생이 영원히 산산조각 난 채로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재난은 “[우리의] 기억[을] …… 일깨우[고]”³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대한 …… 의무를 깨닫게 하[고]”⁴ “의무의 길”⁵에 끝까지 남아 있게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던 캐스퍼 텐 붐 가족은 나치 군에 쫓기는 사람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가족 중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리 텐 붐과 언니인 베치는 악명 높은 라벤스브루크 수용소에서 수개월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는 목숨을 잃었고, 코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코리와 베치는 라벤스브루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낳은 참담한 고통에 대해 독일에서 연설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날 코리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였습니다. 코리 텐 붐의 충실함이 축복을 불러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간수였던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벤스브루크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곳 간수였어요. …… 그렇지만 그 후에 ……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를 만행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훗날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고 서 있던 그 몇 초 동안 몇 시간은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은 내밀 수 있지만 그것이 제 한계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

저는 제게 내민 그 손을 향해 뻗뻗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겨우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하더니 팔을 타고 내려와 마주 잡은 두 손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할게요.’

한때 간수와 포로였던 우리는 한 동안 서로 손을 맞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⁶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며, 더 밝은 날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비극이 닥쳐와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몸소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깃세마네와 십자가, 무덤에서 승리로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⁷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으려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운명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려면, 계명을 지키고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어진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나은 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⁸

성경에는 이런 영감에 찬 말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⁹

본분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본분이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를 의미합니다. 본분이란 여러 사람과 공동체가 옳고, 참되고, 존경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일을 도덕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본분은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면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유덕한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위가 높거나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책임과 고결함, 용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분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사랑하며 가슴 깊이 새깁니다.”¹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에게 본분을

따르는 길이란 바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본분의 길은 누구를 향한 것이며, 본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걸어야 할 본분의 길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이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¹¹ 그분은 진리의 근원이자¹² 사랑 그 자체이시며¹³,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¹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 우리는 단지 생명 없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 지식, 지혜, 판단력, 이성적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우리는 지성과 힘, 이해력,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¹⁵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 본분을 완수할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¹⁶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요 구속주요 왕이십니다.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이행할 때 서로에 대해, 가족과 교회와 국가에 대해, 그리고 돌보아야 할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재능을 키우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며, 겸손하고 유순하며 쉽게 권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가 방종을 이기고, 순종이 근면을 낳으며, 마음에 화평이 스며듭니다. 백성은 애국하고, 사회는 자애로워지며, 이웃은 친구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땅은 평화로워지며,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¹⁷

위기 상황에서 본분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그 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기도는 하늘에 닿는 생명 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느니라]”¹⁸

겸손하고 진실하며 영감에 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두 절실하게 필요한 성스러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때로 인간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을 배웁니다.”¹⁹

예수께서는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²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와 같은 조화를 이룰 때 열매를 맺으며, 이 조화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은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²¹ 이러한 영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 구하고”²²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만을 구하게 됩니다.²³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동안 동일한 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 아시며]²⁴ 모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²⁵라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본분의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행사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청소년은 개인적인 준비와 성취를 이루고, 성인들은 신앙과 결심을 새로이 하며, 나이 든 세대들은 끝까지 의로움을 견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모든 충실한 이에게 주님의 힘을 전해 주고,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일의 결국[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²⁶이라는 사실을 알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7:61.
2.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1939년), 156쪽.
3. 모사야서 1:17.
4. 엘마서 7:22.
5. 힐라맨서 15:5.
6. Corrie ten Boom, *Tramp for the Lord*(1974년), 54~55쪽.
7. 누가복음 18:22.
8. 토마스 에스 몬슨, 허락을 받아 인용.
9. 전도서 12:13.
10. Thomas S. Monson, “Duty Calls”, *Ensign*, 1996년 5월호, 43쪽.
11. 교리와 성약 20:17~19 참조.
12. 교리와 성약 93:36 참조.
13. 요한1서 4:8 참조.
14. 요한복음 3:16; 힐라맨서 5:10~11 참조.
15. Joseph F. Smith, *Conference Report*, 1899년 10월호, 70쪽.
16.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59:5 참조.
17. 엘마서 7:23, 27 참조.
18. 베드로전서 3:12.
1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45쪽.
20. 제3니파이 18:18~19, 21.
21. 교리와 성약 50:29~30 참조.
22. 야고보서 4:3.
23. 마태복음 6:10 참조.
24. 마태복음 6:8.
25. 마태복음 7:7; 또한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7:12~13*, Bible appendix 참조.
26. 전도서 12:13.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속주, 우리의 반석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과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 낼 힘을 받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일리노이 주 나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나부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농장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거세지는 핍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부에 모여서 아름다운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차없이 몰아치는 핍박 때문에 1846년 무렵에 성도들은 또다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 겨울에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 건너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팔리 거리에 마차를 세워 놓고 차레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하며 팔리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저는 담장에 걸린 나무 팻말들을 보게 되었는데, 팻말에는 고통 받았던 그들의 일기에서 발췌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절망이나 낙담이 아니라 확신과 결심, 심지어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1846년 2월에 사라 디아몬 리치가 쓴 일기에 묻어난 희망, 바로 그런 희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그런 여정을 떠나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아 보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¹

초기 성도들에게 집은 없었지만 소망은 있었습니다. 낙심했지만 정신력은 강인했습니다. 그들은 심오하고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평안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가져오는 소망은 주변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망의 진정한 근원은 신앙,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우리 삶을 세워야 할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인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믿는 신앙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개척자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모범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에 엄청난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아이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는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100만여 명이 집을 잃었고,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반응을 국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르토프랭스에서는 돋보이며, 영감을 주는 또 다른 구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 활동은 아이티 지역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독했으며, 신권 모형에 따라 조직되고 영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포르토프랭스 지역 스테이크 회장 두 명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두 명, 서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임 선교사 74명을 감리하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선교부 회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아이티 출신이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지진 때문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영감 받은 지도자들 손에는 교회가 제공한 물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보내 주신 물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은 이 기부 물품에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몇 트럭 분에 해당하는 많은 물자가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음식과 정수기, 텐트, 담요, 의료용품이 여러 대의 항공기에 나눠 실려 의료 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포르토프랭스 시내와 주변에 위치한 아홉 개 예배당에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수주 동안 예배당은 5,000명이 넘는 아이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며 음식, 물, 의료 활동을 배분하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요건들이 해결되고, 혼란 속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한 아이티 성도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티 성도들은 1846년 초기 개척자들처럼 낙심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소망과 행복, 기쁨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차례 곤경을 겪었던 선지자 몰몬은 이 교리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²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옵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며, 만일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³

지금 이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어떤 분들은 과연 어떻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소망은 신앙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싶다면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에는 단순한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악마들도 믿고 떠다고 가르쳤습니다.⁴ 하지만 진실한 신앙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악마와 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을 구별하는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신앙은 계명을 지킬 때 커집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에 의해 발전된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은 의에 의해서 온다.”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고 죄를



회개하며 최선을 다해 구주를 따르겠다고 약속할 때 우리는 속죄를 통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성신을 통해 확고해집니다. 성신은 우리의 개척자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쓸데없는 걱정”을 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련 속에서도 평안한 느낌으로 가득 차고, 개척자들과 함께 “모든 것 잘되리”⁶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을 간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능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우울증과 불안감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행복의 계획을 만드신 그분을 신뢰하고 평강의 왕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킴으로써 슬픔과 두려움을 녹여서 행복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친구와 그의 가족은 신앙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탱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내적인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의를 얻어, 친구의 딸이 아버지가 운명하기 며칠 전에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아빠의 침대 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하여 보혜사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겪은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다시 함께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빠에게 말씀드리자, 아빠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완벽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계획을 믿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있니?’ 물론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고통 받는 모든 분들, 슬퍼하는 모든 분들, 이 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는 태초로부터 사랑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위안의 권고를 일깨워 주는 커다란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⁷

저는 예수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거나 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⁸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과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Sarah DeArmon Rich, in *Carol Cornwall Madsen, Journey to Zion: Voices from the Mormon Trail*(1997), 173~174쪽; 현대 철자법 따라 수정.
2. 모로나이서 7:40~42.
3. 요한계시록 7:14~17 참조.
4. 야고보서 2:19 참조.
5. 정전 안내서, “신앙”
6.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7. 힐라맨서 5:12.
8. 니파이전서 21:16참조.
9. 빌립보서 4:7 참조.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머니와 딸

이 마지막 날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6개월 전에 열린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저는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후에 제 다섯 딸과 스물네 명의 손녀,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중손녀들은 똑같은 관심을 보여 달라며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교회의 어머니와 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는 우리 딸과 손녀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들과 손녀들도 역시 아내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성상과 어머니상이 뒤틀리고 조작되는 세상적인 영향이 만연해도 어머니와 딸은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서로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1세기 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도하는 것은 세상의 여성들이 아닙니다. 칭찬할 만한 모든 일에서, 거룩한 모든 일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바로 여러분이 ……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84쪽)

자매 여러분,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신성하게 지명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만 있는 은사를 모방해 보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여성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상의드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점을 압니다. 딸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면 선천적으로 받게 되는 재능과 청지기 직분을 신성한 본성으로 타고 나기에, 제가 말씀 드리려는 내용 대부분은 때때로 이 중요한 모녀 관계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할머니와 이모, 자매, 서모, 장모, 지도자, 그 외 다른 대상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미래 세대에 관한 약속을 여러분에게서 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분들은 순수한 기쁨을 느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그분들도 함께 걱정하며 고통을 느끼십니다.

오늘 저는 청녀 여러분께 어머니와 여러분의 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딸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어머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는 너무나 쉽게 여성상을 왜곡하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정숙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며 무절제한 여성들이 전파 채널을 채우고, 잡지를 온통 도배하고, 영화에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올 “고통하는 때”를 예언하며, 바울이 생각하기에 특히 더 위험해 보이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리석은 ……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디모데후서 3:1, 6) 오늘날 대중 문화는 여성을 바보스럽고 하찮으며 생각 없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런 문화는 여성을 경시하고 물건처럼 취급하며 여성은 오직 성적 유혹을 통해서만 인류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탄이 여성에게 보내 이 세상에 퍼뜨린, 여성에 관한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딸을 본보기와 의논 상대를 현대 문화에서 찾지 마십시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규범을 충실한 어머니에게서 찾으십시오. 어머니를 따르십시오. 주님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유명인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는 영원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따르십시오. 어머니가 발휘하는 힘과 용기와 충실함을 배우십시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머니는 문자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에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주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지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또 영원히 행복하도록 돕기 위해 그 만큼 가까이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믿으십시오. 어머니는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보살피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친절하십시오. 어머니에게도 불완전한 점들이 있으니, 그것을 인내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제 딸의 삶에서 어머니가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친구로 지내는 한 분은 친척과 자주 여행을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그녀는 청년들이 자신의 엄마와 거의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검소하면 딸들도 검소합니다. 어머니가 정숙하면 딸들도 정숙합니다. 어머니가 샌들을 신고 캐주얼 의상을 입고 성찬식에 가면 그 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은 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요람에서 시작하여 자녀에게 평생토록 지속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여성상과 어머니상에 관해 위험스럽고 사악한 관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이러한 관념을 따른다면 죄를 짓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에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말해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보여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막이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에 자녀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믿으십시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기 시작할 때 눈빛이 흐려지면서 따분해 하는 십대 아이들을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딸아이가 하나도 듣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Ralph Keyes,

The Quote Verifier [2006], 56쪽 참조)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기쁨을 딸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만큼 사랑과 재능이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000], 134쪽)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생각할 때 특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의 충실한 딸은 험담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유혹을 피한다고 가르치십시오. 선지자 조셉은 나부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한 설교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힘든 지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55쪽)

험담을 즐기고 “나쁜” 여성과 소녀를 그린 기사와 책, 영화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성의 신성한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육하는 본성을 폄하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녀 관계에서 딸은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배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딸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믿어 주는 동시에 잘못을 지적해 주고 돌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합니다.

자매 여러분,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성약을 맺고 지키면 그 권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성약을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성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 주어서 딸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은 딸에게 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은 너무 빨리, 스스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적인 난잡함을 공공연히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숙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않은 여성들이 미화되고 환영 받고 추종 받습니다. 현대 생활에 존재하는 이 불미스러운 요소들에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과 가족 안에서 노력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딸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와 유혹을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합니다. 딸들과 공개적으로 자주 토론하며 이러한 문제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들이 너무 몸에 꼭 끼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깊이 파인 옷을 입을 때, 그것은 주위 청남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는 오직 성적 매력에만 달려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자신의 마음 속에 심게 된다는 점을 딸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딸을 정의할 때 한 번도 이런 인식이 포함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여러분이 의복과 용모, 정숙한 생활에 대한 표준에서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딸들이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함께하는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성약을 맺고 지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딸들에게 영에 관해 가르치십시오. 경전으로 인도하십시오. 신권 권세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은 성약을 지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2010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 이 주제를 따를 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확실히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개하는 방법과 순결과 합당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을 드렸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제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세 번의 연차 대회에서 연이어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저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귀 기울이고 배우려 할 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몇 가르침들은 여러분을 앞서 간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과거에서 교훈을 배우”,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31, 33쪽)

지난 10월에는 신권 모임에서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어머니와 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말씀이 각각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경청하며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꾸준히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쉽게 지나쳐 버려도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화평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저희는 부모와 자녀인 여러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가족과 교회를 이끌 오늘날의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우리 청소년을 충실하고 의로운 남성파 여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교훈과 모범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남기신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제 권고를 담은 이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세와 영원을 구별하지만 가족이란 조직은 전적으로, 이 세상 현세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토록 가족 조직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 후기 성도를 제외하고는 누가 가족 관계가 무덤을 넘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를 알아 보[는] 이 가족이란 조직[이] 하나님의 사업의 위대하고 완전한 조직에서 한 단위가 된다는 것과, 모든 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운명이란 것을 누가 압니까?”(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86쪽)

현재와 미래에 해야 할 모든 위대한 일들을 위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자녀들을 그분이 계신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시며, 실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험악하고 좁은 길을 걷는 젊은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길에 머무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어릴 때부터 얻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도 다시 속히 데려오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강화하고 재빨리 구조하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독실에서 저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그녀는 여덟 살 때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비록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쾌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죄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계명들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슬픔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종종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속에 생겨났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새로운 기분에 휩싸이면서 그런 결심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점차 더 심각한 계명을 어기면서 행복하고도 영원한 가정을 그리던 그녀의 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신이 간혀 있는 죄의 틈에서 제가 구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고 변화하고 강화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간증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인생 초반에, 또한 길에서 처음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신앙을 행사했다면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면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재빨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기회를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이 죄와 사탄이 흘뿌려놓은 안개를 헤치며 본향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¹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예견하여 그들이 지나는 길에 인도와 구조하는 손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에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길에 머무는 방법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장소에 배치하여 자녀들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임무는 가정 안에서 맡은 임무입니다. 그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인생을 시작할 때 본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굳건하게 내딛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본질인 사랑으로 연결된 유대 관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인도와 구조의 손길을 주도록 부모, 형제, 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는 가족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보호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둠의 안개로 가리우지 못합니다. 그 소중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강화하도록 초등학교 직원들을 불러서 가족을 돕게 하십니다. 또한 아픈 신권 소유자들을 주셔서 성찬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찬 기도에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언젠가 성신을 인도자로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유혹이 다가올 때 맞서고, 훗날 다른 사람을 구조할 힘을 기릅니다.

많은 감독들은 초등학교 어린이 하나 하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와드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라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신앙과 간증으로 강화된다면, 아이들이 십대가 되었을 때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할 일이 적다는 것을 압니다. 탄탄한 영적 기반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를 단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부름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실제로 모범을 보여 준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CTR이라는 모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초등학교 본부 임원회 일원이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서 지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자원해서 와드 초등학교에서 봉사하셨고, 어린이들은 자매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자매님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단순한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매님의 모범에서 성신을 느끼고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이겨낼 신앙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에게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적어졌습니다. 대신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구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는 기도와 성신에 대한 단순한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큰 아들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저희 부부와 초등학교 교사, 신권 지도자들은 그 아이가 성신을 느끼고 인식하며 성신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글 읽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집에 아들을 데려다 주었고, 퇴근길에는 제가 아들을 데리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와 일찍 끝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가는 길을



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 아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혼자서 간다는 생각에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킬로미터쯤 걸어갔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눈에 고인 눈물에 길을 지나던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였던 풍경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신이 마치 꼬마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감 있게 혼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뭘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나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덤불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며 “도움이 필요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길을 잃었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집전화나 주소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름은 어느나고 젊은이들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전화번호부에서 우리 가족의 성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아들을 구조하려 가면서 저는 아들이 집으로 오는 길에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앙 덕분에 아들은 이후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늘 안전하게 인도되었고 구조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구조와 구조자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로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십대 시절 동안 우리를 강화해 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획하고 가장 뛰어난 구조자들을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 신권 소유자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이 커다란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²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청년 가치관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딸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기록부에는 또한 청년들이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이행하며, 부모님이나 지도자에게

자신의 발전사항을 보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봉사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습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러한 습관에 따라 생활하면 간증이 강화되고 온 생애 동안 배우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³

아론 신권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이번에 더 강화되고 뚜렷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아론 신권 직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 권의 간단한 책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청년과 청년 지도자들은 새로운 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맡은 신권 의무를 배우고 완수하려는 소망을 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부모의 관계, 정원회 회원들과 맺는 관계, 청년 지도자와 청년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일들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권유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만큼 어려웠던 과제를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권유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적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하려면 꾸준하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 년에 걸쳐 배우고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두 책에 실린 내용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와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신뢰하신다는 실재적인 증거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신뢰를 받아



마땅하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방문하며 저는 아론 신권 정원회가 이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우는 단계를 거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 일을 실행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며 분명하게 느낀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지도자, 친구들, 심지어 회중들까지도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은 간증을 나누면서 고양되었고, 청소년들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청녀 프로그램에도 청녀들이 영적인 힘을 키우고, 우리가 청녀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청녀들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청녀들은 어머니와 할머니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의로운 여성들의 모범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모든 훌륭한 일에 주목하고 진정으로 이해해 주며 목표와 꿈을 이루도록 부모들이 어떻게 돕는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뛰어난 여성의 표본이 되어 표창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그들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일을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길이 가파르고 때로는 험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좌절하거나

발을 헛디디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뒤따라가다가 길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성신의 동반을 구하고 실제로 성신과 함께 하도록 인도받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하다면 성신을 불러올 모든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느끼는 점을 나눌 때, 우리는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칭찬과 웃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권고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권고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힐책과 거부라고 느끼게 하여 아이들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힐책과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해야 할 바를 손수 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닌 성약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 약속드린 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속죄를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결같이 충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이들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사랑의 구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심어 줄 것입니다.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돕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 왕국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 열쇠로 회복된 주님의 왕국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교회에서 영감 받은 지시를 따를 때, 우리 청소년들과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거하시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되고 가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14:13~14.
2.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고 행하고 되어서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0쪽 참조.
3.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6쪽.
4. 마태복음 25:21.

토요일 오후 모임 | 2010년 4월 3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털 엘 룩,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지역 칠십인을 2010년 5월

1일부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지 엠 발바라도, 호메로 에스 아마토, 마누엘 마라이즈, 마르셀로 볼파리니, 페르난도 이 칼데론, 가브리엘 에이 캠포스, 추젠 치아, 플라비오 에이 쿠퍼, 로날도 다 코스타, 존 시 돌튼, 케빈 알 던컨, 랜디 디 핑크, 로버트 에이치 가프, 게릿 더블류 공, 프레릭 제이 퀘즈, 에스 호라시오 구즈먼, 로날드 제이 해먼드, 스테판 더블류 한센, 유 천 필립 호, 패트릭 키어슨, 크리스티앙 에이치 클라이베그, 래리 알 로렌스, 로버트 더블류 리스, 에프 린 롤리, 후안 에이 마추카, 페르 지 맘, 카를로스 에스 오바타, 알렉산더 에이 오돔, 에이 로날도 오이울라, 멜빈 알 퍼킨스, 제임스 시 페리, 존 시 핑리, 디나 엠 레스에스, 디 채드 리차드슨, 마우리 더블류 스쿠프, 한스 티 소렌슨, 존 시 타가트, 도널드 피 테니, 지 페린 워커, 요한 에이 운드라, 가르치코 아마시타.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름받은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첼렐 시 렌트, 마거릿 에스 리퍼스, 비키 에프 마주모리 자매님을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초등학교의 모든 임원들을 해임합니다.

이 자매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케빈 알 던컨, 게릿 더블류 공, 패트릭 키아론, 후안 에이 우세다, 그리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는 래리 알 로렌스, 페르 지 맘, 자이로 마자가르디.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안 에스 아던, 필립 케이 부세이, 린 제이 카브레라, 레나토 카펠레티, 폴 디 엠 크리스텐슨, 로제리오 지 알 크루즈, 도널드 디 데실러, 조지 알 도널드슨, 이니 비 에몽, 크리스첸 핑겔러, 크레이크 지 피셔, 제릴 엘 간스, 잭 엔 제라드, 엠 키이스 기든스, 브렌트 제이 힐리어, 주이 창 주안, 조지 엠 킬리, 데인 오 리비트, 알렉산더 티 메스터, 아라익 브이

미나시안, 티 잭슨 엠카벨라, 에스 지포드
닐슨, 발렌틴 에프 누네즈, 제프리 이 올슨, 알
잉바 올슨, 로버트 앤 패커, 네이새니얼 알
페인, 시저 에이 페레스 주니어, 포우차드
피에르나우, 마이클 제이 레알, 에드슨 디 지
리베이로, 브래드 케이 리즌메이, 모차르트 비
소아레스, 카를로스 에이 솔리스, 놀런드 데
소우자 로페스, 코우조우 타쉬로, 오마
빌라로보스, 더블류 크리스토퍼 와델, 앨런
제이 웹, 제라르도 제이 빌헬름, 케빈 제이
워든, 크레이크 티 라이트, 짐 엘 라이트.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로즈메리 엠
웁숨, 제1보좌에 진 에이 스티븐스,
제2보좌에 쉐럴 에이 에스플린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계속된 신앙과 헌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으신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존 경하는 제일회장단께,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 예산과 그 운영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맞게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09년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교회 자산이
물질적인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관리 책임자 ■

2009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형 제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은 2009년 12월 31일부로 다음과 같은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2,865
선교부	344
지방부	616
와드 및 지부	28,424

교회 회원수

교회 회원 총수	13,824,854
--------------------	------------

2009년 새로운 기록상의 자녀	119,722
침례 받은 개종자	280,106

선교사

전임 선교사 수	51,736
--------------------	--------

성전

2009년에 헌납된 성전 수	2
(유타 주 드레이퍼 성전과 유타 주 오크 마운틴 성전)	
운영 중인 성전 수	130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 본부役員과 인사들

로이든 지 데릭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조지 아이 캐년 장로, 더블류 돈 래드 장로, 더글라스 제이 마틴 장로, 조셉 시 뮤런 장로, 전 칠십인 정원회 회원; 콜린 더블류 아시아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 카를로스 이 아시아 장로의 부인; 진 시 던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 폴 에이치 던 장로의 부인; 질러리 시 심슨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 로버트 엘 심슨 장로의 부인; 재클린 와이 로렌스 자매,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의 부인; 베티 앤 텔리 자매,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이 텔리 일세 장로의 부인; 데이비드 에스 킹 형제, 전 본부 청남 상호 향상회 관리 보조; 앤 에스 리스 자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로버트 제이 매튜 형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권위자; 트루먼 매드슨 형제, 교회 학자이자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전 책임자.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자녀 양육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최 근에 저는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님과 함께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다섯 개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우리는 전임 선교사들과 모임을 하고 곧이어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과 선교 사업에 관한 모임을 함께했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두 모임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두 가족이 손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상호부조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 둘이 부역을 담당했고 두 아내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 나르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어린 세 자녀가 어머니의 감독 아래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두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따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맑은 임무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며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선지자 니파이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 역시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니파이전서 1:1 참조)

최근에 조카 아이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서 상호부조회 공과를 준비하며 기록해 두신 공책 네 권을 제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공책과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기록들은 모두 어머니가 공과 준비를 하며 쏟으신 수백여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교사이셨으며 성실하고



브라질 상파울루

철저하게 공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공과하기 전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식탁은 참고 자료와 공과 준비를 하며 기록한 쪽지로 가득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 공과에서는 그 중 극히 일부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어머니의 공책을 넘기며, 저는 저를 가르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책에 적힌 주제마다 한 공과에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공과에서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 중에서도 매우 유능한 교사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보다 자녀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철저히 준비하신 이유는 첫째, 자녀들에게 교회 부름에 성실히 임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둘째, 공과 준비를 하며 배운 내용을 더 중요한 목적, 즉 아들과 딸들을 가르치는 데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추억에 젖어,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배운 몇 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표준과 가치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학교나 교회처럼 가정 밖에서 자녀 교육을 담당해 주는 분들께도 고마워하셨지만, 그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밖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배운 내용을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이를 통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오며, 오늘 공부는 다했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그런 환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각자 자기 책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타고난 교사이셨으며 학교나 교회 선생님들보다 훨씬 까다로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도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보충 수업도 감행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상호부조회 공과를 연습하기도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공과 시간에 맞춘 짧은 공과가 아니라 공책에 준비하신 내용 전체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신앙개조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을 포함하여 경전을 암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생각이란 계속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버터를 짓거나 그 외 다른 여러 일들을 하며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몸을 움직여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마음 속에 게으른 생각을 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어머니를 부모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세대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 주는 가정 교육일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 도덕 표준과 윤리 표준, 그리고 신앙을 가르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적이 발휘하는 힘이 만연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정 교육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붕괴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부모들은 가정 교육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에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잠언 22:6) 일에서 교회나 학교와 같은 타 교육기관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은 궁극적으로 부모가 맡아야 할 책임입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에서 필수 요소입니다.(모세서 1:39) 하나님의 영원한 무대에서 공연되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작품에 주연으로 발탁된 사람은 부모입니다. 다행히도 부모가 출연할 수 없을 때 부모 대신 출연할 수 있는 대역들도 연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부모입니다.(교리와 성약 93:40 참조)

부모들은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소리 내어 책 읽기, 노래 부르기, 가족 식사를 하며, 한 번에 조금씩 빛과 진리를 가정 안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 꾸준히 의롭게 성심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선하게 만들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회의 안녕과 사람들의 행복, 번영, 평화는 모두 가정 교육에 근간을 둡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서 왜 침례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침례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과 자녀가 여러분에게 인봉되기를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인봉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훈과 함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48년 10월호, 153쪽)

가정에서 가르치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범에 대해 살펴보면 더 넓은 의미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까요? 우리는 교육이 사람들의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훌륭하게 가정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 교육은 교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준비시켜 주며,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전역에 걸쳐 참고 자료와 공과 아이디어가 적힌 공책들로 가득한 식탁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서 지나친 준비란 없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며 얻은 복음에 대한 이해는 공과 시간에 사용하든 안 하든, 가정에서 가르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으로 쓰여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따르면, 제가 가정 교육에 관해 전해 드린 원리들은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서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주로 하루 중 대부분을 집이 아닌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가정 교육에 대한 책임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에게 있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늘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자녀 양육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어내려는 산만하고 파괴적인 힘에서 비롯된 수많은 도전들을 접합니다. 또한 불신과 절망이라는 폭풍우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는 튼튼하고 영적인 뿌리가 약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욕구에 압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 자녀를 향해 퍼붓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노골적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차단제를 한 겹 더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에서 그분과 손잡고 함께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경전의 축복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15 36년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 근처에 있는 빌보르드 성 지하감옥에서 쇠약한 죄수 한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1년 반 가까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 밖 기둥에 묶인 이 죄수는 큰 소리로 “주님, 영국 왕이 눈을 뜨게 하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시신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당시 모든 위정자와 종교지도자들이 그에게 부과한 죄목은 무엇일까요? 이 죄수의 이름은 윌리엄 틴들입니다. 틴들의 죄목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항해할 무렵에 영국에서 태어난 틴들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후,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비롯한 여덟 개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사제들과 평민들이 경전에 몹시도 무지한 것을 보고는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평민에게 경전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한 성직자와 벌인 격한 논쟁에서 틴들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몇 년 안에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도 경전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만들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32 리아호나

틴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교회에 허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전을 직접 접하게 하는 일은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격이라고(마태복음 7:6)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틴들은 힘겨운 번역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1524년, 틴들은 신분을 숨긴 채 독일로 들어갔고, 계속되는 체포 위협을 피해 상당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틴들은 헌신적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영어로 번역한 신약성서를 출간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서도 출간했습니다. 틴들이 번역한 성경책은 영국으로 몰래 들여보내졌고, 이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의 손에 전해지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책을 비밀리에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당국은 그 책을 찾는 대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틴들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헨리 8세의 눈을 뜨게 하였고, 당시에 “대성경(Great Bible)”이라 불리던 성경이 편찬되어 영어로 된 경전이 대중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틴들이 만든 번역본은 그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영문 성경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흠정역 성경(King James Version)입니다.¹

많은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은 윌리엄 틴들 전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겹게 수고하고 희생한 모세와 이사야, 아브라함, 요한, 바울, 니파이, 몰몬, 조셉 스미스와 그 외의 많은 분들에게 더욱 감사 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알았고, 우리도 알아야 할 그것, 바로 경전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을 얻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16세기 영국인들이 이해했고, 우리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둔 선지자 엘마는 백성의 성스러운 기록을 아들 힐라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경전이 “이 백성의 기억을 넓혀 주었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음”(엘마서 37:8)을 상기시켰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도록]”(엘마서 37:14)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경전으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어” 자녀들을 구원하고 들어올리십니다. 앰마가 남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을 넓히시고 거짓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경전은 우리의 기억을 넓혀 줍니다

경전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주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여 우리의 기억을 넓힙니다. 경전은 우리가 전세에서 알았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경전이 우리의 기억을 넓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여러 시대와 백성과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보고 모세와 함께 물기둥 사이를 지나 바다 저편으로 건너 본 적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거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광경을 보거나 구주께서 겿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 앞에서 두 천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구주께서 풍요 땅에 오셔서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셨을 때 무리와

함께 한 사람씩 나아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과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압니다. 우리의 기억을 넓혀 주고 몰랐던 점들을 알려 주는 경전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전 속 내용은 우리 정신과 마음에 파고들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신앙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또한 경전은 우리와 우리 이전 세대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의 기억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리하이 일행에게 노쇠판을 가지고 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전은 하나님과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 수 있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리하이가 떠난 뒤에 곧이어 “예루살렘에서 나온” 또 다른 무리에게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리하이의 후손들이 약 삼사백 년 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 또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였다”(오나이서 1:15, 1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틴들이 살았던 시대에 경전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 특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과 또 다른 경전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전에 대한 무지가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전을 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상이 알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경전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경전을 통해서 옳지 못한 생각과 잘못된 전통, 죄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을 피하고, 동시에 성스러운 잠재력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 경전은 우리 시대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어느 고대의 철학, 즉 절대적인 도덕 표준은 존재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꼬”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앰마서 30:17~18)이라는



코리호어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코리호어를 상대했던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이 성스러운 도덕규범의 실재성과 중요성을 의심하도록 방지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엔톤이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

한 세기 전과는 정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이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하여 엘마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잘못을 눈감아주시고, 따라서 회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그저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시되 사생활과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²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님”(엘마서 41:10; 또한 힐라맨서 13:38 참조)을 슬픈 일을

겪으며 배우도록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실재하는 음성이며 고통을 자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막입니다. 경전은 정확함과 진리를 측정하는 시금석입니다. 경전은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거나 죄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온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줍니다.(엘마서 42장 참조)

우리는 경전에서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원리와 도덕적 가치, 즉 정직과 책임감, 이타심, 성실, 자애 등을 배웁니다. 경전에는 참된 원리를 따를 때 받는 축복과 함께 그러한 원리를 버린 개개인과 문명이 어떻게 비극을 맞았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전 속 진리를 간과하거나 저버리는 곳은 사회의 필수적인 도덕적 근간이 무너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을 뒷받침할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경전은 우리를 구속주인 그리스도께 이끅니다

결국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재하심을 믿는 신앙, 우리의 불멸과 영생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신앙, 행복의 계획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는 신앙,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7:3)를 알게 하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자라기 시작하여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엘마서 32:27~43 참조; 또한 로마서 10:13~17 참조) 신앙은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고대 기록을 공부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 발굴이나 발견, 또는 과학 실험으로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적을 목격하는 것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이 굳건해지거나 신앙에 시험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로 신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신이 우리의 영에 전해 주는 확신, 즉 영에서 영으로 전해 주는 확신을 통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경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신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병든 종을 그리스도께서 보지도 않고 고쳐 주었던 계기가 된 백부장의 신앙(마태복음 8:5~13 참조)에 대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일 만큼 겸손했기에 딸이 병 고침을 받았던 어느 이방 여인의 일화(마태복음 15:22~28; 마가복음 7:25~30 참조)를 우리는 압니다. 고통 받는 용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욥기 13:15)라고 외치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25~26)라고 고백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어른들에게 미움과 극심한 핍박을 받은 어린 선지자가 내린 결단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시련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경전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성신을 동반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제3니파이 11:32 참조) 따라서 경전을 가까이 하는 일은 성신을 받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전을 처음 받은 것도 성신을 통해서입니다.(베드로후서 1:21; 교리와 성약 20:26~27; 68:4 참조) 바로 그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경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계시이며,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더 받을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900쪽에 달하는 또 다른 경전, 즉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경전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과(교리와 성약 68:2~4 참조) 오늘 이 연차 대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위성방송, CD, DVD, 인쇄매체를 통해 항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역사상 어느 때에도 지금처럼 많은 분량의 경전을 축복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처럼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모국어로 된 성스러운 경전을 지금처럼 각자 가지고 다니며 공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윌리엄 틴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전 경륜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본다면 얼마나 경탄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과 함께 끊임없이 경전을 연구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 줄 그리스도의 말씀을 쉬지 말고 흡족히 취하십시오.(니파이후서 32:3 참조) 저는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해 왔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성스러운 경전에 밝혀진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윌리엄 틴들에 관한 정보 출처: David Daniell, *The Bible in English*(2003년), 140~157쪽; Lenet Hadley Read, *How We Got the Bible*(1985년), 67~74쪽; 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2004년); John Foxe, *The New Foxe's Book of Martyrs*(1997년), 121~133쪽; “William Tyndale”,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Tyndale (2010년 2월 28일 접속); Bible Dictionary, “Bible, English.”
2. Interview of Richard Neitzel Holzapfel in Michael De Groot, “Questioning the Alternative Jesus”, *Deseret News*, 2009년 11월 26일자, M5면 참조.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도움과 구원의 손길

선지자의 권고와 모범에 따라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에서 말씀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몬슨 회장님의 훌륭한 모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여러 자연 재해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그런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교회 회원들은 매달 후한 금식 헌금을 충실히 내며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도움을 줍니다. 회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교리와 성약 52:40)

오늘 저는 영적으로 도움과 구원을 주는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과 영광은 진실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활동 회원, 일부만 회원인 가족, 그리고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한 충실한 교회 회원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영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일본 나가노 근처에 있는 마쓰모토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솔트레이크시티와 매우 비슷하게도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합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미국인 선교사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카터 장로와 하야시 장로였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두세 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훌륭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명랑하며, 빛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은 제가 침례 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주님의 도움으로 결국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기적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요코하마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홀로 생활하게 되자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있는 교회 자매님이 엽서를 하나 보내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제가 교회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경전 구절은 제 온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날을 씨름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들이 제게 약속했던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형제님이 물문경을 읽고 모로나이서에 나오는 약속이 참된지 열심히 기도로 간구한다면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²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처럼 성신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고, 몸이 떨렸으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적인 경험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저를 구해 준 그 자매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는 훌륭한 자매님과 성전에서 인봉 받았으며 네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결혼한] 그 자매가 수년 전, 제가 외로이 지내던 요코하마의 아파트에 엽서를 보내어 저를 구해 준 바로 그 자매님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다시 한 번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권유해 준 이 교회 회원의 도움과 주님의 자비를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³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매일 개인적으로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실을 압니다. 그 중에는 방문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까지 돌보는 충실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자매님은 자주 사람들을 방문하며 수년간 많은 이들의 신앙을 강화해 왔습니다. 와드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을 자주 방문하던 한 감독님도 생각납니다. 그 감독님은 해임 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청년과 시간을 함께 보내 준 신권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는 마치 친아버지처럼 그 청년과 함께 활동에 참석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눕니다. 이 가족은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 주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족입니다.

다섯 살 난 제 손녀는 초등학교 활동으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팝콘 한 알을 큰 유리병에 넣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무슨 좋은 일을 할 게 없나 살피며 초등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예언자 따라, 예언자 따라, 예언자 따라, 나아가세!”⁴

제가 아는 교회 회원들의 선행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선지자의 권고에 따릅니다. 단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돕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고 힘이 모자란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온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⁵

선지자의 권고와 모범에 따라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구원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쪽 참조.
2. 모로나이서 10:4~5 참조.
3. 마태복음 11:28 참조.
4. “예언자 따라”, *어린이 노래책*(1989년), 58~59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86쪽.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이 명하시면

그 계명이 크든 작든 간에 충실하게 순종한다면 주님의 인도와 도움, 평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열 광적으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떠나는 낚시 여행을 위해 경비행기를 빌려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호수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마칠 무렵에 경비행기 조종사는 두 사람을 데리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두 사람이 꾸린 짐을 보자마자 낚시 장비와 잡은 생선이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로 두 번 왕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낚시꾼들은 비행기 왕복 요금을 두 번 지불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이들은 짐을 단단히 잘 꾸리겠다고 약속하며 웃돈을 얹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망설이다가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종사가 이륙을 시도하자 낚시꾼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는 속도를 잃고 호숫가에 있는 넓고 평평한 늪지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지면효과”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지면효과란 비행기 날개가 지면과 아주 근접한 상태에 있을 경우, 날개와 지면 사이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면서 비행기에 추가 양력을 만들어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비행기가

떠오를 때 ‘지면효과’가 사라지면 비행기 자체 출력만으로 비행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비행기 하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낚시꾼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륙하다가 추락했나 봐. 이번에는 작년에 추락한 곳에서 한 91미터 떨어진 곳이야.”

두 낚시꾼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기 사정에 맞게 주님의 계명을 더 쉬운 방법으로 지키려 하거나 지름길이 있거나 아니면 계명을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내재된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확히 지키 때에는 그분의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뻔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장으로 지명되면서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원들이 계명을 지킬 때 교회는 안전하게 됩니다. ……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이 옵니다.”¹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1) 그 계명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여 믿거나, (2)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3) 계명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킬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 이 계명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솔로몬 왕 치세 말엽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²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지자 아히야는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도록”³ 임명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가 살던 에브라임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중에 한 번은 아히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아히야를 통해 “내가 ……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 내 길로 행하며 ……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⁵

솔로몬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⁶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으로 돌아와 북쪽에 있던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⁷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려는 여로보암의 계획에는 선한 면도 있었지만 사악한 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웁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기존 제사 방식에 악마의 의식을 접목시켰습니다.⁸

여로보암도 앞서 이야기한 낚시꾼처럼 하나님의 계명 중 일부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후손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그가 성스러운 의식에 접목시킨 이교도의 방식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결국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⁹

비행기 날개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보다 많은 짐을 싣고 ‘지면효과’ 없이 비행할 때

비참한 결과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만, 혹은 선택하여 따르면 순종할 때 얻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계명은 중요하지 않아

몇 십 년이 지나서 “큰 용사”¹⁰로 알려진 아람의 전쟁 영웅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 이스라엘까지 가서 유다 왕 여호람을 만났습니다.¹¹

이때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 깨끗하리라 하는지라.”¹²

선지자는 나올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작고 진흙투성이인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이나 씻으라는 선지자의 지시를 듣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인정한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걸맞고 이목을 끌 만한 거창한 환대를 기대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아만 수하에 있던 종들은 선지자가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기로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낚시꾼들과는 달리 나아만은 간단해 보이는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지시대로 요단 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한 결과로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¹³

아무리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계명은 너무 어려워

주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 리하이네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처음 며칠 동안 리하이네 아들인 레뮤엘에게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라”¹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기록”¹⁵이 담긴 낫쇠판을 가지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받았을 때, 이 두 아들은 “이 일의 어려운 것이라”¹⁶라고 하며 반항했습니다.

형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니파이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낫쇠판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언어가 보존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세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처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난처하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그 때문에 계명을 조금 어기더라도 주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크든 작든 간에 충실하게 순종한다면 주님의 인도와 도움, 평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중요했던 친구인 마틴 해리스가 “리하이네” 번역본 중 처음 116 쪽 수기 본을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다시 팔마이아로 가져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주님께 두 차례에 걸쳐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선지자에게 원고를 마틴 해리스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그 번역본을 증거로 사용하여 동료들이 자신과 조셉 스미스의 우정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¹⁷

결국 마틴 해리스는 원고를 잃어버렸고, 그 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금편이 조셉 스미스로부터 거두어졌습니다. 이 뼈저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¹⁸ 이것은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¹⁹

또한 그분은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²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신앙의 길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그로써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과 의식과 계명에 더욱 힘써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물론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 주님의 선지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Harold B. Lee, quoted in Stephen W. Gibson, "Presidency Meets the Press," *Church News*, 1972년 7월 15일, 3면.
2. 열왕기상 11:11.
3. 열왕기상 11:28.
4. 열왕기상 11:31.
5. 열왕기상 11:38.
6. 열왕기상 11:40 참조.
7. 열왕기상 12:2~3, 20 참조.
8. 열왕기상 12:25~30 참조.
9. 열왕기상 14:10, 15~16 참조.
10. 열왕기하 5:1.
11. 열왕기하 5:5~6 참조.
12. 열왕기하 5:10.
13. 열왕기하 5:11~14 참조.
14. 니파이전서 2:10.
15. 니파이전서 3:3.
16. 니파이전서 3:5.
17. *History of the Church* 1:20~21과 교리와 성약 3편, 10편 참조.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60쪽.
19. 교리와 성약 14:7.
20. 교리와 성약 76: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어 항상 힘쓰며

영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은 시온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 분별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천둥 번개 속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길가에 있던 전광판에 “전방 물 웅덩이 조심”이라는 경고 문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달리던 도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보 덕분에 저는 예상치 못했고, 또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계속 길을 가는 동안 저는 속도를 줄이고 경고 표지판이 더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우리는 미리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나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다양한 금융 및 노동 시장 지표들은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의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홍수, 눈사태, 허리케인, 쓰나미, 회오리바람, 또는 눈보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보호와 인도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조기경보를 듣는 축복을 누립니다. 노아가 아직 목격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던]”(히브리서 11:7)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리하이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니파이전서 2:1~2 참조)

구주께서도 천사가 전한 경고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해룻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마태복음 2:13)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리와 성약 89:4)

영적인 경고를 받으면 더욱 면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경고하는 날”(교리와 성약 63:58)입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훈계대로 “깨어 …… 항상 힘[써야]”(에베소서 6:18) 합니다.

시온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 분별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영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하는 동안 성신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든 연령대의 자녀에게 적용되며,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1) 자녀와 함께 몰몬경을 읽고 대화하고 (2) 자녀와 자연스럽게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3) 자녀가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복음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조기경보를 인식하며, 자녀를 강화하고 돕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더 잘 준비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요소: 몰몬경을 읽고 대화한다

몰몬경에는 구주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으며, 유일하게 주님께서 직접 그 참됨을 간증하신 책입니다.(교리와 성약 17:6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몰몬경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2쪽 참조) 참으로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에는 강력한 설득력과 개종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이러한 힘이 발휘되는 근원은 이 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며, 그 가르침이 영감에 따라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내 백성들을 위하여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는 그들이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5:4) 이 구절에서 명백함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거나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을 뜻합니다.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이 책이 진리(요한복음 14:6; 니파이전서 13:40 참조), 즉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참된 복음에서 잃어버려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니파이 전서13:26,

28~29, 32, 34~35, 40 참조) 이 두 가지, 즉 구주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이 명백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이 합쳐져서 신회의 세 번째 일원인 성신으로부터 확인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그리하여 몰몬경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읽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른 어떤 책보다 몰몬경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63쪽) 규칙적으로 몰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에 대해 토론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관찰하고 자녀의 말을 들으며 자녀에게서 배우고 또 가르칠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연령의 청소년들과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몰몬경이 불러오는 특별한 영에 반응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든 단어와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사가가 언급한 “친밀한



영"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이사야 29:4; 또한 니파이후서 26:16 참조) 또한 아이가 질문하고 생각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함께할 때 영적인 조기경보에서 올리는 중요한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부모는 자녀가 이 성스러운 경전에 담긴 진리에 관해 무엇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분별하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눈다

간증이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어떤 사실이 참되다는 점을 아는 개인적인 지식이며, 이 지식은 성신이 증거할 때 찾아옵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신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진리로 인도합니다.(요한복음 14:26; 16:13 참조) 따라서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됩니다."(모로나이서 10:5)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받는 지식과 영적인 확신은 계시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구하고 얻는 데에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모로나이서 10:4 참조) 개인적인 간증에는 또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자녀에게 간증을 나눌 기회는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부모는 늘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이나 일정 계획에 따르지 않으며,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일부러 계획하지 않은 경우에 나누는 간증일수록 더 훌륭하게 교화하고 영향력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85)

예를 들어, 저녁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가족 대화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날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구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기에 더 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간증할 때 항상 "이런 간증이 있는데"라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축복을 받았다"거나 "경전 진리가 언제나 나를 인도하는 큰 힘이 된다"처럼 단순한 말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나 버스 안에서, 또는 수많은 다른 상황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간증을 전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한 즉흥적인 간증에 대해 자녀가 보이는 반응, 그리고 대화에 열의 있게 참여하는지, 아니면 주저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영적인 조기경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리는지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배운 교훈에 대해 자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또는 어떤 복음 원리나 관례에 대하여 자녀가 솔직하게 던지는

의견에서 실마리를 얻으며 부모는 자녀가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의문이나 필요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귀 기울여 듣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러한 토론은 든든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고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소: 자녀가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크게 나누면 "행하는 것들과 행함을 받는 것들"(니파이후서 2:14)로 분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 즉 독립적으로 행동할 역량과 권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선택의지가 있는 우리는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행함을 받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행해야 하며 특히 능동적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118)

복음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야고보서 1:22) 합니다.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서 성신으로부터 가르침과 간증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부모는 자녀가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배움을 추구하도록 돕는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기에 너무 이른 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 끼는 먹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복음 교사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물고기를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녀를 격려하는 일 즉, 직접 행동하며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그렇게 배우려면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복음을 공부하며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려면 우선 물문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물문경을 읽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 또는 최근에 가정에서 토론했던 복음 주제나 일상에서 나는 간증에 대해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가정의 밤에 참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적절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자녀가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그런 잘 짜여지지 않은 가정의 밤이 걱정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개요와 시청각 자료가 사전에 미리 구비되어 있는 가정의 밤 자료 세트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를 해야 훌륭한 가정의 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함께 경전 구절을 찾으며,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일하였더라.” (앨마서 1:26)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어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돕습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받고 행함을 받는 것을 기다리도록 훈련해 왔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주로 자녀에게 영적인 물고기만을 먹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행동하고, 스스로 배우고, 확고부동하게 서도록 돕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돕습니까?(제3니파이 14:7 참조)

여러분과 제가 축복으로 받은 영적인 이해와 마음에 느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자녀들에게 단순히 대물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얻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면 부지런함과 연구와 신앙으로 구하는 자세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자녀가 부모와 어른들의 영적인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 자녀들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맞설 영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간증

계속해서 자녀와 물문경을 읽고 토론하고, 자연스럽게 자녀와 간증을 나누며, 능동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부모는 먼 곳을 보는 눈(모세서 6:27 참조)과 나팔소리를 듣는 귀(에스겔 33:2~16 참조)를 축복으로 받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성스러운 습관이 합쳐질 때,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감을 받아 가정 안에 있는 망대에 서서 “깨어…… 항상 힘쓰는!” (에베소서 6:18) 파수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직계 가족과 장래 후손에게 축복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약속드리며 간증드립니다. 아멘.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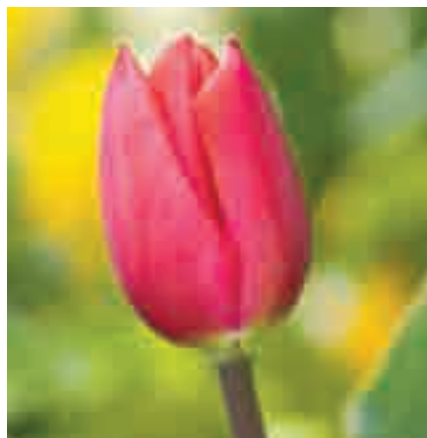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과 결혼생활과 우리 사회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결한 상태로 지키는 가운데 정절의 기쁨을 최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 근에 아내와 저는 먼 지역에 있는 어느 공항에 내린 적이 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탄 아름다운 젊은 여성 세 명이 급히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세 여성이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급히 달려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 세 여성은 모두 최근에 이혼을 경험했고, 그것도 모두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된 원인도 모두 외설물에 유혹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씁쓸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니 야곱이 다음 말을 할 때 느꼈을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을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¹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젊은 여성들을 딸이나 손녀처럼 여겼기 때문인지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와 홀런드 자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들으며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도덕적 타락이 이처럼 난무하는가? 교회 회원을 포함하여 왜 그토록 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그러한 타락의 희생자가 되어 비극적인 상처를 입는 것일까?”

물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도 일부는 압니다. 거의 매일, 우리 모두는 사방에서 쇄도하는 부도덕한 메시지로 공격받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그리고 음악 산업의 추악한 세력은 지속적인 언어와 성적 행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조상의 이름을 준비하여 성전에 제출하는 데 쓰는 바로 그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도 유해물 제한 및 통제 장치가 없다면 제



자녀들이나 손자손녀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그들의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젊은 아내들은 남편의 부정이 외설물의 유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부도덕한 행위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편들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나 일어나는 일들을 비롯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죄와 타협하는 일은 남녀노소와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탄은 휴대 전화, 비디오 게임, MP3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지만 잘라내지 말고 그 뿌리를 직접 내리치면 그곳에 욕욕이 은밀히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욕욕이란 불미스러운 단어이며 다루기 불쾌한 주제입니다만, 일부 고전에서 욕욕이 “일곱 가지 대죄”² 중 가장 치명적인 죄로 알려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욕이 그토록 치명적인 대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욕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을 완전히 파괴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멸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관계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이며, 부부가 자녀를 가족 안으로,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가족 안으로 데려 오려는 소망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욕욕은 외설물을 한 장 넘기는 것만큼, 또는 길거리에서 욕구를 충족할 대상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힐끔거리는 것만큼이나 빨리 변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서 지붕 위에서라도 그 사랑을 외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욕욕에는 수치심과 은밀함, 그리고 거의 병적인 비밀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늦은 시간, 더 어두운 시간일수록 좋고, 만약을 대비해 문을 이중으로 잠급니다. 사랑을 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욕욕은 경건함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기 탐닉에만 빠져 듭니다. 사랑에는 열린 손과 열린 마음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욕욕에는 채울 수 없는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상으로도 다른 사람 통한 것이든 사랑의 참된 의미를 더럽히는 일이 왜 그렇게 파괴적인지를 알려 주는 몇 가지 근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욕욕은 현재 또는 미래의 사랑에 기반이 되는 신뢰라는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인 경우든, 선출된 공직자나 회사 대표, 연예인, 유명한 운동 선수 같이 공적 인물이든 간에 그러한 신뢰를 잃으면 도덕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은 건물에는 “빈 건물”이라는 표지판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신이든 기혼자든, 나이가 많은 적든, 그것에 상관 없이 우리 주위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사회 병폐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물질, 상황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 한 모금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뛰쳐나가십시오.⁴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이 무엇이든, 또는 누구이든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십시오. 그리고 유혹 받는 현장에서 달아날 때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절대 찾을 수 없도록 단서를 남기지 마십시오.
- 진실로 중독이라는 시슬로 묶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힘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감독님께 이야기하고 권고를 따르십시오. 신권 축복을 구하십시오. 교회의 가족 서비스 자료나 기타 적절한 전문가에게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 컴퓨터에 외설 사이트 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 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인생에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는 자제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순간에도 더욱더 자제력을 발휘하십시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음란한 내용이 나온다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 영화가 노골적이고 지저분하다면 영화관에서 나오십시오.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면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런 영향력들은 처음에는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영성을 무디게 하여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⁵ 그러므로 그 한 걸음을 주의하십시오.

-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부적절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차와 케이크를 대접하며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녹차나 홍차는 대접하지 않으시겠지요.) 그 악당을 쫓아내십시오. 음란한 생각 대신 소망으로 가득 찬 생각과 행복한 추억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배신하고 저버린다면 상처를 받고 산산이 부서질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초대할 때만’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래 전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의지가 곧 판단력이 되게 하십시오.⁶



●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또는 아파트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내는 곳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예술, 음악, 또는 문학 작품을 사랑하는지 말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으셨다면 형편이 되는 대로 자주 성전에 가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게 하고 ……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있게 하시며,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게”⁷ 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전에서 나갈 때 여러분이 지니고 가는 상징을 기억하고 절대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매주 일요일에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⁸ 그러므로 더 노력하여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 ……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⁹ 기억합시다. 범법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도 상처를 입힌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죄라 하더라도 놀라운 그분, 천하 못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에게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¹⁰ 범법을 저지르고 영혼에 고통을 느낄 때, 부디 얼마가 했던 회개와 그의 인생을 바꾼 절규를 되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¹¹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총관리 역원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사랑, 그 중에서도 진실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존중심과 인류 역사상 도덕적인 사회에서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적절히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의 고결함과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가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이 구체화되어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구속하는 사랑의 발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진정한 사랑을 볼 때마다 이를 훼손하고 더럽히며 모독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저 사악한 거짓과 욕정의 아비인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사랑을 더럽히는 과정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유혹에 처할 때 우리는 젊은 니파이가 선언했듯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의 원수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¹² 우리는 저 사악한 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강력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발휘하는 권능으로 그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복음의 빛은 절망적이고 의지할 데 없는 암흑과도 같은 삶에 다시금 밝은 빛을 비쳐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우리 사회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결한 상태로 지키는 가운데 정결의 기쁨을 최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야곱서 2:7
2. 한 가지 예로, Henry Fairlie's excellent *The Seven Deadly Sins Today*, 1978 참조.
3. Fairlie, *The Seven Deadly Sins Today*, 175쪽 참조.
4. 창세기 39:1~13 참조
5. Lao Tzu, John Bartlett 편,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14판(1968), 74쪽 참조.
6. Juvenal, *The Satires*, 풍자시 6, 223행.
7. 교리와 성약 109:22.
8. 교리와 성약 20:77; 또한 79절 참조.
9. 이사야 53:4~5.
10. 사도행전 4:12 참조.
11. 엘마서 36:18.
12. 니파이후서 4:28.

신권 대회 | 2010년 4월 3일



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병 고침

우리에게는 신권 권능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위안과 병 고침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의학과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와 신권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병 고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후기 성도는 가장 훌륭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섭취와 운동 및 기타 방법을 활용합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와 같은 의료인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의학을 이용하는 일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나 신권 축복에 대한 신앙과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누군가 신권 축복을 부탁할 때면 이렇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장로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믿음과는 매우 상반된 이야기군요. 몸이 아플 때 그저 주님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에

관한 저의 지식으로는 받을 값지도,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채 밀과 옥수수가 자라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치료법을 충동원해 본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몸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치료법을 성결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¹

물론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신앙으로 기도하거나 병 고침을 위한 신권 축복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응급한 상황에서는 기도와 축복이 우선입니다. 가장 흔히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는 “항상 기도”(교리와 성약 90:24)하고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경전 속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²

II.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든, 가정이나 예배 장소에서 기도하든,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여러 경전 구절에서 신앙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어떤 권능을 발휘하는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6)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몰몬경에서도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써 역사”(모로나아서 10:7)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가 “고대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3분의 1이 “성스러운 치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⁴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들은 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신앙이 발휘하는 권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사례를 듣습니다. 텍사스 주에 사는 한 신문기자도 그런 기적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살 난 여자 아이가 호흡이 가빠지고 고열이 났습니다. 부모가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양쪽 신장과 폐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체온은 41.7도나 되었습니다. 아이 몸은 별장게 달아오른 채 병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다니는 텍사스 주 와코에 있는 개신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갑자기 기적처럼 살아났으며, 겨우 1주일 여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⁵

참으로,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신의 권능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아

능한 기적[을] …… 행하십니다.”(니파이후서 26:13)

III.

오늘 모이신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성인들과 조만간 이 권능을 받게 될 젊은이들에게 신권 권능과 관련된 병 고침의 축복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권 권능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 재해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 상황을 볼 때 신권 권능은 그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여러 경전 구절에는 주님의 종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마가복음 16:18)⁶ 병자 축복을 위해 신권 권세를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기적으로 병 고침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병자 축복을 위해 신권 권세를 사용하는 과정은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름 부음, (2) 기름 부음 인봉, (3) 신앙, (4) 축복의 말, (5) 주님의 뜻.

기름 부음

구약전서에는 신권 권세로 부여하는 축복 중 일부로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⁷ 기름 부음은 성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⁸ 또한 이것은 그러한 성스러운 행위로 일어날 결과로써,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마가복음 6:13)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신권 권세로 병자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야고보서 5:14~15)

기름 부음 인봉

누군가가 멜기세덱 신권 권세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은 동일한 권세로 인봉됩니다. 무언가를 인봉한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의미이며, 의도한 목적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인봉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고통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여 주실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면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능과 영향력이 저를 통해 아픈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병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된다면, 전능자의 권능이 집행자의





육신을 통해 아픈 사람의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며, 결국 아픈 사람은 온전하게 됩니다.”⁹

우리는 신권 권세로 집행된 축복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공식 모임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에 내려진 계시에서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에서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는 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이니라”(교리와 성약 84:73)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신앙은 하늘 권능으로 치유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몰몬경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이터서 12:12)라고까지 가르칩니다.¹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 병자 축복에 관해 하신 유명한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과 그 가족은 종종 의식을 집행하는 형제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병 고침의 은사나 신권 권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고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지닌 신앙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22]라는 말씀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주님께서 너무나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¹¹

김볼 회장님은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픈 사람이 신앙을 키워야 할 자신의 책임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볼 회장님은 신권 축복을 받은 어느 충실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 날, 축복을 한 번 더 받고 싶으냐는 물음에 그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았습니. 의식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¹²

축복의 말

신권 축복 중 또 한 가지 부분은 바로 장로가 기름 부음을 인봉한 후에 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큰 의미를 줄 수는 있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교회 기록으로 보관되지도 않습니다. 축복사의 축복과 같은 일부 신권 축복은 말한 내용이 축복에서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병자 축복에서 하는 말은 축복의 필수 요소인 기름 부음이나 인봉, 신앙, 주님의 뜻과 같이 축복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장로가 주님의 영을 강하게 동반하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축복의 말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시는 때를 알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¹³ 그렇게 된다면 축복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또한 기적처럼 실현될 것입니다. 병자 축복을 하면서 영감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제가 한 축복의 말이 주님의 뜻을 알았던 특별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 축복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또한 제가 해야 할 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장로는 다양한 이유로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지거나 둔감해집니다. 또한 모든 장로는 축복을 할 때 고통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바라는 점을 반영하여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불완전한 점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병자 축복에서 하는 말은 병 고침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충분하고,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집행자가 축복의 말을 했던 안 했던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자가 개인적인 바람에 치중했거나 경험이 부족하고, 주님께서



축복받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상을 명하거나 말한다 해도, 그 말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병자 축복 집행을 주저하는 장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자 축복에서 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복돋아 줄 수는 있지만, 축복의 효과는 축복을 집행한 장로의 말이 아니라 신앙과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

형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신앙에 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야 한다는 계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면 ……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교리와 성약 46: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⁴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종이 병 고침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신권 축복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낮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바로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십대 딸 아이의 장례식에서 제 사촌 동생이 했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아이는 의학적으로 훌륭한 치료를 받았습니 다. 신권 축복도 받았습니 다. 성전 기도자 명부에도 올라 있었습니 다. 수많은 분들이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셨습니 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에게 큰 신앙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 아이를 지금 본향으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신앙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십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훌륭한 소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느꼈습니 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 다. “우리 가족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뿐,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참되다는 점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과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이 참되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부활을 통해 불멸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이룰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년), 163쪽.
2. 모사이야서 4:27 참조.
3. 또한 마가복음 10:46~52; 누가복음 18:35~43 참조.
4. U.S. Religious Landscape Survey: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Diverse and Politically Relevant(The 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2008년 6월), 34, 54쪽, <http://religions.pewforum.org/reports#>.
5. Steve Blow, “Sometimes, ‘Miracles’ Are Just That”, *Dallas Morning News*, 2000년 1월 30일자, 31A면 참조.
6. 또한 마태복음 9:18; 마가복음 5:23; 6:5; 7:32~35; 16:18; 누가복음 4:40; 사도행전 9:12, 17; 28:8; 교리와 성약 42:44, 48; 66:9 참조.
7. 예: 출애굽기 28:41; 사무엘상10:1; 16:13; 사무엘하 5:3 참조.
8. 레위기 8:10~12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252쪽; 또한 러셀 엠 넬슨, “육신의 팔에 기대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3월호, 40~41쪽;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474쪽 참조.
10. 또한 니파이전서 7:12; 교리와 성약 35:9 참조.
11.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on Administration to the Sick”, *Tambuli*, 1982년 8월호, 36~37쪽.
12. *Tambuli*, 1982년 8월호, 36쪽.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68쪽.
14. 또한 요한1서 5:14; 할라맨서 10:5 참조.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거룩한 선교사 부름

주님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재차 결심하는 모든 유능한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사 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저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 여러분에게 선교 사업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군대처럼 세계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제 메시지는 또한 젊은이들을 자녀로 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신권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선교 사업은 제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는 여덟 개에 달하는 모든 칠십인 정의회 소속 칠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칠십인을 세우셔서 “그분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¹ 선교 사업은 교회에 활력소가 되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²라고 말씀하시며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들에게도 부름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그분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1837년 6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사도인 히버 시 김볼 장로에게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김볼 장로는 조셉 스미스와 커틀랜드 성전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셉은 거룩한 권세로 말했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³

이 영의 속삭임은 선교사를 봉사 지역으로 보내는 부름이 주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선교사들도 봉사하라는 신성한 부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씩 짝을 지어 다니며 과거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와 같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라는 무대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특권입니다.”⁴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그 무대는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기꺼이 보여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재차 결심하는 모든 유능한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하고, 결심하십시오.

제 자녀 중 두 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몹시 기뻐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이 각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온 특별한 편지를 열었을 때, 우리 마음은 흥분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기대감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제 딸 제네사는 미시간 디트로이트 선교부로, 아들 크리스찬은 러시아 모스크바 남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니다.

여러 해 전, 래스번드 자매와 제가 뉴욕 뉴욕 시 북 선교부를 감리할 때 저는 뉴욕 시에 도착한 선교사들을 보고 무척 놀라곤 했습니다.

선교부에서 첫 날을 맞는 선교사들을 접견하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리 선교부로 부름을 받도록 신성하게 계획되었으며, 제가 그들의 선교부 회장이 된 것 또한 그렇게 계획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교부 회장 임무를 마친 후에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으로부터 교회 칠십인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임 총관리 역원이 되어 받은 훈련 중 하나로, 십이사도들이 이 거대한 교회의 300개가 넘는 선교부 중 한 곳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들을 지명하는 자리에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허락과 격려를 받아 제가 했던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이 여러 해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계시는 때 그분과 함께 겪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도들은 각자 왕국의 열쇠가 있으며, 교회

회장이 내리는 지시와 지명에 따라 열쇠를 행사합니다. 당시 아이어링 장로님은 선교사들이 봉사할 지역을 지정하고 계셨는데, 저는 훈련 중 일부로써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전용 컴퓨터 화면 여러 대가 준비되어 있는 방에서 아이어링 장로님과 이른 아침에 만났습니다. 선교사부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도 그날 보조로 지명을 받아 함께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님은 선교사들이 배정되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정확히”라는 말은 그날 아이어링 장로님이 보여 주신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자, 배정할 선교사의 사진이 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각 사진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그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그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어링 장로님은 친절하고 애정 어린 음성으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어 장로님.” “안녕하세요, 양 자매님. 잘 지내십니까?”

그분은 마음속으로 선교사들이 어디서 선교 사업을 마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선교사가 배정되어야 할

곳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어링 장로님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의 의견과 건강 상태, 각 선교사에 관한 기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지역과 선교부가 표시된 다른 화면을 참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속삭임을 들으며 선교사가 봉사할 지역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매주 세계 곳곳에서 봉사할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다른 십이사도 형제님들이 알려 주셨습니다.

오래 전에 제 조국에 있는 동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저는 이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뉴욕 시에서 맞이한 선교사들이 계시기에 따라 제가 있는 선교부로 왔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몇몇 선교사를 배정한 후에 아이어링 장로님은 한 선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래스번드 장로님, 이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제가 그런 일을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나직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래스번드 형제님, 좀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장로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자를 아이어링 장로님과 컴퓨터 화면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 진행한 후에 아이어링 장로님은 저에게 몸을 돌리시면서 “래스번드 형제님, 이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 선교부를 거명하면 아이어링 장로님은 생각해 잠겨 저를 보시며 “아닙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속삭임을 받은 곳에 선교사들을 계속
배정하셨습니다.

선교사 지명 모임을 마칠 즈음에 한
선교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는 강한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에
받은 느낌 중 가장 강했는데, 앞에 나타난 그
선교사가 일본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어링 장로님께서
제게 물어보실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다시 한 번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일본이 아닐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어링 장로님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일본에
있는 여러 선교부가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저는 그 선교사가 일본 삿포로 선교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님은 저에게 선교부 명칭까지
묻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그 선교사를 일본
삿포로 선교부로 배정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또한 그 선교사가 가야 할 곳을 알도록 영의
속삭임을 듣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모임을 마치면서 아이어링 장로님은
세상으로 나아가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명된 각 선교사를 구주께서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 훌륭한 젊은이들과 나이 든
선교사들, 부부 선교사들이 봉사해야 할 곳을
아는 이유는 구주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이
교회에서 부름받는 모든 선교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통해 주시는 계시에
따라 부름받아 특정 선교부로 배정되거나
재배정된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던 초기 시절에 크나큰
역할을 했던 휘트머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금판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모든
물문경 앞 부분에는 그들의 간증과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1829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4편 머리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휘트머의 세 아들은 각자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받게 되어 그들
개개인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존 휘트머와 피터 휘트머 이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내가
여러 번 나에게 원하였음이니라.”⁵

저는 청남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이와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이 있을 일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니라.”⁶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교사
부름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의복계
생활하고,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와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대업”⁷에 참여하는 신성한 부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0:1.
2. 마태복음 4:19.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2007, 327쪽.
4. Thomas S. Monson, “That All May Hear,” *Ensign*, 1995년 5월호, 49쪽.
5. 교리와 성약 15:4; 16:4.
6. 교리와 성약 15:6; 16:6.
7. 교리와 성약 128:22.



데이비드 엘 벡 형제
본부 청남 회장

위대한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의무를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토록 멋진 청남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는 경험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힘과 용기로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감을 전해 줍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에 속하지 않은 한 청소년이 아론 신권 소유자인 친구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루이스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 완전히 달라요. 만나 보면 알 거예요. ……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냥 느껴져요.”

루이스를 비롯하여 여러분을 다른 청소년과 다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선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아론 신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I.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권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맡기신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신임하셨던 두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경에 실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을 한 데 모은 선지자 몰몬은 열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신성한 기록을 넘겨 받았으며, 백성들을 지켜본 후에 역사를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몰몬은 열다섯 살 때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몰몬서 1:15)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사람은 바로 열네 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위대한 사업에 부름을 받은 조셉 스미스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곳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 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우지어다.’” (“용기를 구하는 외침”,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54, 57쪽)

II.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분이 이 긴급한 부름에 응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 앞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무척 기대됩니다. 새로운 자료는 6월 초에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면 곧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집사와 교사, 제사인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키우며 신권 의무를 배우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활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복음 원리 또는 신권 의무를 학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각자 자신의 필요 사항과 환경,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고, 영적인 자립심을 키울 훌륭한 기회입니다.

실천한 후에는 배우고 경험한 일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렇게 할 때 간증이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제게 나눠 준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이 청년은 다른 아론 신권 형제와 함께 아파서 밖으로 외출할 수 없는 형제를 방문해 성찬을 집행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 형제님이 최근에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음식도, 심지어 작은 성찬 빵 조각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청년들은 빵을 축복한 후에 그 쇠약한 남성에게 빵을 내밀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축복된 빵 한 조각을 집어 들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빵 조각에 입을 맞추듯 입술을 댔습니다. 나중에 정황을 알게 된 이 청년은 그 신실한 형제가 성찬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마치 구주의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형제님이 구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경험을 한 이 청년은 성찬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청년과 같은 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서 부모님과 지도자, 정원회 회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요일 정원회 모임은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해 온 노력을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론 신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발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III.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아론 신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점을 여러분도 직접 깨닫고 느낀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아론 신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론 신권이 왜 신권의 “큰 항목”(교리와 성약 107:6 참조) 중 하나라고 말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신권 열쇠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편, 84:26 참조)

사탄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숫자로 볼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을 품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모세서 1:4, 6)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강화되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신권 의무입니다. 아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한 한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레오에게 신권이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레오는 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 주죠. 레오가 일요일에 성찬을

전달하면 남동생은 그 모습을 눈 여겨 봅니다. 레오는 또 …… 가족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전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중에 동생들에게 침례도 주겠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러분은 비회원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교회에 들어오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친구를 친형제처럼 돌보고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길을 잃은 다른 청년들을 구조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는 의로운 모범과 충실한 신권 봉사는 모든 주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은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어린 물몬에게 의지하여 지도력과 영감을 구했습니다.(몰몬서 2:1~2 참조)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하며,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세상에서 선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IV.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되십시오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될 때 여러분은 마음에서 큰 변화를 느끼리라는 점을 간중드립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깨끗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집행하려 힘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청녀를 친절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영을 거스르는 일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을 알게 되고 항상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론 신권 직분에서 이웃에게 충실히 봉사할 때 이웃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신권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정원회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의무를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몇 주 전 어느 쌀쌀한 아침에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타구스 강을 따라 조깅하다가 몇 세기 전에 살았던 탐험가들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파스한 햇살이 우뚝 솟은 기념비와 저에게 쏟아져 내리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탐험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기꺼이 한 사람들입니다. 친숙하고 안락한 세상을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대양으로 나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용감한 탐험가들을 생각하면 눈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한 여러분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여러분을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아론 신권을 잘 알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신권을 소유한 이들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계속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높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19 6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네 살배기 어린이들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평범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는 어린이들 앞에 큼직한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는 그것을 바로 먹어도 좋지만, 15분 정도 기다린다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후 어린이들만 두고 나와서 한 면이 거울인 유리창으로 실험실 안을 관찰했습니다. 어린이 중 일부는 즉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일부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린이들 중에 겨우 30퍼센트만 참아 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한 후에 교수는 다른 분야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려 노력하는 어린이들로 할 수 있는 연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실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관찰했으며,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행동장애를 보이는 확률이 높았던 반면, 기다린 어린이들은 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과 급여가 더 높고, 인간관계도 더 좋았습니다.

어린이와 마시멜로로 시작한 단순한 실험이

기다리는 능력, 즉 인내심이 미래에 펼쳐질 삶에서 성공할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라는 점을 보여 준 획기적인 연구가 된 것입니다.¹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도 알고 어른도 압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먹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며 사소하건 중요하건 대부분의 의문에 즉각 해답을 얻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자기가 선 줄이 옆줄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인내심, 즉 우리의 욕구를 일정 기간 동안 참는 능력은 귀중하고 흔치 않은 덕성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데, 그것도 당장 갖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개념 자체가 불쾌하고 때로는 쓸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인내는 이해력을 높이고, 행복을 더해 주며,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평안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화 과정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비단 자녀의 버릇만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훌륭한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이치를 이미 알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성숙해지고 잠재력을 발현하려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 살 때, 저희 가족은 낯선 지역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지만, 서독에 도착한 후에는 달랐습니다. 학교 공부는 그때까지 제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리 과목은 생소했고, 역사 과목도 내용이 무척 달랐습니다. 전에는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웠는데 이제는 영어를 배웁니다. 제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제 혀로 영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과목 대부분이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저는 뒤처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 다니기에 지능이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제게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 즉 끈기 있는 인내가 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려운 과목들이 이해되었고, 영어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우쳤습니다. 비록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그 경험에서 저는 인내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인내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내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 즉 노력하고, 희망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어려움을 용기로 감내하며, 우리가 마음 속 바람이 지어질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급함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성급함은 자신에게 몰두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기심이 생겨나는 근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없고 있는 "우주의 중심" 중추군이란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며 필멸의 세계라는 대극장에서 오직

자신만이 주연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을 돕는 조연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권 소유자들에게 제시하신 표준은 이런 것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인내: 신권의 원리

신권 소유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우리는 그분께서 모범으로 보여 주신 대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신권 지도력에 대한 공과가 거의 대부분 교리와 성약 121편으로 귀결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구절에 걸쳐 주님께서 신권 지도력에 대한 가르침의 정수를 주십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되어야 하나니"²

이 구절에 나오는 품성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인내의 근간이 되며 효과적인 신권 봉사 및 가장으로서 하는 봉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정원회 회원들과 우정을 키울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권 봉사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이 담긴 봉사를 할 때 이런 품성들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권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신권 봉사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이



인내를 통해 우리의 천성을 다듬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준비되게 하려는 것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한 종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돈을 빚진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참으소서.”³

주님의 방법과 시간

이스라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70년을 바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니파이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을 기다렸으며,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어느 때까지”⁴ 자신을 그렇게 두실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58 리아호나

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분의 자녀들이 기다리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군사 예비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운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종사가 되는 데 끝도 없는 달리가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인식하게 된 한 가지가 솔직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복음에 반하는, 특히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 온갖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하여 저를 제치고 앞서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나아말로 달려도 지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쳤고 지혜의 말씀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이겼습니다. 고백하건대, 당시에 그 일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약속이 과연 참된 것일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응답이 즉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온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수년 후에 저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현세적인 축복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율법이라도 순종할 때 즉각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에 더해서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속하지는 않더라도 늘 확실했습니다.

인내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 이해하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으며,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곤 하셨습니다.⁵

주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때로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⁶ 이해하게 된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식과 이해는 인내라는 값을 치르고 얻습니다.

때때로 현재라는 골짜기는 미래의 경험이라는 산 위에서 돌아볼 때에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의 시기가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종종 우리 성품에 기초가 되는 필수 요소가 되고, 미래에 얻을 기회와 이해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인생의 여정에 놓아 줍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⁷

인내는 영혼을 치유하고, 지식과 이해의 보화를 찾게 하며, 평범한 남자와 여자를 성도와 천사가 되게 하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인내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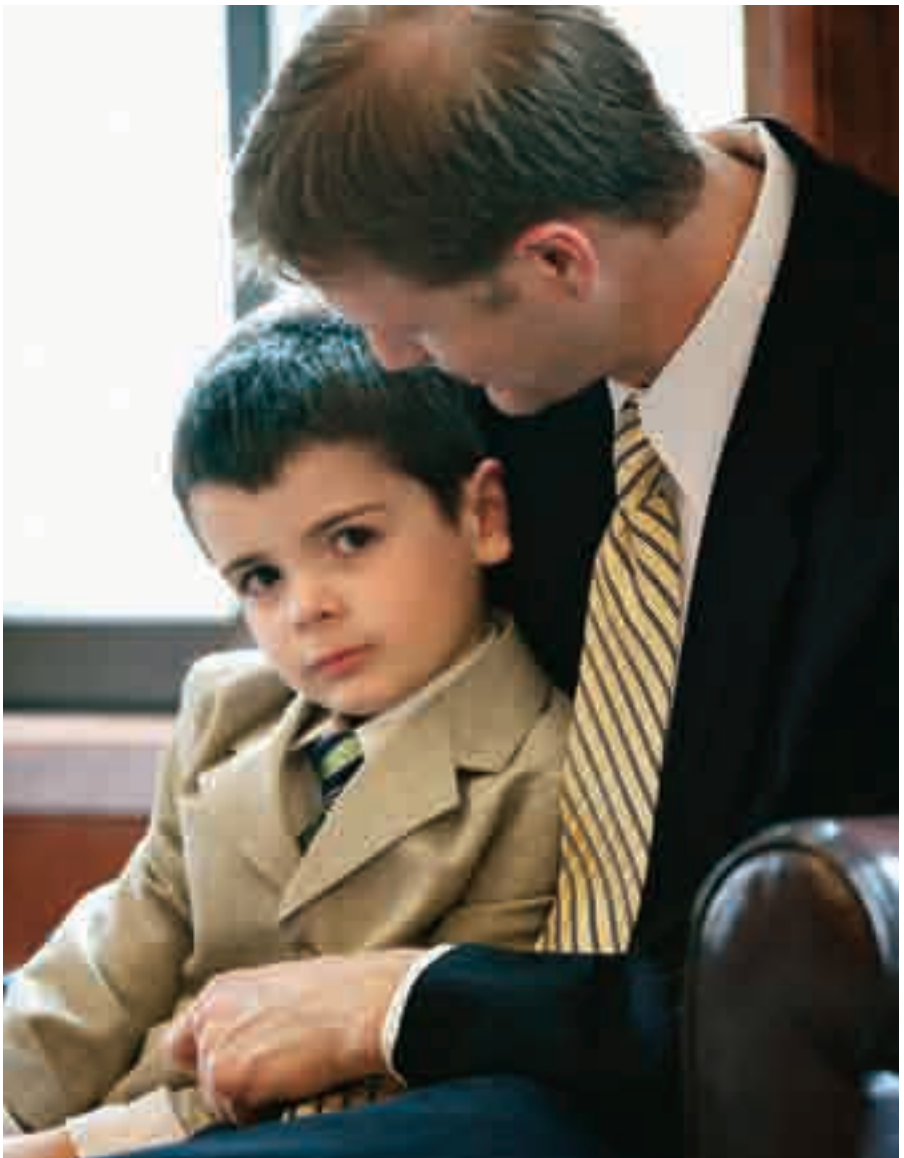
인내는 무언가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축복을 위해 당장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잠시 미루는 일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불친절한 말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남들이 악한 것으로 부를 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악한 것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인내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기와 품위와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⁸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내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에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⁹ 일입니다. 계시자 요한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¹⁰

인내는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구주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¹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의 참 주인이 되리라”¹²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받는 것보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구주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이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기에 우리도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¹³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축복하십니다

고대 시편 저자의 말을 다시 풀어봅시다. 우리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서운 웅덩이에서 건지시어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¹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내로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온유함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구주를 믿는 신앙과 소망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높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합당한 신권 소유자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특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용감하게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며,

우리가 남에게 구하는 인내심과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Jonah Lehrer, “Don’t! The Secret of Self-Control”, *The New Yorker*, May 18, 2009, 26~27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121:41~42; 또한 39~45절 참조.
3. 마태복음 18:26.
4. 교리와 성약 121:2.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75쪽.
6. 교리와 성약 98:12.
7. 갈라디아서 5:22~23 참조.
8. 모사이야서 3:19.
9. 니파이전서 2:10.
10. 요한계시록 14:12.
11. 누가복음 21:19
12. 누가복음 21:19, 각주 b 참조(영문 성경).
13. 교리와 성약 67:13.
14. 시편 40:1~3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부지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배운 후에 부지런히 실행하고,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 리 형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신권 형제로서 충실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겸손해지곤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경험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새 소책자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 소책자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엘 벡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입니다. 청남들이 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제시한 이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저는 일생 동안 부지런하게 의무를 다하는 신권 소유자에게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해 주신 약속과 이 책의 내용이 같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부름에 계속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시는 일을 행하며 늘 기뻐하고, 일생 동안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¹

바로 몇 주 전에 저는 새로 집사 신권을 받은 형제가 부지런히 봉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는 제게 아들이 그런 도면을 보여주었는데,

예배당 의자들이 놓인 모습과 성찬식 시간에 집사 한 명당 성찬을 전달해야 할 회원 수, 그리고 성찬을 전달하는 각자의 동선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년이 자기가 맡은 신권 봉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짰 것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그 아이를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담겨 있는 한 가지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배우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부지런히 계획을 실행한 후에 그 일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축복했는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집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기 위해 도면을 그렸습니다. 신권 봉사를 시작하는 소년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시는 일을 행하며”² 기쁨을 얻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부지런함에 대해 말씀하도록 동기를 준 또 다른 경험은 인생에서 신권으로 봉사할 마지막 날을 앞둔 어느 분을 만나 본 일입니다. 그분은 두 번이나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감독에 부름을 받아 봉사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연로해진 그분은 두 번째로 부름 받은 감독 직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져서 이제 어떤 신권 봉사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부지런히 실행해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요일에는 언제나 사람들 대부분이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사람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오셨습니다. 뒤이어 교회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님의 사랑을 느끼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감독으로서 연단에 앉아 있던 시절과 똑같이 말입니다. 형제님은 우리 마음을 고취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 그분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감독으로서 맡은 임무는 끝이



났지만, 그의 신권 봉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신권을 소유한 훌륭한 주님의 종들을 보아 왔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런 분들에게서 배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우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선, 저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더 부지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소책자에는 제일회장단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계시며 여러분이 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명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십시오.”

청남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례 요한이 지상을 방문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아론 신권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⁴라고 말했습니다.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성임하기 위해 주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을 때에도 요한은 아론 신권이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⁵ 그리고 누가 자신을 불렀고 어떤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자신을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으로,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오늘날 그분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십이사도에게 주셨던 동일한 특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이끌 제자 열두 명을 부르시고, 다시 한 번 그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물문경에 묘사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무한한 희생 상징물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신권 봉사를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훌륭하고 충실하게 그 성스러운 일을 해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⁶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분이 되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부르실 모든 신권 봉사에 부지런히 임하도록 역량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러한 결의는 여러분이 고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신권”⁷이라고 불리던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는 멜기세덱 신권에 부름 받아 봉사하는 영광을 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신권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게 하는 위임 이상의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주님과 같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⁸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데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의무를 배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⁹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배운 후에 부지런히 실행하고,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칙은 단순하지만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날의 뉴스를 살펴보는 일이 신권회 공과 교재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게 보입니다. 신권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 것보다 앉아서 쉬는 것이 마음에 더 끌릴 수 있습니다.

신권 의무가 아닌 다른 관심거리로 생각이 기울거나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 저는 스스로에게 “주님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신권으로 봉사하는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앞장 서서 가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고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오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저는 주님을 기억하며 가슴 벅찬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일요일을 앞둔 전날 저녁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보여 주신 모범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멸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무한한 희생이 어떠한지 한 단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¹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구주께서는 “다 이루었다”¹¹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의 영이 육신을 떠났고, 필멸의 육신은 무덤에 조심스레 안치되었습니다. 부활하기 전 사흘 동안에도 주님은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힘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하는 기분이 들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립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은 저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필멸의 삶 동안 베풀어야 할 사역은 끝이 났지만 주님은 영의 세계에 가서서 영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속죄 희생을 통해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죽은 자들을 구하도록 충실한 영들 사이에서 그분의 사업을 정비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편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임하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그러하여 택함 받은 사자들이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매여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곧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느니라.”¹²

주님을 기억하면 신권 사업에서 쉬고 싶은 유혹을 더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의무를 배우며 우리가 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일들을 부지런히 실행하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그분이 주시는 임무를 다하도록 끝까지 견디고, 영원히 아버지의 뜻을 열심히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 과거에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아시지만 부름을 주시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겪게 될지 아셨습니다. 충실한 봉사와 주님의 속죄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이 보여 준 삶에서 그러한 기적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충실한 신권 소유자의 거실에서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집사 시절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이 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그분 주변에 둘러 섰습니다. 그 형제님은 흰색 셔츠에 양복과 넥타이 차림을 하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님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고 듣고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은 일평생 신권 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방문자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님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신권으로 봉사하는 일이 종종 그렇듯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님은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셨을 때 그분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신경을 써 주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저는 형제님이 소년 시절에 신권을 지닌 부지런한 아버지에게서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방문을 다닐 때 아들들을 데리고 다녔던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 후, 형제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형제님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형제님과 함께 일했던 그분의 전 스테이크 회장님이 멜기세덱 신권으로 성별된 기쁨을 그분 머리에 부었습니다.

축복을 인봉하는 동안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성신을 통해 일부러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깨끗했고, 죄는 씻겨졌습니다. 천성이 변화하여 구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족과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께서 늘 충실하고 부지런한 신권 형제들에게 보이시는 친절을 목격하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종인 신권 형제 여러분께 권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성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영으로 보여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완수할 때까지 결의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런 후에 기도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다음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된 분들이며,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십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들을 통해 신권 열쇠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끊임 없이 이어져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살아 있는 사도들이 그 열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신권을 소유한 주님의 종으로서 받은 신임과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영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128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28쪽.
3.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소책자, 제일회장단 메시지, 아론 신권 소유자(소책자, 2010), 5쪽
4. 마태복음 3:14.
5. 교리와 성약 13편
6. 제3니파이 20:3~9 참조.
7. 교리와 성약 107:3; 또한 엘마서 13:1~9 참조
8. 교리와 성약 84:33~38
9. 교리와 성약 107:99~100
10. 교리와 성약 19:16~19
11. 요한복음 19:30.
12. 교리와 성약 138:30~3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우리가 받은 부름과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 제 여러분, 이곳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 앉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위성 방송을 통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도 수없이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저는 새로 성임 받은 집사로서 신권회에 참석하여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찬송가에 담긴 정신이 메아리로 울리도록 여러분에게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오라라고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름과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전,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들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발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웠고 암송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모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제 손자 중 한 아이는 당시에 열한 살이었는데, 그 발표 모임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첫번째 시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저희 부부가 있는 자리로 손자아이가 다가왔을 때,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미, 선교사로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토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예요. 배울 게 아직 많아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는 부모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성실한 교사와 고문들 덕분에 필요한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갈 나이가 되자 토미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토미는 정말로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해냈습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배우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줄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출판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입니다. 이 책에는 교회 지도자와 경전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발췌한 표준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세심하게 마련된 공과 교재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복음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정의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가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세미나리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거의 모두는 그 수업에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과 더불어 성전 결혼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올바르게 데이트를 하는 것은 그런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데이트가 허용되는 문화권에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데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십대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모두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트를 하면 여럿이 같이, 아니면 두 쌍을 이루어 하시기 바랍니다.² 부모님이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자를 만나보고, 잘 알 수 있게 하십시오. 데이트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표준이 높은 사람이고만 데이트를 하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하여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가서 유혹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한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당장 나오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훌륭한

충고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올바르게 옷을 입도록 늘 권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옷을 입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옷을 입는 방식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십시오. 문신과 피어싱 등 옷과 외모에서 극단적인 모습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은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은 교회 활동에 초대하여 함께 해 준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 격언은 언제나 참됩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³ 후기 성도는 자신이 가르치고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합니다. 자신에게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정직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정직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자문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몇몇 사람에게는 정직이라는 자신의 표준을 어긋라는 수치스러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 상법 과목 강의를 같이 들던 한 학생이 수업 토론 준비를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기말 시험에서 어떻게 합격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궁금증은 기말 시험 날, 그 친구 모습을 보았을 때 풀렸습니다. 그 겨울날에 그는 샌들을 신고 발가락을 다 드러낸 채로 강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 저는 그 친구를 보고 흠뻑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책을 바닥에 놓아 두고, 샌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글리세린을 바른 발가락을 움직여서 바닥에 있는 책을 기가 막히게도 절묘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친구는 상법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밝혀질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종합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때 그 과목을 담당하던 학과장님이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면 시험 대신 구술 시험을 하겠습니다.” 놀라움 정도로 발가락 움직이기 달인이 되었던 그 친구는 발가락으로 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시험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불경하고 저속하며 거친 언어, 적절치 않거나 저속한 농담은 주님께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듣고, 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상을 남깁니다.

외설물은 특히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호기심으로 탐닉한 외설물은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되고, 이는 더 저속한 외설물로 이어져 끝내는 성적 범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설물을 피하십시오.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극장에서 나오고,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특정 영화나 책, 또는 다른 형태의 오락물에 조금이라도 그럴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보지 말고, 읽지 말고,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⁶ 형제 여러분, 우리 성전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책임입니다.

위험한 마약, 처방약을 잘못 사용하는 일, 알코올, 커피, 차, 담배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을 파괴합니다. 형태가 어떻든 알코올은 영과 신체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폐를 약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음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유용합니다. 음악은 교육하고 교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단합시키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도와 박자, 강도, 가사에 따라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합당하지 않은 음악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 교감은 너무도 성스러운 것이기에

주님은 결혼 전에 자제력과 순수함을 요구하셨고, 또한 결혼 후에도 완전히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테이트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범법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릅니다.

교회 9대 회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훌륭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테니스 갤러해드 경이 말한 테니스의 시구를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순수하기에 나에게서 열 명과 같은 힘이 있다.”⁷

얼마 전, 십대들의 성적 행태에 관한 논문을 쓴 한 저자는 이 사회가 십대들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광고와

대중 매체는 “성적 활동은 바람직하며 누구나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나 부모들의 간청을 때로는 사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대중 매체들의 아우성 사이로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여, 깨끗할지어다.”⁸

유혹이 찾아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울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⁹

확인을 받고 교회 회원이 될 때 여러분은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받을 때에도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힘을 끌어오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이 여정에서 이탈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된 은사를 주시기 위해 구주께서는 목숨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약속은 확실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¹⁰

여러분의 영생이 위태로워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그 길에서 급히 돌아올수록 더 빨리 용서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찾아오는 감미로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대부분 비이გი적인 봉사를 할 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당시에 캘리포니아 선교부라 불리던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지아에서 온 한 젊은 선교사를 접견했는데,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매주 집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십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보냅니다 몬슨 형제님.”

저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답장이 옵니까?”

선교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으로 답장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선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서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사 직분만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면 편지도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몬슨 형제님”

저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당신의 어린 종에게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선교 사업 동안 매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고, 또한 장로님의 간증을 부모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쓰실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저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를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젊은 선교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선교 임지에서 9개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지 못했던 선교사입니다. ‘장로님, 매주 집에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답장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후 장로는 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몬슨 장로님?”

기억이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답장을 받으셨나요?”

그 장로는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고무줄로 묶은 편지 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맨 위에 있던 편지를 끄집어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어머니가 적은 내용을 좀 보세요. ‘아들아, 네가 보내주는 편지들은 정말 잘 받았단다. 선교사인 네가 정말로 대견하구나. 혹시 이건 아니? 아빠가 제사로 성임을 받으셨단다. 나에게 침례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지금 나는 선교사와 만나고 있어.

그리고 1년 후에 네가 선교 사업을 마칠 시기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나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단다.’”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의 약속을 이취 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로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답해 주십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가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 선교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렬히 드린 기도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감동시켜 모든 개개인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아, 찬송가, 199장.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년), 24, 25쪽.
3. Miguel de Cervantes, in John Bartlett, comp., Familiar Quotations, 14th ed.(1968), 197쪽.
4. 출애굽기 20:7
5. 신앙개조 제13조
6. 고린도전서 3:16~17
7. Alfred Lord Tennyson, in Familiar Quotations, 647쪽.
8. 교리와 성약 38:42.
9. 고린도전서 10:13
10. 이사야 1:18

일요일 오전 모임 | 2010년 4월 4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지지하고 치유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잔해 속에서 동상을 찾은 주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동상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던,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상을 대부분 복원해냈지만 손은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각가를 고용해서 새로운 손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놔 두고 싶어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동상은 손이 없는 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동상 발판에 다음 한 마디 말이 적힌 팻말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구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기 위해 손을 뻗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걷고 보살피시며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필멸의 삶 동안 하신 일이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시다면 하실 일입니다. 이는 또한 그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 향합니다.

구주께서 보이신 완벽한 모범을 따를 때, 우리 손이 구주의 손이 되고 우리 눈이 구주의 눈이 되며 우리 마음이 구주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준 비이기적인 희생과 넉넉한 인심에



대해 들으면 우리 가슴은 감사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벅차 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발하는 빛이며, 여러분은 선한 마음과 연민으로 지구촌 곳곳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낙담하여 자신이 교회에 맞지 않다고 여기며 결국 교회에 발을 끌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듣곤 합니다.

소년 시절,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독일은 분단되고,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에서 보낸 식량과 의복이 담긴 인도주의 물자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옷에서 나던 냄새와 복숭아 통조림의 달콤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물품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그런 개종자들을 깔보기도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며 *Büchsen Mormonen*, 즉 “통조림 물론”이라 부르면서 증오했는데 그런 신회원들은 세상적인 필요 사항만 해결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정말 교회를 떠났지만, 많은 이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복음의 달콤함을 맛보았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품에 안겨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잡”을 찾았습니다. 서너 세대가 흐른 지금, 많은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온 유래를 찾아 보면 그때 그 개종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환영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복장이나 외모, 말투나 행동이 조금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돋아 줍시다. 환영하는 손길을 내미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미와 연민과 사랑을 특별히 듬뿍 부어 주어 그들이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이 들 때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구주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르시기를, 너희 모든 땅 끝이며, 내게로 오라 ……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¹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구주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신 대상은 주로 자신이 부유하고 권세 있으며 의롭다고 착각하여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간 두 남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한 남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나머지 한 남자는 마음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²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³ 우리 모두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러졌을 때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결점들에 대해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까? 구주의 품에 안기기를 열망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줄 안다면 참으로 옳고 타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세상에서 죄를 수용하거나 악을 경시하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서 죄와 죄인을 혼동하고 성급하고 매몰차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⁴을 압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다른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월을 겪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된 20달러짜리 지폐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럽고 헤지고 흠집이 났죠. 하지만 이래 봐도 20달러 지폐예요. 아직 가치가 있죠. 그렇게 안 보이고 닳고 해졌더라도 제게는 여전히 20달러만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연민을 품은 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사람들에게 내밉시다. 모든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지지하고 치유하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⁵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활절 안식일은 구주께서 우리 모두가 짊어진, 심지어 고통 받아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까지도 가까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좋은 날입니다.⁶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⁷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합시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형제와 자매들 곁에 있어 줍시다.

우리의 손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 전래동화에는 같은 밭을 함께



일구던 아브람과 짐리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과 수확량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 짐리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일곱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형이 수확량 중 절반만 가져가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자신이 너무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짐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곡식단 중에서 1/3을 가져다 형의 곡식단에 얹어 두고는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아브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며 일을

거들어 줄 아들도 없는 가난한 동생 짐리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한 짐리가 수확량 중에서 절반만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브람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용히 밭으로 가서 자신이 수확한 곡식단 중 1/3을 가져다가 사랑하는 동생의 곡식단에 얹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밭으로 간 두 형제는 둘 다 자신의 곡식단이 전과 같아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날 밤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 나와서 전날 밤에 했던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형제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복받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⁸

이것이 바로 연민의 정신입니다. 타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⁹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¹⁰

진정한 사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편지나 시를 쓸 수도 있고, 사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으며, 사랑을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¹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랑에 대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매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잃은 자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공과를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한 “약한 자를 [돕고] 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¹²하는 방법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살피는 방법을 아십니다. 구주께서 내미신 손길에 닿은 사람들은 고양됩니다. 그 결과, 더 훌륭하고 강하고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은 구주의 손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¹³인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정, 워드, 지역 사회, 조국에서 추구할 분명한 우선 순위를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쁘고 좋은 것들, 율법, 그리고 할 일을 적어 놓은 목록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계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물 없는 구름이나 열매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¹⁴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알맹이 없이 그분의 교회라는 껍질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선교 사업이나 성전 사업 또는 복지 사업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신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도록 구주를 깃세마네 동산으로 이끈 힘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계획을 이룩한 위대한 동기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자 영원히 솟아나는 치유의 샘이며, 귀중한 소망의 분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10년 4월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웬들 마크 패커



러엘 웬 웰스



머린 에이치 영



웬 러엘 벨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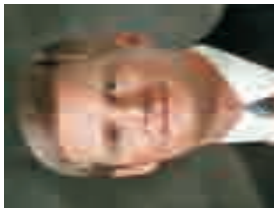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퀸틴 웰치



디터 크리스토퍼슨



널 앤더슨



로버트 에이 리스먼드



클라크 G 앨런



스टी븐 이 스노우



왈터 에프 존슨



엠메트니 밀러



제이 이 켄슨



도널드 엠 오펜스트롬

취임인 회장단

칠십인 제임 정원회



마운 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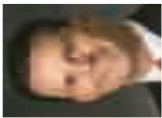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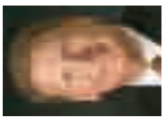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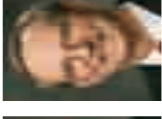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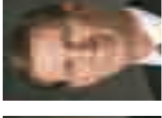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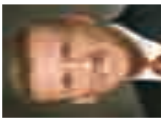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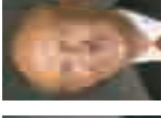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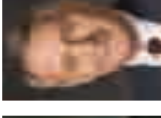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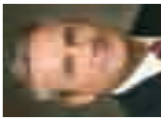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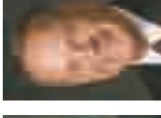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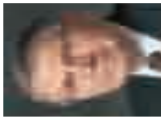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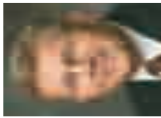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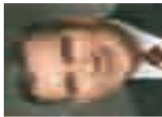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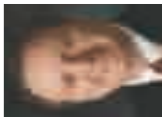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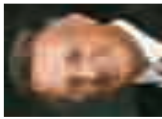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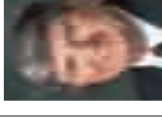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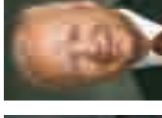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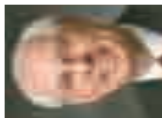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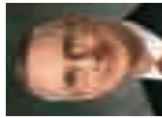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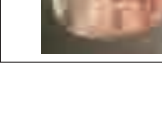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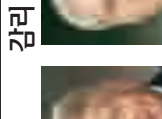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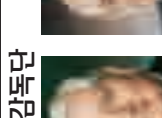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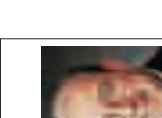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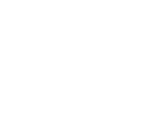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칠십인 제이 정원회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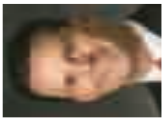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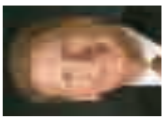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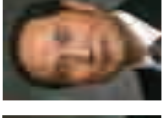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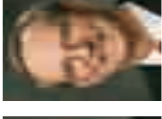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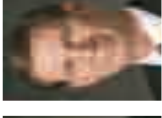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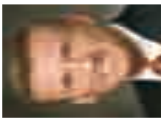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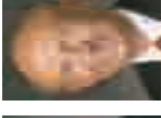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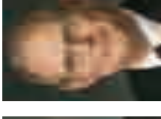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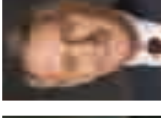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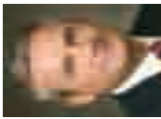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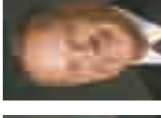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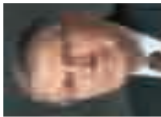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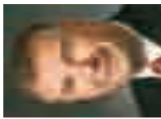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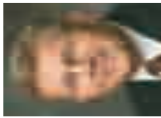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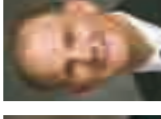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김승연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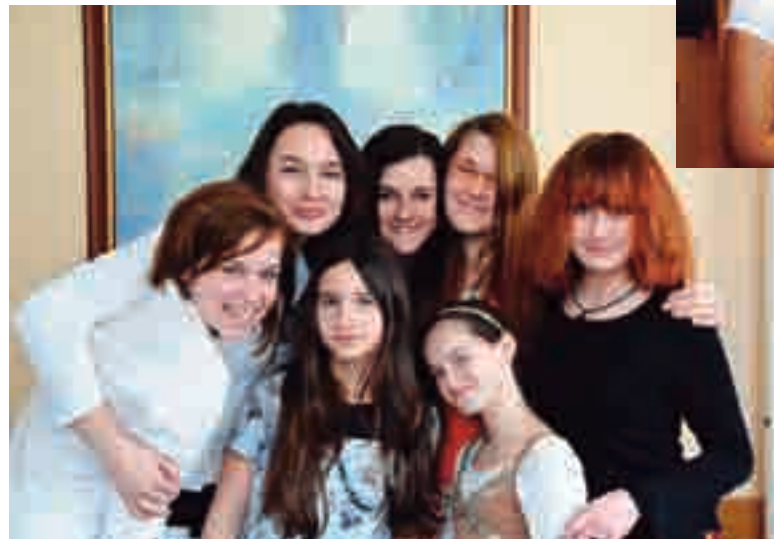
김승연



김인연



교회 회원들이 제180차 연차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이다. 상단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필리핀 나보타스,
프랑스 카르카손, 아르헨티나
포르모사, 브라질 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모인 교회 회원들의
모습이다.



손과 마음을 내밀면 우리에게도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고 더 깨끗해지며, 강해집니다.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범, 흠 없고 비이국적인 회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권세와 복음을 인간에게 회복하고자 지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되어야 할지를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리고 앞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 주고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생각하며, 그분의 손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6:24, 25, 28
2. 누가복음 18:9~14 참조.
3. 로마서 3:23.
4. 교리와 성약 18:10.
5. 모사이야서 18:9 참조.
6. 엘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19:16 참조.
7. 잠언 17:17.
8. Clarence Cook, "Abram and Zimri", in *Poems* by Clarence Cook(1902), 6~9쪽 참조
9. 마태복음 22:39 참조.
10. 마태복음 7:12 참조.
11. 고린도전서 13:1.
12. 교리와 성약 81:5.
13. 마태복음 22:40.
14. 유다서 1:12절 참조.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온 영광 그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믿으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날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든 기독교 계에서 지정한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셨기에, 지상에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적이고 온전히 합당했던 아들이 사망의 사슬을 산산이 부수던 그 성스러운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대단히 순종적이었던 그분 아들께서 이룩하신 영원무궁한 속죄가 없었다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어떠한 영원한 목적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존재가 맞이하는 끝은 죽음뿐이며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영체를 받은 예지에 육신을 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한 일에 어떤 영원한 목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난 그 날 아침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길 것입니다.

부활절은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구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되는 참으로 성스러운 기간입니다. 구주를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과 기쁨을 안겨 주는 시기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과 그분의 삶, 그분의 속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치유하는”(말라기 4:2, 3; 제3니파이 25:2) 힘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아, 우리아말로 그 치유하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구속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담긴 원리에 기초한 소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주님께서 치르신 속죄에서 오는 치유가 얼마나 폭넓고 깊이가 있는지를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충만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겪으시며 기꺼이 이루신 일들이 이 생뿐 아니라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과 회생, 속죄를 통해 부여된 은사를 기억하며, 경전에서 그 성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간증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원리들보다 분명히 차원이 더 높은 가르침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뒤덮으며 점점 멀리 번지는 가증함을 막는 강한 방벽이 되어 여러분 안에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심오한 진리를 밝혔습니다.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니파이후서 2:6~7) 경전에는 교만하고 자고한 이들에게 속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 능력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잘 표현한다고 해도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 놓으시고,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이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는지에 따라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빛이십니다. 모든 진리의 토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약속하신 일을 모두 이루십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속죄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도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죄가 있었기에 삶에서 범하는 실수의 결과를 극복할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이전에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전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 덕분에 우리는 불순종한 어떤 일도 회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의에 따라 부과될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속주의 속죄에 경외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커져 갑니다. 저는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의 온전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죄가 없었다면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통찰해낸다면 우리는 필멸의 생애 동안 얻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 모두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순종하신 아들께서 속죄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상상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주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세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책임감입니다. 주님은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자녀들 중 누구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기에,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회개할 방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 면전에

머물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영의 자녀들은 모두가 사탄에게 영원토록 압제와 학대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정신과 마음이 모두 지극히 순수하신 주님께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고, 심지어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죄의 결과까지도 몸소 느끼셔야 했습니다.

셋째, 사탄의 무리들이 주님을 육체적, 정서적으로 극한까지 몰아가며 사악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견뎌 내셔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힘을 모두 소진하여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오로지 혼자 힘과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하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상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늘 아버지에게서 받아 왔던 도움이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에 아들께서 그렇게 외치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구주가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철저히 완전하게 속죄를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아들이 속죄가 맺는 영원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멸의 상태로는 속죄를 통해 받는 층만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근본적인 기준이 자꾸 사라져 가고, 명예와 덕과 순결함이 쾌락 때문에 점점 밀려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믿으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하게 된,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고 영속적이며 무한한 결과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 학습 계획을 마련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 권고합니다. 연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경전을 상고한다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속죄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원리들을 가르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가장 훌륭한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가정을 강화하는 올바른 도구로 교회를 활용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근본적인 책임과 특권은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현세와 영원을 두고 가장 중요한 부름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름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른 모든 부름에서 해임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름에서는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 구절을 상고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고 사색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불안정한 시대에 굳건한 토대가 되는 진리를 성신의 권능을

통해 머리와 가슴에 얻을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대로 생활하도록 권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고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주를 가정의 중심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고요한 영이 가정에 넘쳐 흘러 자녀나 어른 모두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변화를 일으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불순종했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를 위해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 주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를 이겨내고 그릇된 선택을 회개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삶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해 낼 기회가 우리 앞에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지상에 마련해 놓은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이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권한을 받은 종으로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회장단

주님께 향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영성을 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전에 저는 한 가슴 아픈 사건이 끝내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은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만 중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아기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실감은 슬픔이 되었고, 슬픔은 분노가 되었으며, 분노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의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부모를 비롯해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의사의 평판과 경력에 흠을 내려고 궁리했습니다. 여러 주, 여러 달 동안 계속된 치열한 싸움 끝에 지쳐 버린 이 가족은 이제 원망을 주님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감정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4대에 걸친 그 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의 교회에 헌신했던 이 가족은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라는 자비로운 권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에 더하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한복음 14:27)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친 조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바로 제 아버지와 고모이십니다.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1946년에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서 직업을 찾고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조부모님은 고모님과 마찬가지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셨습니다. 고모님은 1946년에 결혼을 하였고 4년 후에 첫 출산을 하셨습니다. 딸이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부모는 참으로 특별한 기분을 느낍니다. 게다가 고모님은 조부모님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고모님이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슬프게도, 분만하는 도중에 고모와 쌍둥이 아기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부모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도 그분들은 즉시 주님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속죄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를 원망할지 고민하는 대신에 그분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은 절대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사회 지도층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받아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신실한 후기 성도이셨습니다.

1956년에 은퇴하신 조부모님은 유일하게 남은 자손과 함께 하기 위해 하와이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그분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두 분은 떨어져 지내는 것을 몹시 싫어하셔서 누구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다시 만날 방법을 찾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결혼 65주년이 지나고 90세 생일을 앞 둔 어느 날, 두 분은 자연적인 이유로 몇 시간 사이에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의 감독으로 봉사하던 제가 합동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저희 아트 할아버지와 루 할머니가 보여 주신 신앙심, 특별히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 주신 그 신앙은 4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아들(제 아버지)과 제 어머니에게 직접적이고 뿌리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막내딸이 출산 후 합병증을 얻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10일이 지난 아기와 여덟 살배기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네 자녀를 뒤로 하고 막내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서른여덟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에서 보았던 모범에 따라 부모님은 주저 없이 주님께 향하고 위안을 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는가 하면

크나큰 고통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도 그러한 기쁨과 고통을 맛봅니다. 두 가지 모두가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한 쪽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한 쪽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라는 구절과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니파이후서 2:11)라는 구절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엘마 이세는 주님께 향했을 때 이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앨마서 36:20)

어떤 사람들은 중대한 문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한때 캠벨교 지도자였던 시몬즈 라이더는 교회에 대해 듣고 조셉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함께하며 감동을 받은 그는 1831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즈 라이더는 곧이어 장로로 성임되고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부름장에 시몬즈 라이더라는 이름 중 철자 하나가 잘못 기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이더는 R-y-d-e-r이라고 쓰는데, y 대신에 i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시몬즈 라이더는 자신이 받은 부름과 부름의 출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 사업을 가지 않기로 했고, 교회에서 떨어져나갔으며, 곧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해 증오와 극도의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1832년 3월, 성난 폭도들이 집에 있던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밤중에 끌어내어 타르를 바르고 깃털을 뿌릴 때, 누군가가 “시몬즈, 시몬즈, 타르 통이 어디 있나?” 하고 외쳤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1:262~263)

열렬한 개종자였던 시몬즈 라이더는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 폭도들의 대장으로 변했는데, 그가 영적으로 추락한 발단은 자기 이름에서





철자 하나를 틀리게 쓴 일을 보고 느낀 불쾌한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관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향로를 바꿉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삶에 닥쳐오는 비극과 역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겪은 잔혹함 속에서도 이 성스러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그 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조셉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 네가 환난 가운데를 지나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 네 원수가 너를 덮칠지라도 …… 네가 구덩이어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고될지라도 ……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교리와 성약 122:1, 5~7) 뒤이어 이 심오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내가 그보다 크냐?”(8절) 그 다음으로 명확한 지시와 원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9절)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조셉 스미스는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의롭게 견뎌냈습니다. 조셉은 신앙에 따른 관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름 받아 지나가야 할 위험에 관하여는 …… 그러한 위험은 내게 사소한 일로 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느니라. …… 깊은 물은 내가 헤엄치기에 익숙해진 것이니라. …… [나눔]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나니, 이는 ……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며, 이후로도 또 나를 건지시리라.”(교리와 성약 127:2) 역경이 쉬지 않고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조셉의 자신감은 한결같이 주님께 향하는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그게 누구이든(가족, 친구, 교회 회원, 교회 지도자, 또는 사업 동료) 또는 그게 무엇이든(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건강 문제, 재정 파탄, 학대, 또는 중독에 관한 문제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개십시오.]”(교리와 성약 122:9)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 없이 주님께 향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나눠지실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짐을 가벼이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앨마서 31:38)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영성을 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분이 보이신 최고의 모범인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만물 아래로”(교리와 성약 88:6) 내려가셨으며 “만인의 고통”(니파이후서 9:21)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에는 죄를 극복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방대한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이 업적을 통해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성취하실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런(힘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모사이야서 7:33)

이 부활절 아침을 기념하며, 우리의 “광명한 새벽 별”(요한계시록 22:16)인 주님께 향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요한복음 14:6 참조)을 영원히 밝혀 주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체럴 시 렌트
본부 초등학교 회장(최근에 해임)

우리 자녀들이 구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의 부모와 지도자가 아이들을 구주께 데려가는 일은 신성한 책임입니다.

어려 해 전, 유아반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유아에게 복음 공과를 짚막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공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구주의 그림을 들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이며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그마한 아이는 엄마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아장아장 걸어와서 그림을 골똘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공과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누구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방그래 웃으며 “예수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렸지만, 그림 속 인물을 알아보았고 구주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여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01:38)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그 말은 그림 속 인물이 예수님임을 알아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권유는 그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르셨는지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바로 신앙과 행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일은 온 생애 동안 노력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생에서 주님을 구하고 다음 생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제3니파이에는 이생에서 구주의 얼굴을 실제로 보았던 백성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11)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의 부모와 지도자인 우리가 아이들을 구주께 데려가서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신성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온갖 방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3니파이에 나오는 부모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녀들을 모았으며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라는 명에 순종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자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를 위해 하셨던 일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기이했다”(제3니파이 17:1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께 나아가고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부모들은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부모들에게 명하신 또 다른 일이 제3니파이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

그렇게 구주와 함께한 후에 니파이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땅에는 200년 동안 의로움과 평화가 임했습니다.(제4니파이 1:1~22 참조)

저는 여러분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가장 바란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3니파이에 나오는 기사는 자녀를 구주께 데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녀에게 합당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복음을 알려 주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구주께 데려가는 이 방식을 따르는 일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 경험, 신앙과 비이기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슬피 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움을 주기 위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는 합당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먼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삶에 질서를 세워서 자녀가 우리를 보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볼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내 얼굴에서 구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녀 앞에서 완벽한 모범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 합당한 부모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합당해지려는 노력 자체가 바로 모범이 됩니다.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치며, 영을 느끼고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자녀들을 구주께 데려가는 과정 안에 있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경전을 사랑하고 선지자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 두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영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일도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도움과 인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전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진리에 대해 직접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기쁨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삶에서 신앙과 순종이라는 굳건한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니파이인들이 남긴 기사에 따르면 그 가족들에게 20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고와 인내와 신앙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니파이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기도로 축복하신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제3니파이 17:14~17, 21 참조) “[주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제3니파이 17:23~24)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귀한 자녀들을 맡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성스럽고 고결한 청지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과 불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명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Behold Your Little Ones,” *Tambuli*, 1994년 10월호, 40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현대에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원리대로 생활하는 기쁨이 가정에 넘칠 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구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우리는 구주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따를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렇게 될 것이니,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93:1)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데려와서 함께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 활절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전 세계 후기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겻새마네와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주께서 기꺼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신성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구주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이틀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성역은 참으로 중요하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영원한 운명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그 목요일과 금요일,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자 최후의 만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¹ 이 자리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식과 교리가 밝혀졌습니다. 그 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성찬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떼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²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³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중재 또는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혜사로서 “사도들에게 성신을 보내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⁴

그리고 나서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몸소 짊어지시고 “사탄[이] ……





위협하는 …… 공포”⁵에 직면하셨습니다. 부당한 재판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과정은 부활절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자신이 맡은 신성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과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면전에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들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될 뿐입니다.”⁷

우리는 언제나 겐세마네와 갈보리의 송고한 의미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부활하신 구주께 초점을 맞춥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종교인인 프레드릭 파리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 신도들이 구주를 “부활하신, 영원하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로 기념하였으며 “십자가 위가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⁸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라고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후기 성도에게는 신앙을 의미있게 표현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입니다.⁹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려해 보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이틀 동안 구주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본받도록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성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그분께 어떤 일이 임박할지를 아셨습니다. 필멸의 상태 이전에 전 세계에서 천국전쟁을 치를 때부터 시작된 사명, 성스러운 대속을 이루어야 하는 그분의 사명이 그날 저녁과 다음 날에 실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대자들이 여는 재판을 목전에 두고 무고한 혐의를 밝힐 어떠한 변론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대신 성스러운 성찬 의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엄숙한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가슴 깊이 감동이 전해집니다. 교회 모임 중에서도 성찬식은 가장 성스럽고 영적인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¹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 교회에 신실한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성찬식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구주를 따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¹¹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증거할 수 있습니다.¹²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사랑과 화합을 강조하시며,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속죄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기꺼이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합니다. 속죄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사랑이 많고 친절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구주께서는 극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필멸의 삶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신 가장 인상 깊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단순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지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화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직장하고 학교, 이웃과 어지러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서로를 두려워하고 노여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이해하면서, 존경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공손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주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³ 교회 회원 대부분은 이 권고를 유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여움을 표출하거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을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누구이고 진정 구주를 따르는지를 판단하는 참된 잣대라는 점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달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기분 나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적대감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도 사랑과 존경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성신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신화의 세 번째 일원인 성신의 역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신은 영으로 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며, 모든 것의 참됨을 알려 주시고, 회개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성령이라 불리며, 우리 각자가 하는 의로운 행동과 의식, 성약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¹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¹⁵

우리는 사실상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시끄럽고 논쟁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정보와 음악과 완전히 무의미한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려면 영감을 받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숙고하고, 기도하며,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성신께서 속삭여 주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성신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는 것은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¹⁶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구주께서 감내하신 대속의 고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¹⁷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도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조롱을 당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적이고 영적인 풍파에 휩쓸리며 이 쓴 잔이 지나가도록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에 불어 닳치는 모진 풍파를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경전에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닥칠 고난 중에 “곳곳에 …… 지진”과¹⁸ “그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¹⁹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칠레와 아이티, 태평양 군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무서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전에 감리 감독으로 봉사하시는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님과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과 함께 지난 10월, 사모아 동쪽 해안을 덮친 쓰나미에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예배당은 가득 찼고 감정이 북받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인크 회장인 소니 퍼셀 형제님은 운전하던 도중에 먼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퍼셀 형제님은 경적을 울려서 학교로 걸어가던 어린이들을 멈춰 세우고, 되도록 높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뛰어가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셀 형제님은 정신





없이 차를 몰아서 네 살 난 딸을 태우고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미처 어머니를 태우기 전에 태산 같은 파도가 피셀 형제님의 자동차를 들어올려 나무에 걸릴 때까지 90여미터 정도를 휩쓸고 갔습니다. 피셀 형제님은 급히 딸을 꺼안아 자동차 위로 피신시키고 집 근처에서 다른 나무를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해염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해염을 쳐서 자동차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것처럼 운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안전한 높은 곳으로 피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모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 세계 회원들이 보내는 사랑과 염려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아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을 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칠레와 아이티에 있는 회원들과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모아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 동안 참으로 분명한 점은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서는 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구원을 가져오는 의식을 받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주의 삶과 모범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끄는 낮은 길을 영적으로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가족이 성전에 가지 않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해 주는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와 현재 세상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저는 더 높은 곳, 피난처가 되고 영원한 보호를 주는 성전에 가도록 모두에게 권고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고 일주일 이 지난 후, 1836년 4월 3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십이사도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을 집행하여 성찬을 성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경건하고 조용한 기도가 끝난 후에 구주께서 영광 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족을 영원히 묶는 성스러운 인봉 권능을 포함하여 그 밖에 여러 신권 열쇠들을 회복했습니다.²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리며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아 어린이들처럼 주님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마련하신 높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살아 계신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를 따르는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저는 회복의 시대에 살았던 성실한 종인 엘리자 알 스노우가 작사한 노래 가사를 되뇌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²¹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판(1916), 593쪽.
2. 누가복음 22:19.
3. 요한복음 13:34~35 참조.
4.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02쪽, 또한 요한복음 14:16~17 참조.
5.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13쪽.
6. 니파이후서 9:6~24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9쪽, 또한 교리와 성약 20:22~25 참조.
8. Frederic W. Farrar, *The Life of Lives—Further Studies in the Life of Christ*, Toronto William Biggs(1900), 209쪽.
9. 고든 비 헝클리, “우리의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2~6쪽 참조.
10. 제3니파이 18:1~11 참조.
11. 모사이아서 3:19 참조.
12. 모사이아서 18:8~10; 교리와 성약 20:37, 77~79 참조.
13. 마태복음 5:44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15. 로마서 8:16~17; 에베소서 1:13~14; 교리와 성약 76:51~60 참조.
16. 교리와 성약 50:24 참조.
17. 마태복음 26:39.
18. 마태복음 24:7; 조셉 스미스-마태 1:29.
19. 교리와 성약 88:90.
20.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21. “How Great the Wisdom and the Love”, *영문 찬송가*, 195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

첫 부활절 아침에 텅 빈 채 남아 있던 무덤은 옴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정 말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말씀 순서와 음악 순서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 회장의 자격으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단어를 사용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쉐럴 렌트 자매님 그리고 보좌분들, 합창단, 음악 참여자분들, 연사들, 이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Thank you(감사합니다)”입니다.

오래 전에 영국 런던에 머물 때 유명한 테이트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게인즈버러와 렘브란트, 컨스터블과 그 외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이 여러 전시실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하며 걸작을 그려낸 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층 한쪽 구석에 걸려 있던 그림 한 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프랭크 브래머가 그린 그 그림에는 풍량이 이는 바닷가를 향해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어부의 어머니와 아내는 밤새도록 바다를 지켜보며 어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밤은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바다에서 실종되었으며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불안감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곁에서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묻은 젊은 아내는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양초는 다 타버린 채 창문 아래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밤새 계속된 헛된 기다림을 말해 줍니다.

젊은 아내가 느꼈을 상실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슬픔도 전해졌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붙인 제목은 이 슬픈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뇌리를 떠나지 않고 생생히 남아 있는 그 제목은 바로 *희망 없는 새벽*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진혼곡(Requiem)”에 묘사된 평안을 얼마나 바랐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이 현실이기를 바랐겠습니까.

*선원이 바다에서 바라던 집
사냥꾼이 언덕에서 바라던 집.¹*

필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그 끝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운명[입니다.] 사람에게 따라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죽음을 맞기도 하고, 인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며, 호호백발이 될 때까지 죽음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또는 사고나 질병 ……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릅니다.”² 그것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고통스럽게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시기에 [닥치는 죽음은 꿈 이루지 못한 꿈과 성취하지 못한 야망, 사라진 희망을 의미합니다.

필멸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는 죽음이라는 문턱에 혼자 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갈라놓는 휘장 너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세기 전에 옴은 오랫동안 물질적으로 온갖 축복을 받으며 살아 왔지만 나중에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통을 모조리 다 경험했습니다. 옴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³ 참으로 옴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봤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는 옴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끝에 얻은 답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서 얻은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든 설계도가 있다면 당연히 설계자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설계도가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설계자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위대한 설계자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장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과 물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

그분은 두 가지 빛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별도 나타났습니다. 물 속에 생물들이 있으라고 명하셨고 새들에게는 땅 위로 날아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소와 짐승,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획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여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⁴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능을 받아 뇌와 마음, 영혼을 얻었습니다. 인간만이 그러한 특성에 따라 신앙과 소망을 품고, 영감을 받으며, 야망을 키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설계자가 창조한 가장 고상한 작품입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며 지능과 의지력이 있고 마음과 영혼을 받았으며 예지와 고결함을 지닌 인간, 그런 인간의 영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떠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삶의 목적부터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희미한 빛은 필연적으로 대낮의 태양과 같은 계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 압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필멸의 삶을 살기 위해 지상으로 오는 기회에 기뻐 소리쳤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⁵ 우리는 육신을 얻고 시련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멸의 삶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며 완벽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여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고통을 겪고 사망을 겪으실 구주를 마련하셨습니다. 구주는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고, 속죄의 일환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죽음도 극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천여 년 전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거의 없습디만, 저는 누가 기록한 이 내용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⁶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구주에 대한 의미심장한 구절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⁷

구주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이사도를 부르셨고, 병든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눈 먼 이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간증하셨습니다. 구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구주께서 맡으신 필멸의 사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필멸의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이후에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이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에 그리스도는 지친 몸으로 거칠고 저속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고발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고통을 받아 심약해진 그분의 육신은 이 악의에 찬 폭력 앞에 더욱 더 약해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잔인한 관이 그분의 머리에 씌어지고,
가시가 이마를 찢으며 얼굴 위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분은 빌라도
앞에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⁹ 하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내리친 채찍은 뾰족한
쇠붙이와 뺨조각이 박히고 줄이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가죽 띠였습니다. 이 잔인한 채찍질이
끝나자 그분은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걸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짐을 졌습니다.

마침내, 구주는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자비하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비웃었지만
구주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⁰

숨이 점점 멎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구주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¹¹

은혜로운 죽음으로 필멸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구주는 평온과 위안을 얻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주께서는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은 신속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잠시 빌린 무덤에 놓였습니다.



흐느끼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었던 말만큼 커다란
의미로 제게 다가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 주
첫째 날에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¹²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깃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고통과 고뇌는 다
씻겨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확실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결과는
원래대로 돌려졌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텅 빈 채 남아 있던
무덤은 옴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께 선언합니다.
장정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된 진리에서 발하는 빛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¹³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퍼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남긴 간증을 읽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셨던
신세계 사람들이 전한 간증을 읽었으며,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성스러운 숲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며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의 간증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¹⁴

죽음이 드리우는 어둠은 언제나 계시된
진리에서 발하는 빛 앞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¹⁵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¹⁶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간증을 듣고 읽었습니다. 부활의
실재성을 간증하거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 준 간증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일곱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기 가족,
특히 열한 살에 병을 앓기 시작한 제이슨에
대해 쓴 가슴 뭉클한 편지를 받았습니. 몇
해에 걸쳐 제이슨은 여러 차례 병이
재발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이슨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열두 살에 아픈 신권을 받았고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언제나 자신이 맡은 책임을 기꺼이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제이슨은 열네 살에 보이스카우트에서 최고의 영예인 이글 스카우트(Eagle Scout)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 열다섯 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제이슨은 다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을 보러 병원에 간 아버지는 아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면서도 아버지는 조용히 제이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짧은 삶 동안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 상황도 좋지는 않구나. 앞으로 큰 전투가 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아빠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아버지는 제이슨이 갑자기 두 눈을 뜨고는 분명하면서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네, 결코 잃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다시 눈을 감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로 외쳤지만, 제이슨이 한 말은 지금껏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순수했습니다. …… 네, 결코 잃지 않을 거예요! 그 강한 외침은 제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하고 고결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제게 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 그것은 제이슨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90 리아호나

가족들은 제이슨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시 퇴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이슨은 채 2주가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이슨에게는 이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형과 누나가 있었고, 형 중 하나인 카일리도 그때 막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름장은 예상보다 빨리 와서 제이슨이 사망하기 한 주 전인 8월 5일에 도착했습니다. 카일리가 부름장을 열 때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게 보낸 편지에 제이슨의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제이슨과 그 옆에서 부름장을 들고 서 있는 형 카일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함께 부름 받다.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그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제이슨의 형과 누나는 제이슨의 장례식 때 함께 나누도록,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편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제이슨의 누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이슨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다는 확실한 지식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 우리가 현재에서 순종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제이슨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경전 구절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슬픈 시기에 우리는 첫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전했던 말에서 커다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¹⁷

주님 다시 부활했네
기쁨으로 외치세
삼일간의 영육 깨쳐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¹⁸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일요일에 그 일이 사실임을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

주

1. Robert Louis Stevenson, “Requiem,” in *An Anthology of Modern Verse*, ed. A. Methuen(1921), 208쪽.
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판, 20쪽
3. 욥기 14:14
4. 창세기 1:1~27 참조
5. 욥기 38:7 참조
6. 누가복음 2:52
7. 사도행전 10:38
8. 교리와 성약 19:18.
9. 누가복음 23:21
10. 누가복음 23:34
11. 누가복음 23:46
12. 누가복음 24: 5~6
13. 고린도전서 15:21~22
14. 교리와 성약 76:22~23
15. 요한복음 11:25
16. 요한복음 14:27
17. 마태복음 28:6
18.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일요일 오후 모임 | 2010년 4월 4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조상과 연결될 때 가족이라는 연대를 바라는 선천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부 활절기나 성탄절기에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보내 주는 친구나 친지들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우편물에 소중한 가족 사진까지 들어 있다면 추억거리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사진도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증손녀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루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루비의 엄마가 딱 요맘때였을 때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제 손녀딸 중 하나이자 “사랑하는 루비” 엄마의 사진인데, 제 사진첩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루비”의 엄마 사진은 29년 전쯤에 찍은 것입니다. 이 눈동자는 지금도 여전히 파랗게 빛납니다.

50년 전, “사랑하는 루비”의 할머니인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즐거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딸아이의 아기 적 사진입니다. 이 아기가 어느덧 자라서 푸근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루비”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아기 때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을 참입니다. 별로 재미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네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족이 창조주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알리며, 보호합니다. 가족 역사에 쏟아 붓는 방대한 노력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성스러운 조직을 어떻게 돕고, 소망을 불어넣는지를 보여 주는 두 가지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¹ 태초부터 그러셨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위한 영원한 승영을 얻으라고 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곧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 곧 승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²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³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속죄가 없었다면 불멸을 이룰 수 없고, 아버지



“사랑하는 루비”, 넬슨 장로의 증손녀



“사랑하는 루비”의 어머니, 넬슨 장로의 손녀



“사랑하는 루비”의 할머니, 넬슨 장로의 딸



성전 의식 카드

면전으로 돌아갈 수도, 무덤 너머에까지 가족이 지속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저마다 이렇게 가장 훌륭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축복을 누렸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 이들을 위한 침례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⁴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가족에 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과 이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 마련입니다.

청녀가 할머니를 도와 가족 역사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청남이 인구 조사 기록에서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 교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면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거대한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조상과 연결될 때 가족이라는 연대를 바라는 선천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교회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⁵ 가족 역사 연구도 전례 없이 활발히 전개되고, 성전 의식을 위해 이름을 찾고 준비하는 방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이 한 단계씩 더 발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세계 전역으로 성전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대리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 왔습니다. …… 그 해결책[은]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있습니다.”⁶

그 후로 중복 현상이 줄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교회 회원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단순해졌습니다. 전문가만이 이 성스러운 사업을 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가족 역사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가계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리 침례에 참여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컴퓨터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성인 회원들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자신의 친족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책임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는 일입니다.”⁷ 신기술 덕분에 더 수월하게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amilySearch”라는 시스템을 통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촉진되고 있습니다.⁸ 회원들은 이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상을 찾고, 그분들을 위해 어떤 의식을 수행해야 할지 판단하며,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들의 이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이든 가족 역사 센터든⁹,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매우 간편합니다.¹⁰

먼저, 성전 의식을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을 파악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족 의식 요청서를 출력하십시오. 이 요청서에는 성전에서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컴퓨터 디스크를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가족 의식 요청서를 사용하여 의식 카드를 출력합니다. 의식이 수행되고 나면 바로 그날 새로운 FamilySearch에 수행된 의식 내용이 기록되고 입력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단계씩 해 나가십시오. 집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빈 종이 상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¹¹ 그 상자 안에 여러분과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으십시오. 가족들에게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와드나 지부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자는 여러분 대신 새로운 FamilySearch 시스템에 접속하여 성전에 제출할 이름 준비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가족 역사 상담자는 6만여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와드나 지부에 있는 상담자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FamilySearch 시스템은 하나의 공통 가계도를 만들어 냈으로써 가족 역사 사업의 흐름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마다 자신의 가족 기록을 가지고 따로따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문에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일로팡고 스테이크의 성도들이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성전에 참석한 모습

있는 다른 가족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가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FamilySearch가 크게 진일보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기술들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FamilySearch에 접속하면 수십 년간 여러 출처를 통해 교회에 등록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중복 입력이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를 조상으로 둔 사람들에게는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중복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여러분보다 더 잘 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다 보면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헤아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영감 어린 지도력에 따라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연결되는 가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지만 보상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이 사업은 즐거운 사업입니다. 자신의 친족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개종자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일로팡고 스테이크 회원들입니다. 이 사진은 이들이 처음으로 과테말라시티 성전에 간 날에 찍은 것입니다. 모두 성전 카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직접 대리 침례를 받아드린 돌아가신 친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 가족 역사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권 지도자들의 인도와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은 이 성스러운 사업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고 증거합니다.¹² 부름을 주고 지침을 줍니다.¹³ 그들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와드의 영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개종자들의 영적인 뿌리를 강화하며 모든 회원의 삶을 축복하는 방편이라고 여깁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회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가족들이 승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의 임무를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¹⁴

그 기록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 개개인과 전체의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 조상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94 리아호나

그러한 의식을 통해 휘장 저편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¹⁵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사랑하는 루비”, 그리고 모든 증손자녀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과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굳게 매인 연결은 가족을 승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¹⁶ 우리 모두 저마다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전서 12:13; 갈라디아서 3:28; 니파이후서 26:33 참조.
2. 모세서 1:39 참조.
3. 요한복음 3:16.
4. 교리와 성약 124:33 참조.
5. 최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현재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의 83퍼센트가 성전에서 3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쪽 참조)
6. 고든 비 헝클리,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75쪽.
8. 현재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올해 말에 사용 가능합니다.
9. 전 세계에 4천 개 이상의 가족 역사 센터가 있습니다.
10.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new.familysearch.org로 가십시오. 처음 등록하려면, 회원 기록 번호와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와드나 지부 서기에게서 그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시스템에 있는 조상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성전 의식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조상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가계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식 요청서를 출력해서 성전으로 가져가 필요한 의식들이 수행되도록 하십시오.
11.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2~17쪽 참조.
12.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지명 받은 고등 평의원이 스테이크 내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감독합니다. 와드나 지부 차원에서는, 대제사 그룹 지도자나 장로 정원회 회장이 그 일을 합니다. 가족 역사 상담자와 신권 지도자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많은 자료들을 인쇄물로, 또는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13.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에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회원 지도서(물품 번호 36795 320)와 *Instructor's Guide*(교사 지도서)(물품 번호 35804) 및 부록 DVD 등이 있습니다. 이 지도서들은 웹 사이트 lds.org에서 내려 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배부센터 등을 통해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14. 교리와 성약 128:24.
15. 이사야 61:1; 누가복음 4:18; 교리와 성약 138:18, 31, 42 참조.
16.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의무

청소년들이 복음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깊이 이해하고 믿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맡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계신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 피할 수 없는 의무”(교리와 성약 123:11)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직접 숙고하며 알게 된, 그리고 간증에서 배운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가정에서 한결같고 부지런히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굳게 결의하고 근면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이 일상 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청소년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청년 용사들은 부모의 믿음과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앨마서 56:47~48)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까?

한번은 제 손자가 인기는 있지만 부적절한 어떤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며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그 영화를 보기에는 제가 나이가 충분히 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리둥절해 하던 손자는 연령에 따른 영화 관람 등급이 할아버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머니가 설명해 주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영화를 보기에 나이가 충분히 드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란 말씀이시죠?” 제 손자 말이 맞습니다.

모범으로 청소년들에게 길을 보여 주는 것 외에도 우리는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같은 방에 있거나 가족 활동과

교회 활동에 같이 참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남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신권 활동과 스카우트 모임과 야영 활동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정작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제나 성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스카우트 기능장을 따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신권 활동이나 스카우트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이 그들의 생활과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지도자와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에야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학교나 다양한 활동 모임에 차로 데려다 주거나 걸어서 데려다 줄 때 자녀의 소망과 꿈, 두려움과 기쁨에 대해 대화하십니까? 아이들이 이어폰을 MP3 플레이어와 다른 전자 기기에서 떼내게 하여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살아갈수록 청소년 시기에 가르침을 얻은 시간들, 특히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제 인생에 영향을 주고 제 인격을 다듬어 주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의 영향력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를 포함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감독님이나 다른 지도자들과 하는 접견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한결같고, 따뜻하고, 다정하며, 배려하는 교류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할 때 가족이 모두 함께 있습니까?
 청남 시절에 저는 저녁식사 시간이 지나서까지 야구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 식사는 그냥 오븐에 넣어 두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로버트, 나는 네가 잠시 중단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 좋겠구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나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야구를 해도 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족 식사가 단지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교류하면서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가장 큰 사랑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동료나 친한 친구에게 관심을 갖듯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며, 듣고, 또 듣고, 좀 더 나아가 심지어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어린

손자가 옆에 와 앉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는 동안 신문 너머로 제 손자의 귀여운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후, 손자가 신문과 제 사이로 들어와서는 제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기 코로 제 코를 누르면서 “할아버지, 거기 계신 거 맞아요?”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계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 계신가요? 거기에 있다는 말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교감한다는 것은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딸들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활동에 서명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세 딸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도록 도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온화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넷째 딸과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함께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생활과 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세 딸들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저는 무척 슬펐습니다.” 아마도 말이나 글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라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의 성인 회원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확인표시만 하면 되는 장황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남 청년이 성전 의식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영원한 결혼을 하고, 승영을 누릴 만큼 발전하기 위해 각 청남 청년이 세우는 개인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청남 청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서만 노력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및 청소년과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서로를 강화하고 복음의 길에서 영원히 남도록 신앙과 우정으로 결속되어 함께 성장하여 참으로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할 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주의 회복된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베냐민 왕의 가르침은 많은 성인들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모사이아서 5:2 참조) 하지만 그 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모사이아서 26:1, 3)

청소년들이 복음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깊이 이해하고 믿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맡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빛 가운데서 걷도록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빛은 밀려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빛을 혼자 힘으로 얻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만의 간증의 빛을 기도와 연구와 심사숙고를 통해 손수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청소년들이 직접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가정의 밤이나 가족 회의, 또는 복음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으로, 또 우리 가정으로 와서,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마음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류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원리와 축복을 직접 보여 주게 됩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이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의식과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영감 받은 프로그램과 강화 활동에 진심을 다하여 참여하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전신갑주를 입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면,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하며 청소년들이 행동하고, 참여하고,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가장 커다란 선교 사업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정원회, 공과반이 우리 선교 임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도자입니다.

우리가 할 가장 커다란 가족 역사 사업을

우리 가정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영원히 보존하고 영속하게 해 주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구조, 가장 큰 활동 축진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조자가 되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간증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거십시오. 쪽지를 남기십시오. 방문을 하십시오.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난처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겪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강하게 일어설 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할 것입니다. 최근에 몬슨 회장님은 몇몇 어머니들과 함께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마디 덧붙이자면, 오늘 이 시련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래에 …… 많은 일이 …… 달려 있음이나라. 그러므로 ……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성 123:15, 17)

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간증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전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가르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부모님들, 그리고 충실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과 함께 하여 그들이 사랑과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가족에 속할 때 오는 기쁨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주

1.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John Greenleaf Whittier*(1876), 206쪽 참조.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나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구주의 사랑을 대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이 책임을 짊어줘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어머니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네 자녀를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앙과 용기로 역경에 맞서셨으며, 우리가 진리의 길에 머문다면 마지막은 시작보다 더 좋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용기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처럼 “[우리네] 우리의 [어머니가] 이를 아셨다는 것을 ……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앨마서 56:48)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제 친구 돈 피어슨은 이 영향력을 실감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네 살짜리 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에릭은 제일 좋아하는 책인 ‘하기 돼지 패디의 열기구 여행’을 가져왔습니다. 그 책은 섬에 사는 한 가족이 열기구를 타고 여러 섬을 여행하는 내용을 글 하나 없이 그림으로만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피어슨 형제는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가던 패디는 어느 섬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패디는 기구 밖으로 선을

던졌지요.”

이때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건 선이 아니라 밧줄이에요.”

피어슨 형제는 잠시 에릭의 얼굴과 그림책을 번갈아 보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패디는 기구에서 내려와 나무를 기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런! 외투가 나뭇가지에 걸렸군요!”

에릭이 또다시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아빠, 그건 외투가 아니라 그냥 웃옷이에요.”

이쯤 되자 피어슨 형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릭, 이 책에는 그림밖에 없잖아. 왜 이게 꼭 웃옷이라는 거니?”

그러자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으니까요.”

결국 이 아버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릭, 네 생각에 이 집에서 대장은 누구인 것 같니?”

이번에는 에릭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요.”

피어슨 형제는 그제야 에릭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 아닙니까? “에릭! 그걸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에릭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해주셨어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아버지, 어머니, 결혼,”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3쪽)

양육은 신성한 계획에 따라 여성이 받는 영적 유산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으며, 이제는 손녀들에게서도 봅니다. 그 아이들은 걷기도 전에 작은 아기 인형을 꼭 안고 다니며 보살피고 싶어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고 목장에서 일하면서 모성 본능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관찰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암소와 송아지 떼를 아이다호 주 스네이크 강 기슭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산등성이에서 소들은 한 달 가량 풀을 뜯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소들을 모아서 길을 따라 내려가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고는 소들을 트럭에 싣고 몬태나 주에 있는 목초지에 가서 여름을 냅니다.

하루는 유난히도 무더운 봄날이었는데, 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따라 울타리 쪽으로 내려가는 소 떼 뒤에서 소몰이를 도왔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송아지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느긋하게 해도 되는 일이었기에 생각에 잠길 여유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송아지들은 그늘을 찾아 나무쪽으로 계속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멀어지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멀어져 교회를 떠났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교회에서 자기 마음이 떠났다고 느꼈을 사람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악하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요인이 단지 그늘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송아지들을 모으는 일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나자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렸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는 송아지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엄마를 따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엄마는 안단 말이야! 엄마는 전에도 이 길로 가 봤으니까!” 엄마 소들은 비록 그 길이 지금은 덥고 흙먼지가 심하게 일지만 마지막에는 출발지점보다 더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소들을 모두 울타리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는 세 마리가 유독 초조한 모습으로 문 앞을 서성이는 것을 눈치챈습니다. 그 소는 자기 송아지가 보이지 않자 아기 송아지가 길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다고 직감한 듯했습니다. 소 치는 사람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송아지들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500미터 정도 되돌아가면 작은 숲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 있을 겁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송아지들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한쪽으로 몰려고 하자 송아지들은 깜짝 놀라 저항했습니다. 송아지들이 놀란 이유는 우리가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일수록 송아지들은 더 강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울타리로 돌아가서 엄마 소들을 풀어 줍시다. 그럼 엄마 소가 송아지들을 데리러 올 거예요. 송아지는 엄마 소를 따라갈 거예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상대로 엄마 소들은 어디로 가야 새끼를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엄마 소들은 새끼를 이끌고 다시 울타리로 돌아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지를 받았으며,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동안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결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길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구조하라고 간청하셨습니다.(예를 들어,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킬지어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4~57쪽 참조) 부모는 신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길을 되돌아가서 잃어버린 자녀를 계속 찾아야 하며, 가족과



교회에는 언제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마음을 돌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 지쳐 힘들어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자녀가 가장 먼저 마음을 돌리는 곳은 대부분 어머니의 품입니다. 엘리자베스 에이커스 앨런이 쓴 시에는 이런 감정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흘러다오, 세월의 물살,
힘겨운 눈물에 지쳐 버린 세월 ……
저 허황되고 거짓된 세월아,
어머니, 아 어머니, 내 가슴은 당신을
부릅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살에 내 마음은 머물러 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100 리아호나

고통을 씻어 내는 당신처럼 포근한 세상은
없습니다.
병든 영혼의 슬픔, 지쳐 버린 몸에서 부디
고통을 씻어 주소서.
무거운 눈꺼풀 위에 깊은 잠의 부드러운
고요가 스며듭니다.
품에 안아 재우소서, 어머니, 나를 품에 안아
재우소서!

(“Rock Me to Sleep”, in *The Family Library of Poetry and Song*, ed. William Cullen Bryant [1870년], 190~191쪽; 구두점 수정)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나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구주의 사랑을 대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습니다.”(“The Love of Mother,” *Improvement Era*, 1910년 1월, 278쪽)

모든 일에 모범이 되셨듯이 구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보이신 일에서도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겹세마네에서 겪은 고통과 거짓된 재판, 가시관, 잔혹하게 못 박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등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십자가 위에서 필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삶의 중심인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이신 사랑은 바로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7) 하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요한복음 19:27~28, 30 참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마음속에 임하는 성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의심 없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항상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간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덥고 흠뻑이 일지라도, 유혹이 제 마음을 뒤덮을지라도 진리의 길에 머문다면 마지막은 시작보다 더 좋으리라는 확신을 제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께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생에서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 성장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매년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야구를 할 준비를 하고, 여느 소년들처럼 저도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날을 꿈꾸곤 했습니다. 비슷한 꿈이 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미래에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소년은 밖에 나가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야구공을 다른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잡고 나가서는 야구공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 공을 최대한 멀리 쳐내기를 바라면서 야구방망이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공은 방망이 끝에 닿지도 못한 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내리라는 마음으로 소년은 또 한 번 시도했습니다. 공을 띄우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굉장한 안타를 꿈꾸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불행히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은 그냥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알듯이 아웃 되기 전까지 기회는 세 번이 있습니다. 소년은 또 다시 공을 공중에 띄우며, 이번에는 더욱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공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수의 공이 너무 좋았어!”

단순한 이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모두 시련과 시험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때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얻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¹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런 일이 닥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기 불과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흥미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²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필요한 속성과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우리가 경험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만 깨닫는다면 각 시련은 우리가 조금 더 구주와 같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 성장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켜볼 때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깨닫기가 더 쉽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는 동안에 그런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경험을 헤쳐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이 바로 눈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께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는 구주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 닮고자 하는 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저는 구주께서 지상 생활을 마감하시는 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서 얻은 다섯 가지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분은 신성한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셨습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³ 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여 앞으로 겪을 잠재적인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께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의사에게 데려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거의 모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지금 겪는 작은 아픔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아이를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시련에 부딪힐 때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구주께서 겪으실 속죄 희생을 시현으로 본 후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시련을 극복하려 노력해야 하며,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의문을 품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하지?”와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내와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봉사할 때, 막내 아들도 안락한 고등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에게로 왔습니다. 제 아들은 불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생소한 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생긴 힘든 시련은 제 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들이 태도를 바꾸고 성공을 향한 결심을 굳게 다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만인의 구주께서도 겹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⁵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커다란 신앙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시련을 없애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경험을 겪으며 더 강해지도록 도우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마를 따른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며, …… 참으로 [여러분의]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⁶ 시련 속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구주의 모범을 따라 더욱

간절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충실해집시다.

넷째, 시련에 처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봉사하는 면에서 완벽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타인을 돕고 봉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입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⁷ 우리는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는 구주께서 보이신 봉사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잊게 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루만지려 노력하면서 스스로 강화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⁸

다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상황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⁹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붙어 닳치는 시련을 헤쳐 지날 때 영원한 관점을 견지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¹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고 열어 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엄숙하고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구주께서는 고통 받으셨고, 목숨을 버리셨으며,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에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갖기”¹¹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11.
2. 로마서 8:28.
3. 누가복음 22:42.
4. 니파이전서 19:9.
5. 누가복음 22:44.
6. 모사이야서 24:14.
7. 교리와 성약 19:16.
8. 토마스 에스 폰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9. 누가복음 23:34.
10. 로마서 8:28.
11. 니파이후서 2:25.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철십인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판단력은 사람들을 이해할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 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처합니다. 반면 구주께서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¹라는, 즉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속임수와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 계명에 순종하며 동시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즉 친구를 선택하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훌륭한 판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속단하며, 그에 따라 그들과 맞는 관계가 바뀌거나 달라집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리는 일은 보통 우리가 상황을 다 알지 못하거나 당장 눈 앞에 비춰지는 모습 너머에 있는 다른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많이 인용되는 예로,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자매는 오빠인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고, 주님께서는 이 의로운 가정을 즐겨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바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²

여러 주일학교 공과에서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마르다가 신앙적인 면에서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해력과 간증을 제대로 보여 주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도착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댈은” 이는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이라는 위대한 교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는 강한 간증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³

마르다가 영적인 가르침보다 부업일을 더 염려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그러나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시련

속에서 보여 준 간증은 마르다의 이해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마리아에 속하는 사람인지 마르다에 속하는 사람인지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진리는 올바른 판단력으로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데에서 나옵니다. 마르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녀가 영성이 깊고, 생명을 지배하는 구주의 신성한 권능과 그분이 짊어진 사명에 대해 훌륭한 간증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는 이 훌륭한 여인의 진정한 성품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성급한 판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복장과 위생 상태로 보아 그들이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이 길고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세탁한 지 오래되어 보였고 두 사람 얼굴에는 고생스런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진찰을 한 후에 저는 환자의 남편과 앉아서 문제를 설명하고 치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보기 드문 깊은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정다감한 남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애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소중한 아내가 괜찮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삭이는 영을 느꼈고, 그의 눈을 통해 구주가 실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진실로 타인을 사랑했고, 저는 그를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판단으로 행로에서 약간만 벗어났더라도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길에서 한참 먼 곳까지 가버릴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는 일, 복음의 모든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 수입이 극도로 제한적일 때에도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 힘든 시기에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 등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희생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때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 온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줄 네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랫동안 훌륭하게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일부 사상 때문에 인류는 그들 나름대로 표준을 정의하고자 시도하며 방황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도덕성”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속임수입니다! 도덕 표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 표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표준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명백하게 일치하며 성인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성인인 우리가 이 책자를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둘째,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수년에 걸쳐 선지자들이 권고한 대로 위험한 투기를 피하고 부채를 지지 않도록 신중히 예산관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오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란물 중독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매체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했다면 얼마나 많은 결혼이 지켜졌겠습니까? 각 연차 대회와 교회 잡지에는 선지자들의 권고가 담겨 있으며, 그 권고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침례 받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지만 종종 이 은사를 방치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성신께서 도움을 주시리라는 점을 잊고 지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며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평온한 환경은 외부적인 것일 뿐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의 음악이나 대중매체가 일으키는 소란을 멀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혼 내면에서 죄가 만드는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과 소통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⁴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평안은 인생에서 불완전한 판단을 내리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할 때 약속된 많은 축복이

옵니다. 물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동시에,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니파이전서 2장에서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⁵

물론 계명의 주요 선지자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천 년에 달하는 역사 기록이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적용됩니다. 올바른 판단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경계 안에서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지침을 따른다면 올바른 판단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7:1, 또한 영문판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각주 a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 참조, 이 각주에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하심.
2. 누가복음 10:40~42.
3. 요한복음 11:20~27.
4. 요한복음 14:27.
5. 니파이전서 2:20.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칠십인

의에 관한 것들

부모와 지도자인 우리는 회원들과 가족을 돌보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하고 나면 지진이 일어나 증거하고 뒤이어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 증거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91; 88~90 참조)

카리브해 지역 회장단인 저는 충실한 성도들이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이티에서 배운 교훈은 물론경에 나오는 실례와 유사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현장을 보며 엘마서 28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그 온 땅 도처에 …… 큰 애통과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 때였으니”(엘마서 28:4)

교회 회원 4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과 친구들은 “그들의 친족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진실로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대로, 일으킴을 받아,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 중에, 또 이를 알기까지 하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엘마서 28:12)

교회는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즉각 지원을 보냈으며 이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지원 물자가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의약품과 음식, 물을 비롯한 기타 생필품뿐만 아니라 조언과 인도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해[는]”(모사이아서 18:9) 전 세계 교회 회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선지자들은 또 다른 비극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참담한 죽음이 임하니, 이는 그들이 의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죽음이라. 이는 그들이 부정하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라.”(엘마서



40:26)

니파이는 형제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간악함 가운데서 죽을진대, 의에 관한 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버림을 받아야만 하나이다.”(니파이전서 15:33)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찌꺼 불에 던져지며,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힐라맨서 14:18)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비극은 “한때 하나님의 영의 비춤을 받아,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큰 지식을 얻고, 그리고 나서 떨어져 나가 죄와 범법에 빠진 후에는, …… 더욱 완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 [그] 상태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엘마서 24:30)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지도자인 우리는 회원들과 가족을 돌보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거듭나서] ……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모사이아서 27:25) 도와야 합니다.

의와 관련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속죄 권능과 진리로의 개종, 의로운 원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개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의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은 주님의 계명, 복음 원리와 교리, 주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의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개종을 할 수 있도록 “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주는 성구가 많습니다. 레이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암몬과 형제들에 관한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백성에게 진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으니 의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앨마서 21:23)

이어서 앨마서 23장에 따르면, 의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경우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땀겨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 주께로 돌이킨 [후] ……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앨마서 23:6)

교회를 세운 앨마 일세는 합당한 사람들을 제사와 교사로 성별했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모사이야서 23:18)

부모는 자녀들이 의에 관한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경에서 앨마는 백성들이 일으키는 죄악과 전쟁과 다툼으로 슬퍼했으며,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앨마 일세는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따로 그의 지시를 주고자, 그들로 함께 모이게 하였습니다.”(앨마서 35:16)

앨마가 아들들을 가르칠 때, 각자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지시를 주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앨마는 간증을 하고 교리와 원리를 가르쳤으며 아들들이 그러한 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력이 가정을 공격하는, 앨마가 겪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여기에는 보살피고 지원하며 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의의 가슴판을 붙이고 ……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 발에 신을 신는”[교리와 성약 27:16] 것이 포함됩니다.

앨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을 보살피고 의에 관한 것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개종을 하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 12월 10일에 개정된 “지도자 훈련 강조 사항”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조직 지도자들에게 “가족 구성원 모두, 즉 부모와 자녀가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격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제일회장단 서한, 2009년 12월 15일).

경전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59:23)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에 관한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는 사람은 원리를 스스로 알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이럼 스미스에게 동생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 의로운 것에 속한 것으로 네가 받을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3~14)

결론적으로, 경전은 의로운 것에 대해 사망할 때 임하는 위협과 하나님의 영의 비침을 받은 후에 죄와 범법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닥칠 무서운 결과를 경고합니다.

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고 개종하여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는 의에 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기록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그들이 보살피는 회원들에게 부지런히 의에 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시를 받아, 사람들이 영으로 교화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면 이를 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을 행사할 때 영이 의에 관한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서 앞으로 부딪칠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연 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마지막 연사로 말씀을 하는 사람은 모든 대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른 연사들이 자신이 준비한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사들은 말씀 주제를 받지도, 주제를 미리 나누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훌륭합니다. 주님은 각 연사들의 간절한 수고를 취하시어 계시와 권능으로 가득한 영적인 교향곡을 지휘하십니다. 어떤 주제는 반복되기도 하고, 한 원리가 다른 원리를 강화하기도 하며, 예언적인 경고와 희망찬 약속도 주어집니다. 그 신성한 조화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듣고 느끼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자라나는 세대를 “어느 시대보다도 우수”¹한 세대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시대에 이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한에 가까운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²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고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시대에 지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³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방종의

시대입니다.”⁴ 사방에는 우리의 주의를 흐뜨릴 목적으로 계획된 일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⁵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책임과 위대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이 지상에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그들 영혼에 영적인 중심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이 세대는 전세에서 행사한 신앙으로 이미 영적인 중심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초등학교 노래에 나오는 어린이의 간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묻고 싶은⁶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와 청년 청년은 스스로 진리로 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청소년 지도자,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하는 빛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부동[한]”⁷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신앙이 사그라지는 자녀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킬 강한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기고 간증의 기초가 굳건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구주의 생애에 대해 생각합니까?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천국 회의를⁹ 머릿속으로 그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인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¹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봉사하겠다고 선택했던 것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구주께서 미천하게 출생하시어¹¹ 구유에 누이신¹²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환경을 생각하며 물질적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욱 잘 이해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¹³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압니까? 무릎을 꿇고

걱정거리에 대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¹⁴ 간구하셨던 일을¹⁵ 마음속에 떠올립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셨다는 이야기를¹⁶ 들려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그들을 영접할]”¹⁷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의 법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야기에서¹⁸ 힘을 얻습니까?

외로운 상황에 처한 우리 자녀들이 구주께서 느끼셨던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버림 받고,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¹⁹ 하고 물으셨던 구주의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구주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권능을 느껴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치시고,²⁰ 소경을 눈 뜨게 하셨습니다.²¹ 오천 명을 먹이고,²²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²³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²⁴ 우리 자녀들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는다”²⁵는 사실을 믿고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까?

구주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²⁶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 자녀들은 용기를 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구주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²⁷ 타인을 위해 성역을 베푸시며, 배반 당하고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하신 일²⁸ 압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구주께서 부활하셨으며,²⁹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고,³⁰ 성스러운 숲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³¹ 분명히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그 날을³² 고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들려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³³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중요한 책임과 위대하고 영적인 능력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펼치십시오.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 본 후에 부모님과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그 내용을 토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는 없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는 위대하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 ……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³⁴

아버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늘의 권능을 느끼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스텔라 옥스 자매님은 남편을 잃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을 포함³⁵) 어린 세 자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자매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제가 맡은 사명을 다하도록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감싸 안는 사랑을 느꼈으며 …… 우리에게 다칠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³⁶

아버지 여러분께 특히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구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신앙으로 전한 말을 아버지가 신앙으로 확고히 다져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신앙 없이 듣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간증은 자녀의 정신과 영혼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선택했던 엘마를 기억하십니까? 엘마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친께서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러 오실 것에 관하여 ……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공훈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³⁷

자녀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진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의 말은 마치 하늘에서 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자녀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버스에서, 식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경전을 공부할 때, 또는 늦은 밤에 대화를 나눌 때 구주에 관하여 경건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주님의 영이 함께할 것입니다.³⁸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자녀들은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고 성신의 권능으로 오는 그분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서 앞으로 부딪칠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³⁹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닐 때 빌 포레스트와 데이 허칭스라는 두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은 귀환 선교사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데이와 빌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가정을 꾸렸고 5남 2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과 데비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빌과 데비의 자녀 중에] 현재 멕시코 오악사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다니엘 포레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등교하기 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탁에 둘러 앉아 경전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된





카라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활동을 위해 이른 시간에 아버지가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인용문과 성구, 시 외우는 걸 좋아하셔서 [함께 등교할 때면] 그런 것들을 암송하곤 하셨습니다.” 빌이 좋아하던 성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 내보낼 때 …… 그것이 너희를 이겨 ……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⁴⁰

정확히 10년 전인 2000년, 부활절 일요일을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빌 포레스트는 애리조나에서 에스테이트 그로브스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직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자갈을 실은 큰 트럭이 돌진하여 빌의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데비와 자녀들은 빌이 출근한 직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불멸의 영혼은 이 날 갑자기,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 아들의 곁으로 갔습니다. 빌의 가족은 원래 부활절 일요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할 예정이었습니다.

(막내가 겨우 다섯 살 밖에 안된) 일곱 자녀들과 데비는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열다섯 살이던 카라는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에 관해] 가르쳐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그분들은 저와 함께 경전을 펼쳐 읽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구주께서 지니신] 자애와 사랑, 인내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죠. ……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은 구주의 생애와 사명, 부활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지상에서 사신 삶을 떠올리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어요.”

다니엘 포레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 저는 열 살이었습니다.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 어머니는 구주의 가르침을 늘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명찰을 갖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알려 주신 인용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든 할 수 있다’이며, 다른 하나는 ‘구주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기초가 없으면 흔들릴 것이요’입니다.”

포레스트의 자녀들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째가 되는 이 부활절 주말에도 이들은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하겠지만 죽음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키운 바”⁴¹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사 덕분에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들려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⁴²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생애, 속죄, 부활, 재림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될 것입니다.⁴³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9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3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9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2쪽.
6.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36쪽.
7. 열사서 1:25.
8. 요한복음 14:6.
9. 아브라함서 3:2~28 참조.
10. 아브라함서 3:27.
11. 누가복음 2장 참조.
12. 누가복음 2:7 참조.
13. 제3니파이 27:29.
14. 누가복음 10:21 참조.
15. 누가복음 11:2~4 참조.
16. 제3니파이 17:11~24 참조.
17. 몰몬서 6:17.
18. 누가복음 4:1~13 참조.
19. 요한복음 6:67. 작년에 몬슨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수호하라는 요구를 ……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 내기가 어려울

- 것입니다.”(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20. 마가복음 1:40~42 참조.
 21. 누가복음 18:35~43 참조.
 22. 마가복음 6:34~44 참조.
 23. 마가복음 4:35~41 참조.
 24. 요한복음 11:8~53 참조.
 25. 모로나이서 7:37.
 26. 마가복음 5:36.
 27. 베드로전서 2:21~25 참조.
 28. 누가복음 22:47~48; 23:32~46 참조.
 29. 요한복음 20:11~23 참조.
 30. 제3니파이 11~26장 참조.
 31.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32. 교리와 성약 88:104 참조.
 33.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34. 모사이야서 3:17.
 35.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 시절, 저는 저녁이면 늘 독서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즐겨 읽던 책 중 하나는 허버트의 성경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168가지 성경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Bible Stories and Personal Protection”, *Ensign*, 1992년 11월호, 37쪽)
 36. Stella Oaks, “Thy Will Be Done”, Leon R. Hartshorn, 편집., *Remarkable Stories from the Lives of Latter-day Saint Women*, 2권.(1973~1975년), 2:184.
 37. 앨마서 36:17~18.
 38.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이노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도록 영향을 준 그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이노스서 1:3~4)
 39. 몬슨 회장님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복음과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40. 힐라맨서 5:12.
 41. 모사이야서 16:8.
 42. 교리와 성약 21:5.
 43. 앨마서 26:12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주님이라는 등대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빛을 발산합니다.

정 말로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그렇게 짧은 단어들로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었던 적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그분의 손길이 모든 것에 함께하심을 말씀드립니다.

짧은 경전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회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¹

제 삶을 돌아봐도 이 진리는 참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고양시켜 주고 영감을 준 이 대회 끝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연사들이 전하는 권고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가 더 굳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준 연사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한 기도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음악은 놀라웠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경전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²

이 대회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엔사인과 리아호나 5월호에 실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숙고하며 삶에 적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번 연차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과 자매님들께 감사를 표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들은 훌륭하게 봉사하셨고 주님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온 힘을 다해 헌신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대회 기간에 새로운 직분에 부름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을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주님의 대업에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 점을 그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심각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하게 정박해 있던 평화의 항구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유방임주의와 부도덕, 외설물, 부정직과 다른 여러 악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죄라는 대양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날카롭게 솟아난 암초에 부딪혀 기회를 잃고 축복을 잃으며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권고는 바로 주님이라는 등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더라도, 밤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강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치더라도, 선원이 길을 잃더라도 그 등대가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대이신 주님은 인생이라는 폭풍우 사이를 뚫고 빛을 비춥니다. 등대이신 주님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빛을 발산합니다.

저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¹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분은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덕분에 삶에 찾아오는 여러 선한 것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참되며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이제 이 대회의 이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합니다. 여러분에게 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잘 해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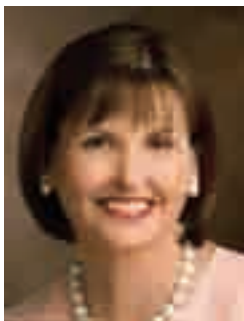
모임을 마치면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회 말씀과 여러분이 받으신 감흥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즉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모든 일상사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잠언 3:5~6.
2. 교리와 성약 25:12.
3. 시편 18:2~3.

청녀 총회 | 2010년 3월 27일



앤 엠 딘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담대하라

여호수아에 나오는 지침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입니다.

보 통 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들이 신권 형제님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면 강인한 신권 지도자들로 조직된 '군대' 앞에 선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은 딸들로 구성된 '군대' 앞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으로 무장하여 이 후기에 용감한 신권 소유자들과 나란히 서서 전진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의 주제 성구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저는 먼저 이 성구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애굽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겪고 나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안식처에 다다랐을 무렵,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완수할 선지자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을 보면, 여호수아는 "열렬한 전사 중에서도 가장 열렬한 자"이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다"라고 합니다. (Bible Dictionary, "Joshua.")

여호수아의 영감 어린 지도력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실현되려면 여전히 많은 강을 건너고 여러 전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주님께서 선지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 또는 "용기"라는 단어는 "위험이나 두려움, 어려움 등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힘"을 뜻합니다.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courage")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은 용기를 내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은 아주 오래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의 여정을 끝마쳐,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지침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주님의 이 약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 한명 한명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분의 소중한 딸로서 여러분 각자는 기도의 힘을 통해 그분에게서 지지와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이사야 40:31)할 때 종종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또는 우리가 응답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 왕이 한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로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편 40:1)

여호수아에 나오는 첫 번째 지침을 통해 우리는 각자 걷는 여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여호수아 1:5)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두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명을 엄격히 지키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결과를 확신했습니다. ……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경험이 기록[되고 보존된] 이유는 분명 우리가 엄격한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Commitment to God,” *Ensign*, 1982년 11월호, 57, 58쪽)

저는 한 달 전에 한 무리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끝말반에 새로 들어온 청년가 어떤 상황에서든 충실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복도를 걸을 때면 한쪽 옆에서 뭔가 주의를 끄는 게 보일지 몰라. 옹기 얇은 장면 말이야. 그러면 호기심이 생겨서 보고 싶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분명 보면 후회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여호수아 1:7)라고 권고하신 말씀이 이

후기에도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계명을 엄격히 지켜 사방에서 손짓하는 유혹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영원한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이 두 번째 지침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보호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여호수아 1:7)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 지침은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율법책”을 언급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우리 모두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특히 몰몬경을 읽으면 탄탄한 기초가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성신이 임할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간증이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 2000년, 66쪽)



칠레 산티아고

경전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방침과 약속, 해결책, 조언 등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매일 경전을 읽고 상고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말을 마치려 할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것이 네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저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그들처럼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영의 확인을 받는 가운데 우리 각자는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따르며 용기를 내어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때 더욱더 커집니다.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따를 때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같은 다음 약속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된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0쪽) “진실되고 충실하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의 형제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9쪽)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드립니다.”(*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9~110쪽)

다음 주 연차 대회에서 우리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시는 가르침과 약속에 귀 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지침대로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여호수아 1:16)라고 다시 한 번 단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매일 경전 공부하기,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기와 같은 이 네 가지 지침은 지금 현재 그저 작고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마서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엘마서 37:6).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작고 단순한” 지침을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매일 힘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교회 뉴스(*Church*

News)에서 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정치 사안을 지지하는 학생들에게 교실 한 쪽에 서라고 하고 그 사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쪽에 서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각자 편을 나누어 선 후 교사는 반대하는 쪽에 섰다. 지지하는 쪽에 서 있는 한 여학생을 지목한 교사는 그 학생을 비롯하여 그 학생과 견해가 같은 학생들을 공격했다.

와드에서 장미반에 속한 이 여학생은 자신의 믿음을 비판하는 그 공격을 견뎌 냈다.

[여학생의] 권력자가 퍼붓는 공공연한 공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What youth need,” *Church News*, 2010년 3월 6일, 16면)

이 여학생은 그날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자신만의 전쟁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여호수아에 나오는 지침을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께 돌아오는 여정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경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지자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모범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안전하게 인도하고자 노력하시는 몬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녀들처럼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분은 여러분이 용감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헌신적으로 생활하여 성전을 통해 축복받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당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작년 8월에 우리는 손자손녀 몇 명을 데리고 유타 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 손꼽히는 국립 천연 기념물인 팀파노고스 동굴에 갔습니다. 동굴에 가려면 도로로 2.4킬로미터나 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굴에 도착하면 나선형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동굴 구조를 볼 수 있기에 그런 수고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야콥 살 난 루시에게는 조금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여섯 살 난 캐롤라인이 여정을 감당할 힘과 체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도로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는 모두 너무나 신이 나서 포장된 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분의 일 지점까지는 재빨리 갔지만 중간 지점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캐롤라인은 조금씩 풀이 죽었습니다. 아직은 썩성한 루시가 캐롤라인에게 힘을 내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캐롤라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걸음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먼지가 일어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방울뱀 서식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십시오!”라는 팻말까지 보였습니다.

느릿느릿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사분의 삼 지점에 이르렀지만 산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친 데다가 겁까지 먹은 캐롤라인은 올라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주저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포기할래요. 더 못 가겠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걸음 수를 세어서 100걸음을 걸은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루시와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캐롤라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며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고, 각자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노래도 몇 곡 불렀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캐롤라인은 계획을 따르기로 했고, 100걸음을 가보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우리가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았고, 주변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며 노래를 부르자 우리의 마음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여 캐롤라인처럼 두려워하고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이따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차례나 하시며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셨습니다.(여호수아 1:6~9 참조)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리라는 신앙으로 “당신이 ……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여호수아 1:16)라고 결심했습니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큰 용기로 실행했던 남성과 여성들의 기사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분은 여러분이 용감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헌신적으로 생활하여 성전을 통해 축복받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당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도덕적 선택의지는 이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의식인 침례를 받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계속 선택을 하고 배우며 발전합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은 이 계획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영생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도전은 점점 많아지고, [삶의] 늘 결정해야 할 일과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위험 표지판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어느 청녀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이 했던 권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Never Give In” [speech, Harrow School, London, England, 1941년 10월 29일 참조])

118 리아호나

그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따르고 용감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데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조금씩 간증을 발전시켜 강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둘째, 구원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신이 함께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강한 간증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며 청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여러분의 간증은 “경험을 통해 점차” 강해지며 “아무도 완전한 간증을 한번에 얻지는 못합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년), 11쪽) 여러분은 산에서 가장 가파른 곳을 오를 때 한번에 한 걸음씩 옮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간증은 조금씩 키워 나가야 합니다. “[간증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강화시킬 때 간증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개인적인 습관을 형성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영감에



찬 [순간들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신앙에 충실함》, 11쪽 참조)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간증을 조금씩 키워 나가는 훌륭한 방법을 알려 줍니다. 가치관 경험과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작은 단계들입니다. 이와 같이 간증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힘을 북돋아 주고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항상 기도하라”(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90:24 참조)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의 계획을 따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구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실수를 저질렀거나 다른 길로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으로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년 71쪽) “회개가 빠를수록, 용서에서 오는 축복들을 그만큼 빨리 찾게 될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01년] 30쪽)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영적인 힘을 가져오는 정결한 활동으로 삶을 채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커지고, 계명을 지키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71쪽)

또한 후기의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지상에 존재합니다.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위험을 경고하고 길 위에 안전하게 머무르도록 표지판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표지판은 *청소녀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어린이 노래책*, “예언자 따라”, 58~59쪽)

구원의 계획이 선사하는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가족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신 부모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간증이 강한 의로운 여성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구원의 계획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양육자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딸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자 조언자이며 모범입니다. 딸과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제언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딸과 여러분의 관계가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정결 가치관을

수행하면서 배운 점입니다.

청녀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의로운 결정을 지지해 줄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캐롤라인을 격려해 준 루시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강화해 주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녀 표창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큰 언니”가 될 차례입니다. 영광의 꿀벌을 획득하고 나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는 다른 청녀에게 조언자 역할을 해 줄 때, 여러분은 의로운 모범과 간증으로 그 청녀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캐롤라인을 돕고 주변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초등학교 노래까지 부른 것은 모두 영을 불러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갈라디아서 5:22 참조) 사탄이 의심의 바람을 일으켜 혼란스럽게 할 때, 다른 길로 들어서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불친절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할 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평안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랐기 때문에 도전에 맞설 수 있었던 줄리라는 청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줄리는 구약전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을 읽어. 마태복음 5장을 읽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리는 ‘왜 신약전서를 읽으라는 생각이 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줄리는 그 속삭임에 따라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다음 날, 줄리는 불친절하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 일에 준비되었던 거야. 영이 나에게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속삭여 주었잖아.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 경전을 읽은 그 작은 실천으로 줄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줄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아시며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저는 줄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한 청녀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씩 간증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을 지지해 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신이 함께하여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정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전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강하고 담대”(여호수아 1:9)하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빛나고, 정결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있는 용감한 청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¹ 여러분 앞에 서니 겸손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고 왜 오늘날 이 지상에 왔는지를 제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정수함, 옳은 일을 선택하려는 소망,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남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영적인 여러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야영장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또한 예배당과 노변의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길로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바운티풀에 이르기까지 산에 올라 금빛 기치를 휘날리며 성전에 들어가기에 늘 합당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굳은 결의를 내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물문경을 읽고 매일 웃음을 띠며 어머니, 할머니, 지도자들과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지상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훌륭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정결, 즉 순결과 도덕적 순수함으로 회귀하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서로가 “거룩한 곳에 세고,”² 성신을 받고 인식하며 성신에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떤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³ 그리고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⁴ 한다는 것을 알며, 이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고는 오늘날 “고귀한 장자 명분을 지닌 청소년”⁵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⁶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혹은 가족 중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듯이 여러분은 주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⁷ 정결함으로 회귀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정결하게 생활할 때 오는 힘과 자신감 없이는 우리를 위해 남겨지고 예비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을 지닌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품고 이 지상에 왔습니다. 앨마는 전세에서 여러분이 “지극한 신앙과 선행”⁸을 행사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계획을 수호하기 위해 신앙과 간증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이 훌륭하고, 구주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의 편에 섰으며 지상에 오는 기회를 고대했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를지 알았고,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된] …… 훌륭한 영들”입니다. “후일의 위대한 사업에는 성전 건축과 …… 그 곳에서 의식을 집행함이 포함”⁹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을 위해 남겨지고 예비되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힐라맨의 청년 병사들이 사귀었을 여자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정결을 공격하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일이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는 일에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의력을 잃고 시기를 미루거나 자격을 잃게 된다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순응하는 데에만 만족하는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 [여러분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도록]”¹⁰ 일어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에 뒤떨어지고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즐거!” “뛰든지 해 봐” “한 번 해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성신은 그 반대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덕한 길을 걸으며, ……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¹¹라고 권고하십니다.

저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낸 악당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면 왕좌를 상속받지 못하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세상의 온갖 추잡한 것으로 왕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력에도 왕자는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납치범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볼 만한 일이 바다나자 그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의지를 지닐 수 있는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노라.”¹²

이 왕자처럼 여러분 모두는 고귀한 장자 명분과 신성한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고귀한 딸들입니다.”¹³ 여러분은 왕후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왕후가 된다는 말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선지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을 만나 뵙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유타 주 헨츠빌에 있는 회장님 댁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경향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이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회장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흰색 양복을 입고 계셨고, 옆에는 맥케이 자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나와 자기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자 회장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 인생과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는 동안 그분은 제 눈을 그윽이 바라보셨습니다. 자기 소개 시간이 끝나자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편히 앉으시더니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제 여러분께 제 왕후를 소개해 드리고 싶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옆에는 회장님의 부인이신 에머 레이 맥케이 자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계시지도 않았고, 왕좌에 앉으신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분이 진정한 왕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매님의 은발 머리가 그분의 왕관이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맥케이 회장님 내외분이 가족에 대해, 그리고 두 분이 함께한 세월에 대해 말씀하실 때 꼭 잡은 두 손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자매님의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최고의 은사를 추구하면서 교양을 갖추고,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면서 얻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자 충실하게, 긍정적 마음과 신뢰와 힘과 용기로 시련을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남편과 가족과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충실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을날 유타 주 헨츠빌에서 저는 제 신성한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저 스스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화장이나 성형,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씻겨지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매력입니다. 깊이 있는 아름다움은 정결함에서 우러나옵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발산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할머니 같은 정결한 여성의 눈에서 비치는 아름다움입니다. 신앙과 회개,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데서 얻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육체적 매력에 큰 비중을 두며 잡지 표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눈과 얼굴에서 빛날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가까이 생활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네 얼굴에 나타날 테니.”¹⁴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할 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게 되며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¹⁵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일깨우며, 모든 타고난 열정과 애정을 증대시키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 그것은 정결, 친절함, 선함, 상냥함, 부드러움, 순결함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용모를 향상시켜 줍니다. ……”¹⁶ 이것이 바로 아름다워지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가정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날 저는 맥케이 자매님에게서 본 아름다움이 유일하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앨마는 우리 모두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¹⁷

최근에 한 무리의 청녀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한 청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평범한 외모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자매님 사무실에 있는 거울 옆을 지나면서 슬쩍 쳐다보았는데 제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청녀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이 영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청녀 여러분, 영원한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태생은 고귀합니다. 여러분이 물려 받은 신성한 유산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후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¹⁸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계발하십시오. 영으로 빛나고, 정결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있는 용감한 청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독생자를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여러분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으며, 순결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얼굴에 지닐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결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금빛 기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딸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음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곧 내가 부른 자녀라.¹⁹ 유덕한 길을 걸으며 ……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며 ……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²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년)*, 3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87:8.
3. 니파이후서 25:26 참조.
4. 힐라멘서 5:12.
5. “Carry On,” *Hymns*, no. 255.
6. 여호수아 1:9.
7. 여호수아 3:5; 또한 경전 안내서, “성결하게 됨”, scriptures.lds.org 참조.
8. 엘마서 13:3.
9. 교리와 성약 138:53~54.
10. 교리와 성약 115:5.
11. 교리와 성약 25:2, 10, 13.
12. Vaughn J. Featherstone, “The King’s Son,” *New Era*, 1975년 11월호, 35쪽 참조.
13.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청녀들에게”,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11쪽.
14. 작자 미상, 일레인 에스 돌튼,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9~111쪽 참조.
15. 교리와 성약 121:45~46.
16. Parley P. Pratt,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10th ed.(1965년), 101쪽.
17. 엘마서 5:14.
18. 교리와 성약 84:38.
19. 교리와 성약 25:3.
20. 교리와 성약 25:2, 10, 13, 15.

비디오 발표 자료: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2010년 3월 27일에 열린 청녀 총회에서 발표된 비디오 자료 원고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이 시대만의 독특한 것들입니다.”¹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높은 도덕적 표준에 근거를 둔 생각과 행위를 정립해야 합니다.”²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³

메리 앤 쿡,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훌륭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 줄 정결함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자매 여러분, 성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매일 삶에서 발견하는 평범한 기회들을 통해 아름답고 유익한 무언가를 창조해 낼 때, 여러분은 주변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세계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⁵

앤 엠 딘,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고 단순한 일들은 내일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한 명의 의로운 청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완전히 ‘예!’ 입니다. …… 지도자가 되고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기도와 경전 읽기, 순종, 봉사와 같이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은 구주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점점 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⁷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젊은 친구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으며,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미더라도 옳고 그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을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이 강요할 때, 옳은 것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되더라도 말입니다.”⁸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7쪽
2. 일레인 에스 돌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1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25쪽.
4. 메리 엔 쿡, “유덕한 삶- 한 번에 한 걸음씩”, *리아호나*, 2009년 5월 호, 117쪽.
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행복, 여러분의 유산”,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9쪽.
6. 앤 엠 딘, “믿는 자의 분이 되어”,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6쪽.
7. 일레인 에스 돌튼,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9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무한한 축복과 기회를 선사하십니다.

사 랑하는 전 세계 청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충실한 여러분 덕분에 기쁨을 느낍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는 여러 아름다운 언어를 접했습니다. 각 언어에는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훌륭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언어를 살펴봐도 그 언어에는 대부분 마법과도 같이 뭔가를 잔뜩 기대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옛날 옛적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참으로 훌륭한 말이 아닙니까? “옛날 옛적에”란 말은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모험과 사랑, 왕자와 공주 이야기와 같은 것 말입니다. 여기에는 용기, 소망,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포함될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에서는 훌륭한 것이 야비한 것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순간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 우리의 눈길이 마지막 줄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영웅과 여걸이 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며,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한 뒤에 마침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진리로 여러분의 주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첫 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이 특별한 시기에 지상에 오도록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¹

청녀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상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실제 이야기를 모험과 시련, 위대함, 고귀함, 용기, 사랑에 대한 기회로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값진 선물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무한한 축복과 기회를 선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은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공주나 시골 소녀, 인어나 우유 짜는 소녀, 통치자나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데렐라는 심술궂은 계모와 사악한 이복 자매들을 견디며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노동을 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무섭게 생긴 야수의 포로가 됩니다. 집과 가족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러 달 동안 야수의 성에서 지냈습니다.

“렘펠스틸스킨”에 나오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은 왕에게 자신의 딸이 지푸라기를 엮어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지푸라기 더미와 물레가 있는 방에 그 딸을 가둡니다. 나중에 그녀는 지푸라기를 금으로 만들도록 도와준 마법사의 이름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자신이 낳은 첫 아이를 잃을 위협에 처합니다.

각 이야기에서 신데렐라, 벨, 방앗간 주인의 딸은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전에 슬픔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유혹, 시련, 슬픔이라는 자신만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옛날 옛적에”란 말과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라는 말 사이에서 그들은 모두 큰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모두가 슬픔과 비극을 경험해야 할까요? 왜 단순히 더 없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매일 경이로움과 기쁨, 사랑만을 만끽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경전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알려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과 비참함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² 마라톤 주자가 장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완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피아노 연주자가 오랜 시간 힘들게 연습하지 않는다면 까다로운 곡을 숙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역경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역경을 겪을 때 성품이 크게 발전하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을 겪고, 지혜를 배우며, 강해지고,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를 다니던 십대 시절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 선교사들이 낯선 가족을 모임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름다운 두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여쁜 여자아이들을 보자, 저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딸 중에서도 검은 머리칼에 눈이 크고 갈색 빛을 띠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특히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해리엇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첫 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아름답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많은 청남들이 해리엇과 친해지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해리엇이 저를 단순한 친구로만 바라보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엇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성찬을 전달할 때는 해리엇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가 되도록 미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해리엇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체로 해리엇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때 해리엇의 가족은 아파트 4층에 살았기에 어머니는 부엌 창문을 열고 무슨 불일이 있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저는 해리엇이 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해리엇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개는 나중에 따로 갈 거란다. 대신 내가 네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구나.” 그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 자전거는 사실 제법 괜찮은 자전거였습니다. 해리엇의 어머니는 자전거 안장 앞쪽에 있던 파이프에 걸터 앉으셨는데, 저는 울퉁불퉁한 자갈길 위에서 가장 품위 있는 자전거 운전 기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해리엇은 많은 청남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그때도 저는 해리엇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좌절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꿈에 그리던 아이의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제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훈련을 마친 후, 저의 끈질긴 구애에 해리엇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터, 지난 몇 년 사이에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본 순간부터 줄곧 사랑해 온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로워하고 절망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행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커다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유혹을 받으며, 실수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주인공이 배우는 교훈, 즉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교훈을 여러분도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역경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린 나이에 이미 슬픔과 아픔을 속속들이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천사들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받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³

행복한 삶을 이루려면 역경을 견디는 것 말고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경과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이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어디에서도 쉽게 행복을 약속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광고는 특정한 옷, 샴푸, 화장품을 사기만 하면 더 없는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매체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악을 받아들이거나 육욕적인 본능에 응하는 자들을 미화합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과 야망을 이룬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묘사되는 세상에서 때때로 진리를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빨간 모자”가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를 보고 자기는 앞에 있는 존재가 사랑하는 할머니인지 위험한 늑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비행기 조종실에서 보냈습니다. 제 임무는 거대한 제트기를 세상 어디든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로마로 가려면 동쪽으로 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남쪽으로 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챌 것입니다.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침, 뇌물, 협박을 통해 남쪽으로 비행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말하더라도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셨고, 그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나 그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는”⁴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를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십시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지도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고 여기거나 참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성스러운 지침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이든 따라만 가면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삶에 도달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길을 알려 주려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충고가 구식이고 현대의 삶과는 무관하거나 동떨어졌다고 치부합니다.

청녀 여러분,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때때로 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지, 왜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거나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는 동화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청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영혼을 정결과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훌륭한 것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청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이러한 표준은 여러분이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라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길잡이와 지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은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미덕의 유산을 만들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유희이나 어려움에 개의치 말고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마십시오.]”⁵ 앞으로 올 세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며,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보인 용기와 충실함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을 칭송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여러분, 선을 추구하는 여러분,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⁶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혹을 받지 아니할”⁷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⁸ “지옥 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 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여러분의]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⁹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영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왕후가 될 운명을 타고난 공주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옛날 옛적에”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기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여러분은]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¹⁰ 그리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축복이 가득한 놀라운 말, 즉 “그들은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읽고, 또한 그대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년), 1쪽.
2. 니파이후서 2:11, 15 참조.
3. 교리와 성약 121:7~8.
4. 모사이야서 18:9.
5. 교리와 성약 87:8.
6. 이사야 40:31.
7. 조셉 스미스-마태 1:37.
8. 모사이야서 2:22~24 참조.
9. 교리와 성약 21:6.
10.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3쪽.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내용과 활동,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과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 차 대회 말씀은 인터넷 conference.lds.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mormonmessages.org에서는 과거 연차 대회 말씀 인용문을 여러 매체로 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 아래에 나와 있는 쪽수는 각 말씀이 수록된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어린이

- 누구나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어린이들이 가계도를 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91쪽) 부모님은 자녀들이 가계도에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쓰나미를 피해 멀리 달아난 사모아 어린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83쪽) 그 이야기를 읽거나 들려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집 안에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들어 온다고 가정하고, 침대나 의자 같은 “더 높은 곳”을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오늘날 사막함이라는 홍수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더 높은 영적 지대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들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32쪽)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아이에게 그들이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경전 구절을 읽어 보라고 하십시오.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하면 모국어로 읽어 보라고 하십시오. 모국어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연차 대회 말씀 하나를 복습하십시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어린이 노래책, 36쪽)을 부르십시오. 자녀에게 종이와 연필 또는 크레용을 나눠 주고 좋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하십시오. 경전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 함께 읽으십시오.

청소년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인내에 관해 하신 말씀을 복습하십시오.(56쪽)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복음 원리와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금식을 하거나 만 16세 이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다른 원리들에 따라 인내했을 때 여러분과 가족들은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 엠 리셀 벨라드 장로님,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님, 줄리 비 벡 자매님,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님은 모두 여성에게 있는 신성한 본성을 가르치셨습니다.(18, 10, 98, 120쪽) 여성 여러분은 이 분들이 전한 말씀을 읽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은사에 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남성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읽

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친구와 그 밖의 여성들을 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음란한 내용이

나온다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 영화가 노골적이고 지저분하다면 영화관에서 나오십시오.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면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런 영향력들은 처음에는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영성을 무디게 하여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45쪽) 가정을 영이 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가족과 함께 토론하십시오. 가정 안에 있는 미술품, 음반, 서적,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성구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음 성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구들은 대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구절입니다.

- 여호수아 1:9
- 모사이야서 18:9
- 요한복음 14:6, 27; 19:30
- 힐라맨서 5:12
- 갈라디아서 5:22
- 교리와 성약 13:1; 19:16; 25:13
- 니파이후서 2:11
- 모세서 1:39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언급된 세미나리 성구 익히기 구절입니다.

- 창세기 39:9
- 모사이야서 3:19
- 욥기 19:25
- 엘마서 37:6; 41:10
- 잠언 3:5~6
- 힐라맨서 5:12
- 이사야 1:18; 53:4~5
- 모로나이서 10:4~5
- 마태복음 25:40
- 교리와 성약 14:7; 18:10; 19:16~19;
- 요한복음 7:17; 17:3
- 25:12; 76:22~23; 82:10; 84:33~38
- 고린도전서 10:13; 15:21~22
- 모세서 1:39
- 니파이후서 2:25; 32:3
- 조셉 스미스-역사 1:17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언급된 몇 가지 경전 이야기입니다.

- 기드온과 삼 백 용사(패커 회장, 6쪽)
- 엘마와 코리호어(크리스토퍼슨 장로, 32쪽)
- 아히야와 여로보암(칼슨 장로, 38쪽)
- 엘리사와 나아만(칼슨 장로, 38쪽)
- 레이맨과 레뮤엘(칼슨 장로, 38쪽)
-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우흐트도르프 회장, 68쪽)
- 부활절과 속죄(스코트 장로, 75, 몬슨 회장, 87쪽)
-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 스미스(홀스트롬 장로, 78쪽)
- 예수님과 니파이인 어린이들(렌트 자매, 81쪽)
- 최후의 만찬(쿡 장로, 83쪽)
-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포스터 장로, 98쪽)
- 마리아와 마르다(슈바이처 장로, 103쪽)

비디오게임, 기타 오락물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물건은 모두 폐기하십시오.

성인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들려주신 제 이슨이라는 청년과 그 가족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복습하십시오.(87쪽)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 엘 톰 페리 장로님은 그분의 어머니께서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 자료를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29쪽) 교회 봉사과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95쪽) 자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어떤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하는 말을 경청하면서 어떤 점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간증을 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알고 싶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참조하십시오.(40쪽)

• 몇몇 연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과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22, 54, 60, 95, 117쪽 참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을 누리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연사들이 청소년에게 전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십시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임무를 받았습니 다. …… 우리가 받은 부름과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64쪽.

바로 몇 주 전에 저는 새로 집사 신권을 받은 형제가 부지런히 봉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는 제게 아들이 그린 도면을 보여주었는데, 예배당 의자들이 놓인 모습과 성찬식 시간에 집사 한 명당 성찬을 전달해야 할 회원 수, 그리고 성찬을 전달하는 각자의 동선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년이 자기가 맡은 신권 봉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짰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그 아이를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담겨 있는 한 가지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배우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부지런히 계획을 실행한 후에 그 일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축복했는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부지런하십시오”, 60쪽.

교회의 성인 회원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확인표시만 하면 되는 장황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청년가 성전 의식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영원한 결혼을 하고, 승영을 누릴 만큼 발전하기 위해 각 청년 청년가 세우는

개인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청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서만 노력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및 청소년과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서로를 강화하고 복음의 길에서 영원히 남도록 신앙과 우정으로 결속되어 함께 성장하여 참으로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지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96쪽.

사랑하는 아른 신권 형제 여러분, 그 무대는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기꺼이 보여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재차 결심하는 모든 유능한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하고, 결심하십시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거룩한 선교사 부름”, 51쪽.

이 프로그램에서 집사와 교사, 제사인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키우며 신권 의무를 배우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활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복음 원리 또는 신권 의무를 **학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각자 자신의 필요 상황과 환경,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고, 영적인 자립심을 키울 훌륭한 기회입니다.

실천한 후에는 배우고 경험한 일을 사람들과 **나눔**니다. 그렇게 할 때 간증이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 여러분이 아른 신권 직분에서 이웃에게 충실히 봉사할 때 이웃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신권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정원회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비드 엘 벡 형제, 본부 청년 회장, “위대한 아른 신권”, 54~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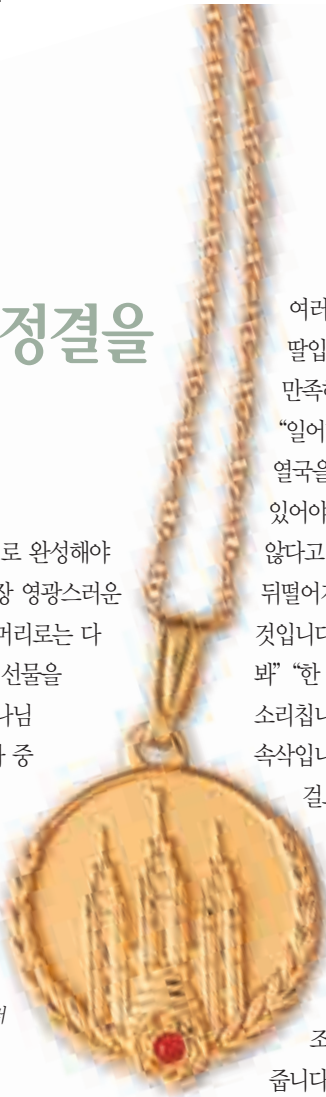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 정보는 DutyToGod.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결을 수호하십시오

청 녀 개인 발전 기록부 1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이 특별한 시기에 지상에 오도록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상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실제 이야기를 모험과 시련, 위대함, 고귀함,

용기, 사랑에 대한 기회로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값진 선물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무한한 축복과 기회를 선사하십니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 12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순응하는 데에만 만족하는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 [여러분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도록]¹⁰ 일어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에 뒤떨어지고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즐거!” “뛰든지 해 봐” “한 번 해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성신은 그 반대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덕한 길을 걸으[며], ……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¹¹라고 권고하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본부 청년 회장,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121쪽.*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간증을 조금씩 키워 나가는 훌륭한 방법을 알려 줍니다. 가치관 경험과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작은 단계들입니다. 이와 같이 간증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메리 앤 쿡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118쪽.*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주님의 이 약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 한명 한명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분의 소중한 딸로서 여러분 각자는 기도의 힘을 통해 그분에게서 지지와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앤 엠 딕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담대하라”, 114~115쪽.*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싶다면 PersonalProgress.lds.org를 방문하십시오.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온 경험담과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6)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젊은 군인에게 조언한 해롤드 비 리 회장. 한 청년의 아버지에게 직접 아들을 장로로 성임하도록 요청한 패커 회장.
키스 비 맥멀린 감독	(13) 수용소 간수를 용서한 한 여성.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장로	(16) 암으로 딸을 떠나 보낸 어느 아버지의 신앙을 회고하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22) 침대 시절에 저지른 탈선으로 고통을 겪은 한 여성. 길을 잃은 아이어링 회장의 어린 아들이 기도로 도움을 청하여 무사히 귀가한 이야기.
엘 톰 페리 장로	(29)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엘 톰 페리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32)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순교한 윌리엄 틴들.
코이치 아오야기 장로	(36) 아오야기 장로가 어떻게 개종했으며, 그 후 교회에서 멀어졌지만 한 회원에게서 도움을 받은 이야기.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	(38) 낚시 여행을 떠난 두 남자가 이전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해 또다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이야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44) 이혼한 세 여성이 외설물에 빠진 전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47) 또 한번 축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미 병자축복을 받았기에 이제는 자신이 신앙을 행사할 차례라고 말하며 거절한 한 자매 이야기. 미국 텍사스 주에서 기적처럼 병 고침을 받은 소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51) 아이어링 회장이 각 선교사가 봉사할 지역을 게시 받다.
데이비드 엘 벡 형제	(54)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제에게 성찬을 가져다준 한 청년. 경건한 태도로 성찬을 받은 형제 이야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56) 마시멜로로 네 살짜리 아이들의 인내력을 시험한 교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0) 아픈 친구를 방문하여 축복을 준 아이어링 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4) 시험 시간에 발로 책장을 넘기며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이 결국 그 응보를 받다. 몬슨 회장이 어느 선교사에게 한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68) 손이 파손된 그리스도 상에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라는 뜻을 붙인 사람들. 자신의 몫으로 받은 수확물 중 일부를 서로에게 몰래 가져다 준 두 형제에 대한 유대인 이야기. 2차 세계대전 후 인도주의 봉사로 축복 받은 독일 성도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78) 출산 과정에서 첫 아이를 잃은 한 젊은 부부가 주님과 교회를 떠난 이야기. 커다란 시련 속에서도 충실히 남은 홀스트롬 장로의 부모와 조부모.
쿠엔틴 엘 쿡 장로	(83) 쓰나미에서 딸과 어머니를 구한 사모아 지역 스테이크 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87) 열다섯 살 난 아들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위안을 얻은 어느 가족 이야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5) 신문을 읽다가 손자에게서 “거기 계신 거 맞아요?”라는 질문을 받은 헤일즈 장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친 헤일즈 장로의 어머니. 딸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즐겁게 도와준 한 어머니.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98) 자신이 아는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어린 아들.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103) 젊은 의사 시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운 슈바이처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108) 아버지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에 아버지를 잃은 후에도 자녀들이 위안을 얻었다는 이야기.
앤 엠 딥 자매	(114)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고도 신념을 굽히지 않은 청년.
메리 엔 쿡 자매	(117) 마태복음 5장을 읽으라는 속삭임을 따랐기에 축복을 받은 한 청년.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120) 젊은 시절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을 만나본 돌튼 자매. 아내를 “여왕”이라 소개한 맥케이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124)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아내를 만나 사랑을 얻기까지 겪은 과정을 소개하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각 공과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그것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고한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들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본다. 또한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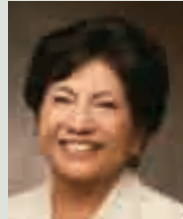
- 말씀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본다.
-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와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10년 5월~ 2010년 10월	리아호나 2010년 5월호에 실린 말씀*
2010년 11월~ 2011년 4월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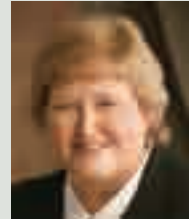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바바라 톰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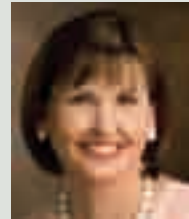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딕
제2보좌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워릭스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킴기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도프
회장



매튜 오 리처드슨
제2보좌

청남



래리 엠 기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컨퍼런스 센터, 새로운 10년을 열다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컨퍼런스 센터가 4월 연차 대회로 새로운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간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00번이 넘는 연차 대회의 각 모임들과 4천 5백 차례에 걸쳐 열린 행사들, 관련 방송에 참여하면서 이 독창적인 건물의 진면목을 직접 경험해 왔다.

컨퍼런스 센터는 2000년 4월 1일에 열린 연차 대회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전했다. “컨퍼런스 센터는 이 도시에 명물이 하나 더 생겼음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차 대회와 기타 종교 모임도 열리겠지만, 문화 센터로도 사용되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예술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장소가 자아내는 정취를 감상하고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온 세상에 간증으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6쪽)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 8일에 힝클리 회장은 이 건물을 헌납했다.

그때 이후로 7백만 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이 컨퍼런스 센터에 와서 4,577개의 행사에 참석했다. 약 480만 관광객이 이 건물을 다녀갔으며, 컨퍼런스 센터는 5천 5백 명이 넘는 정부 고관 및 고위 성직자를 맞이했다. 대회실과 인근 컨퍼런스 센터 극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연차 대회, 청년 총회 10회, 상호부조회 총회 10회, 기념 행사 3회(힝클리

회장 장례식 포함), 음악 공연 125회(태버내클 합창단이 공연하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포함하지 않음, 이 공연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 횟수는 186회) 등이 있다.

이러한 수치는 힝클리 회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부 시설 책임자 브렌트 로버츠는 이 건물에서 느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마음으로 영을 느끼며 건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건물 때문만은 아니죠. 주님과,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영 때문이죠.” 하고 브렌트는 말했다.

1996년 4월 연차 대회 부활절 아침, 힝클리 회장은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컨퍼런스 센터를 건축하면서 극복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 건물의 독보적인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21,000석을 갖춘 대회실은 솔트레이크시티 메인가와 웨스트 템플가 사이 경사지에 세워야 했다. 공사는 큰 건축 회사 세 곳이 연합하여 진행했다. 대회실은 어느 곳에 앉든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기둥 없이 지어야 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1제곱 센티미터당 17~37킬로그램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88미터 길이 철골다발을 사용해야 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옥상에 정원을 꾸밀 수 있었다. 이 작업 기간에 하루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부가 현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9년에는 솔트레이크시티 역사상 대단히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일었지만 건물은 무사했다. 거대한 기증기 팔만이 부러졌을 뿐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건물은 예정된 날짜에 완공되었고, 방문객들은 현대적 시설과 장비를 향유하고 있다. 컨퍼런스 센터는 텔레비전 방송용





고해상도 디지털 신호를 송출한다. 2000년 6월, 컨퍼런스 센터에서 헝클리 회장의 9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동안 유타에서는 최초로 고해상도 생방송이 전파를 탔다.

기술자들은 말씀을 듣거나 음악 공연에 참석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우수한 음질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대회실에 음향 장치를 설치했다. 벽과 천장 자재, 내부에 수용될 수많은 사람들, 양탄자 및 쿠션재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계산된 공법을 사용했다.

헝클리 회장은 이 건물에서 또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입구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그 우아함을 만끽할 수 있다. 건물 입구 복도에서 구주의 조각상과 교회 회장들의 흉상을 보고, 옥상 정원에서 나무와 꽃, 관목 주위와 폭포 속을 거닐 수 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아홉 개 채광창으로는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덮어둘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서 많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교회 회원들에게 익숙한 작품이 대다수이며, 거의 전체가 원본 작품이다.

이 거대한 건물과 관련된 여러 통계치가 눈에 띈다. 대지 면적은 4헥타르로, 웬만한 도시 한 구획에 맞먹는다. 컨퍼런스 센터 내에는 지구를 두 번이나 둘러쌀 만한 전선이 사용되고, 분수와 수로를 통해 재활용되는 물의 양은 분당 22,330리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센터가 자랑하는 가장 큰 특징은 전선 길이도, 옥상이 지탱하는 무게도 아니다. 그 어떤 통계치도 컨퍼런스 센터를 대표하는 특징이 될 수 없다.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건물은 비록 그 건축 양식이 뛰어나지만 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전능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장소입니다.”(“이 위대한 새천년의 해”,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2쪽) ■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이 새롭게 발표되다

연 차 대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청남들이 영적인 힘을 쌓고 신권 의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구성이 단순하면서도 초점이 뚜렷하다. 부모와 지도자에게 주는 지침과 함께 세 연령 그룹 모두가 완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책 권으로 통합되었다. 이 책자와 관련 자료는 2010년 6월과 8월 사이에 27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계속해서 추가 번역 자료가 나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소개하는 활동은 청남이 한 가지 복음 원리 또는 신권 의무를 배우고 배운 점을 실행한 다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모와 교회 지도자 또는 자신이 속한 정원회와 나누도록 구성되었다.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본부 청남 회장인 데이비드 엘 벡 형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집사와 교사, 제사인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키우며 신권 의무를 배우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론 신권이 얼마나 위대인지 발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남들이 자신의 발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또한 청남과 부모, 지도자, 정원회 회원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많은 활동들은 가정의 밤과 정원회 모임 및 활동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교회 잡지와 나는 인터뷰에서 벡 형제는 “부모, 지도자, 정원회 회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요일 정원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배우고 실행하고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와드 또는 지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면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각 청남은 자신의 현재 신권 직분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직분에 해당하는 증서나 메달을 받기에 필요한 요건을 거의 완수한 상태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해나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있는 필수 활동을 마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에 나오는 각 활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권 소유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형태가 구성되었다.” 벡 형제가 말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인터넷 DutyToGod.lds.org에서 볼 수 있다. ■

새로운 메시지 형식, 방문 교육 향상에 기여

20 10년 7월에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리아호나 및 Ensign 구독자들은 방문 교육 메시지 형식에 생긴 변화를 발견할 것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방문 교사가 방문 교육이 주님으로부터 온 부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자매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보살피는 임무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메시지 형식으로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목적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배우며, 역사관을 정립하고, 자매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돌보고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방문 교사는 방문 교육 메시지라는 연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방문 교사가 방문할 자매들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공부한다면 자매들과 무엇을 나누고 자매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벡 자매의 말이다.

새로운 방문 교육 메시지가 어떤 형식인지 알 수 있도록 다음 쪽에 견본과 그 특징이 설명되어 있다. ■

보살핌 질문

이 질문은 방문 교사가 영감에 따라 질문하여 가르치는 자매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지침

지침을 보면 방문 교사는 메시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할지 알 수 있다.

상호부조회 목적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상호부조회 목적이 추가되었다. 상호부조회 목적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워나가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돕는 것이다.

적용 질문

이 질문은 각 상호부조회 자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메시지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시지

이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손수 준비한 시기적절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주요 메시지로 받게 될 것이다.

경전에서

이 참조 성구들을 공부한다면 더 훌륭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며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정보

상호부조회 웹페이지, reliefsociety.lds.org에 기타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VISITING TEACHING MESSAGE

Our Responsibility to Be Worthy of Temple Worship

Study this material, and as appropriate discuss it with the sisters you visit. Use the questions to help you strengthen your sisters and to make Relief Society an active part of your own life.

The covenants we make with the associated ordinances we receive in the temple become our credentials for admission into God's presence. These covenants elevate us beyond the limits of our own power and perspective. We make covenants to show our devotion to build up the kingdom. We become covenant people as we are placed under covenant to God. All the promised blessings are ours through our faithfulness to these covenants. . . .


"What can the women of the Church do to claim the blessings of the temple?"

"Through His prophets, the Lord invites those who have not yet received the blessings of the temple to do whatever may be necessary to qualify to receive them. He invites those who have already received these blessings to return as often as possible to enjoy again the experience, to increase their vision and understanding of His eternal plan.

"Let us be worthy to have a current temple recommend. Let us go to the temple to seal our families eternally. Let us return to the temple as often as our circumstances will permit. Let us give our kindred dead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ordinances of exaltation. Let us enjoy the spiritual strength and the revelation we receive as we attend the temple regularly. Let us be faithful and make and keep temple covenants to receive the full blessings of the Atonement."¹

Sylvia H. Allred, first counselor in the Relief Society general presidency.

From the Scriptures
Isaiah 2:2-3; D&C 109:22-23; 110:8-10



Faith • Family • Relief

What Can I Do?

- 1. What support can I offer to help my sisters prepare for and attend the temple?**
- 2. How can I exemplify the heritage of the early sisters who sacrificed to receive temple blessings?**
- 3. How can I claim the blessings of the temple?**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relief-society.lds.org.

From Our History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taught that Relief Society grew out of sisters' desire to worship in templ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irtland Temple the women were called upon to grind their china into small particles to be mixed with the plaster used on the walls of the temple, which would catch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moon and reflect that light to beautify the appearance of the building.

"In those times, when there was very little of money but an abundance of faith, the workmen gave of their strength and resourc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Lord's house. The women supplied them with food, the best they could prepare. Edward W. Tullidge reported that while the women were sewing the temple veils, Joseph Smith, observing them, said, 'Well, sisters, you are always on hand. The sisters are always first and foremost in all good works. Mary was first at the resurrection; and the sisters now are the first to work on the inside of the temple.' . . .

"Again in Nauvoo, when the temple was under construction, a few women joined together to make shirts for the workmen. It was out of these circumstances that twenty of them gathered on Thursday, 17 March 1842, in the upper room of the Prophet's store."²

NOTES

1. Sylvia H. Allred, "Holy Temples, Sacred Covenants," *Liahona and Ensign*, Nov. 2008, 113, 114.

2. Gordon B. Hinckley, "Ambitious to Do Good," *Ensign*, Mar. 1992, 2.

August 2010 7

역사에서

상호부조회가 남긴 훌륭한 유산을 읽으면 초기 교회에 있었던 조직과 현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백 자매는 이를 이렇게 소개했다. "초기 성도들이 보여 준 희생과 소망에서 영감을 받고 이 시대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굳세게 나아가는 아이티 성도들

로렌 앨런
교회 잡지

2010년 1월, 아이티에 지진이 발생하자 진 엘리 레네는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하고자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세 아들 중 한 명은 길에서 울고 있고 무너진 집 터미 아래에서 한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서른두 살 난 이 아버지는 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서 집 터미 속을 파헤쳤다. 마침내 다섯 살 난 아들과 임신한 아내의 시신이 드러났다. 숨진 아내는 그때까지도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 9개월 된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레네 형제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스테이크 레오게인 와드에서 와드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내, 그리고 집을 잃었지만 그런 처지를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지진이 발생한 후 레네 형제는 대부분 집회소에서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나머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회소를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와드 회원을 돕는 감독을 거들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이번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레네 형제만이 아니다. 아이티 도처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진도 7.0이나 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참화는 성장하는 아이티 회원들의 저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오래된 회원이든 일 세대 회원이든 상관없이, 많은 회원이 레네 형제처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충실하게 순종하며 화평과 위안을 얻었다.

시련 속에서 입증된 신앙

아이티 교회 회원들은 시련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굳건히 일어섰다. 회원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고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며 힘을 북돋아 준다.

“재산도, 가족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큼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오게인 와드 감독인 이베스 피에레 루이스가 전하는 말이다.

특히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신앙과 간증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신권 지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부름을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웠다며 칠십인이자 카리브해 지역 회장인 프란시스코 게이

비냐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들은 신권 열쇠를 사용하여 회원들과 비회원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평의회로 일하면서 영의 인도를 받아 매일 어려운 도전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스테이크 회장인 프로스너 콜린은 파괴적인 지진 여파로 특히 아이티의 감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감독 및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하는 와드 회원들도 보살피고 도와야 했다.

콜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감독들은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걸 잃었지만 자신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계속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합니다.”

피에레 루이스 감독은 지진이 난 후에 지역 사회 지도자가 되었다. 루이스 감독은 아이티 참화 후 수주, 수개월에 걸쳐 회원들과 레오게인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수백 명에게 힘을 주었다.

“루이스 감독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하고 겸손한 종입니다.” 에리조나 출신 의사 채드 피터슨이 한 말이다. 피터슨 형제는 지진이 일어난 후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피에레 루이스 감독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신앙

아이티 전역에 있는 회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과 쾌활함으로 시련을 헤쳐 나갔다.

칠십인 정원회의 월포드 더블류 앤더슨 장로는 201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아이티 성도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티 성도들은 1846년 초기 개척자들처럼 낙심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소망과 행복, 기쁨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순종과 신앙은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교회 모임이 진행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조국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아이티 회원들은 안식일 복장을 하고 웃음 띤 얼굴로 교회에 들어섰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의지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되었다.

피터슨 형제는 이렇게 전했다. “집과 직장, 가족을 잃었어도 아이티 국민들은 사랑과 믿음과 천성적인 쾌활함을 지닌 사람들이예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죠.”

오늘날 아이티에서 교회는 꾸준히 번창하고 있다. 성찬식 모임 참석 수가 증가했으며 아이티 국민들은 지역 사회 재건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콜린 회장은 말했다.

“회원들은 사람들에게 훌륭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직업도 찾고 있습니다.”

아이티 태생인 아이티 교회 복지 책임자 베티 시어도어는 재난 덕분에 자신과 아이티 교회의 현재와 미래 지도자들이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온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란 걸 알게 되었지요.”

시어도어 형제는 지진을 비롯한 그 어떤 재해가 발생하든 아이티 회원들에게서 화평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게 저의 간증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결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



교회 원조

20 10년 1월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교회는 아이티에 구호품을 보냈다. 곧이어 도착한 의료팀은 집회소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필요한 수술을 도왔다.

아이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교회는 구조에서 회복으로 원조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이 다시 자립하여 두 발로 서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자원에는 감독의 창고와 유사한 작은 식량 시설들을 세우고 임시 가옥 6백 채를 지을 자재를 보내는 일이 포함되었다. 아이티 회원들이 조립해서 만든 이 임시 가옥은 허리케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사용되곤 한다.

교회는 또한 회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티 지역 의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자신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티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회는 아이티에서 실시하는 고용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따라서 회원들은 취업 전문가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직업을 찾거나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베스 피에레 루이스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티 회원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케빈 알 던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어린 시절부터 케빈 리드 던컨 장로는 선교사가 되어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늘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훨씬 전에 던컨 장로는 선교사부에서 봉사하던 어느 총관리 역원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 그때 총관리 역원은 던컨 장로에게 선교사 토론을 암기하라는 목표를 주었다. 던컨 장로는 그 목표를 받아들였고 이후 칠레 산티아고 남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저는 평생토록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고 던컨 장로는 말한다.

던컨 장로는 1960년 10월에 데이비드 헨리와 라레네 엘리자 던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유타 주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에 농장에서 살면서 던컨 장로는 열심히 일하고,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 노동 윤리를 바탕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학위, 세무회계 석사학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무 관련 변호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이후에는 소송 기술을 다루는 회사를 창업했다.

던컨 장로는 낸시 엘리자베스 스마트와 1986년 6월 2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던컨 장로는 사별한 첫 번째 부인인 웬디 월렌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 한 명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자녀를 두었다.

칠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거의 20년이 흐른 후에 던컨 장로는 교회 봉사 선교사가 되어 다시 그 나라를 찾았다. 이번에는 남미 지역 교회를 위한 국제 법률 부고문 자격으로 칠레에 갔다. 그곳에 있는 동안 칠레 산티아고 북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아 젊은 시절에 봉사했던 동일한 선교부 사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는 감독단 보좌, 와드 선교 책임자, 고등 평의원, 유타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게릿 더블류 공 장로

칠십인 정원회

게릿 윌터 공 장로는 기도에서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 알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사실 또한 안다. 공 장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그때 [공 장로는 주님께 기도드렸고,] “꼬마 아이가 어설프게 드린” 기도였지만 어머니가 살아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린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리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만이 아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 장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물론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육과 직업에 관해 선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대화에 포함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는 고등 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 세미나리 교사, 감독,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사회에서 공 장로는 미국 국무부 국무차관 특별보좌관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디시 소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에서도 근무했다. 칠십인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보좌관으로 일하며 계획 및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공 장로는 1953년 12월에 윌터와 진 공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주 펠러앨토에서 자랐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양학과 아시아 연구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금을 받았다.

공 장로는 타이완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이후 1980년 1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수잔 린드세이와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었다. ■



패트릭 키아론 장로 칠십인 정원회

패트릭 키아론 장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잠시 생활하던 시절에 “홀륭한” 후기 성도 가족과 함께 지냈고, 그 가족에게서 복음을 소개받았다. 2년이 지나 영국으로 돌아온 키아론 장로는 런던 거리에서 선교사를 만나 결국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아론 장로는 우연히 물문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후기 성도 가정에서 느꼈던 기쁨과 자신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의 생활에서 보았던 기쁨을 떠올리자 그 구절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구주의 권고를 따를 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1987년 12월 24일에 교회에 가입한 이후로 키아론 장로는

와드 청남 회장, 감독단 보좌,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며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다.

칠십인 제일정원회에 갖 부름을 받은 키아론 장로는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키아론 장로는 1961년 7월에 영국 컴벌랜드 칼라일에서 패디와 패트리샤 키아론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영국 공군에서 복무한 덕분에 키아론 장로는 중등과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키아론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영국에 와 있던 제니퍼 캐롤 홈을 만났다. 두 사람은 1991년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다. 네 자녀를 두었지만 그 중 한 아이는 먼저 영의 세계에 가 있다.

키아론 장로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생활하며 정치, 보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종사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키아론 자매와 함께 영국에서 커뮤니케이션 상담 회사를 운영했다. ■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후안 알베르토 우세다 안드라데 장로는 훗날 결혼하게 된 마리아 이사벨 벤데수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마리아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은 청소년기에 교회로 개종했고, 둘 다 고국 페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우세다 자매의 신념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당시에 가장 가까운 성전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었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7일이 걸렸어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야 했죠. 우리는 버스, 승용차, 배, 마차, 기차, 트럭, 비행기까지 탔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꿈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성전 벽을 만져 볼 정도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던지요.”

두 사람은 1979년 4월 13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다섯

자녀를 두었다.

우세다 장로는 1953년 7월에 페루 리마에서 후안 호세 우세다 페레스와 이네스 안드라데 우세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1972년에 교회에 가입한 후 우세다 장로는 리마에 있는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구이 전문학교에서 회계와 홍보를 공부했다. 또한 센트로 안디노 데 지이 전문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산 루이스 곤자가 대학교에서 홍보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우세다 장로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 대표로 일했다. 2003년에 교육 및 언어 훈련 사업을 확장하는 부친을 돕기 위해 미국 뉴저지 주로 이주했다.

우세다 장로는 선교 사업 외에도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 페루 리마 북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이제는 칠십인 제일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저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개인적 계시의 힘에 대해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한 간증이 더 굳건해집니다.” 우세다 장로의 말이다. ■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래리 레이 로렌스 장로는 교회에서 다양한 부름과 봉사를 수행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잠언 3:5)라는 교훈을 배웠다.

1947년 8월, 메릴랜드 주 첼벌리에서 아길과 메리 로렌스 사이에서 태어난 로렌스 장로는 애리조나 주 투손에서 성장했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농생화학 학사학위와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안과 의사가 되었다.

로렌스 장로는 1970년 스물세 살에 교회로 들어왔으며 1971년 11월 5일에 애리조나 주 메사 성전에서 로렐 스타트와 결혼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는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로 봉사했다.

로렌스 장로는 여섯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긴장이 풀리는가

했는데, 그 무렵인 2001년에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집과 가족을 남겨 두고 언어와 민족과 기후가 전혀 생소한 나라에서 봉사하려면 큰 신앙이 필요했다.

로렌스 자매는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한다. “저희에게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커다란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한 모든 게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선교부 사택 부엌에 걸려 있던 “무슨 생각을 하든지 [구주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라는 표어를 보며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했다고 한다.

로렌스 장로 부부는 선교부 회장 부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칠십인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로렌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것이 놓여 있으리란 건 압니다.” ■



페르 지 맘 장로 칠십인 정원회

페르 예스타 맘 장로는 열여섯 살 때 교회 봉사 선교사가 되어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새 집회소 건설을 도왔다. 그 이후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했다.

맘 장로는 1948년 9월에 스웨덴 예세핑에서 칼 예스타 이바르와 카린 안나 그레타 맘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배웠으며,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부친이 생전에 남겼던 간증에서 큰 힘을 받았다. 부친은 “복음에 충실히 남으라”라고 가르쳤다.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복음에 있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맘 장로는 말한다.

18개월 동안 봉사 선교 사업을 한 맘 장로는 스웨덴 스톡홀름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귀환 후, 1969년 10월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인그리드 아그네타 카를손과 결혼하였고, 부친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다. 맘 장로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룬드 대학교에서 스웨덴 법 학위를 받았다.

맘 장로는 교회를 위해 지역 부동산 책임자로 일했다. 이후에는 실무 책임자가 되어 감리 감독단으로부터 중부유럽, 동유럽, 북유럽 지역 실무 기능을 통합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또한 맘 자매와 함께 여덟 자녀를 키우면서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 지부 회장,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스웨덴 공보 책임자,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더욱 확신하게 된 맘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 부름을 수행하며 그 가르침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 “복음은 우리의 답입니다. 복음에 충실히 남는다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이다. 1990년, 당시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게서 전화를 받은 마자가르디 장로는 브라질 살바도르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선교부 회장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지 5년도 채 안 되던 때였어요. 사업도 번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모든 걸 남겨 두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몬슨 회장은 마자가르디 장로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자가르디 장로 부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납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름을 수락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자가르디 장로가 한 말이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까지 마자가르디 장로는 감독단 보좌,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지역 칠십인,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회장단 보좌,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다.

마자가르디 장로는 기업가로 일하면서 육류업계에도 종사했으며, 이후에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했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는 브라질 군대에서 포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했다. 마자가르디 장로는 1947년 4월에 브라질 이투에서 안토니오와 마르가리다 마자가르디 사이에서 태어났다. 브라질 이투와 준지아이에서 성장했으며, 어린 시절에 엘리자베스 이에네를 만나 1970년 7월에 뉴저지 주 호보켄에서 결혼했다.

수년 동안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마자가르디 장로 부부는 브라질로 돌아온 후에 친구 초대로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일반공개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매우 강한 영적 경험을 했다. 두 사람은 1978년 10월 31일에 침례 받았고, 1979년 11월에 가족 인봉을 받았다.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다. ■



로즈메리 엠 웁섬 본부 초등학교 회장

시끄럽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어린이들은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최근에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지지 받은 로즈메리 믹스 웁섬은 말한다.

“어린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절대 혼자 아니며 구주께서 곁에 계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48년 12월에 로버트 웨인과 메리 믹스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웁섬 자매는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랐다. 커 가면서 자신의 쌍둥이 자매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고 가르쳤다. “집 현관문을 들어설 때면 늘 안도감을 느꼈어요.”

열두 살이 되자 안도감은 더 깊어 뿌리를 내렸다. 간중 모임에 참석하던 중 문득 구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웁섬 자매는 이렇게 회상했다. “연단에 서자 구주에 대한 사랑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곁에 계시던] 어머니는 그런 느낌은 성신이 전해 준 것이라며 가르쳐 주었다.

“성신이 그렇게 강력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년 후 웁섬 자매는 자녀 한 명에 관해 기도하던 중 성신으로부터 오는 크나큰 화평을 느꼈다. 웁섬 자매는 어린이들이 성신의 속삭임을 듣도록 부모와 초등학교 지도자와 교사가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웁섬 자매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8월 18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남편 블레인 잭슨 웁섬과 결혼해서 여섯 자녀를 두었다.

웁섬 자매는 남편이 워싱턴 디시 남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기 전까지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 일원으로 봉사했다. 그 이후에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서 부름 받을 때까지 본부 청년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진 올드레취 스티븐스는 모든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느끼면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믿는다. 어린이들이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게 된다.

스티븐스 자매는 1952년 11월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클래론과 헬렌 올드레취 사이에서 태어났다.

“저는 신앙이 훌륭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났어요. 부모님은 주님을 사랑하셨고,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재능이 있는 분이세요.” 부모님은 스티븐스 자매를 사랑했고 즐겨 주님께 봉사했다. 스티븐스 자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느꼈고, 아직도 그 사랑을 기억한다.

1973년 9월 12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크 스티븐스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스티븐스 자매는 그와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섯 자녀가 있다.

스티븐스 자매는 주님께 봉사하고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이 기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어린이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믿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에 왔어요. 아주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면전을 떠나 이 지상으로 왔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 자매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지도자와 교사라고 믿는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가정에서 배운 가르침을 교사와 지도자를 통해 보강하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 받기 전에는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또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 복음 교리반 교사로도 봉사했다. 스티븐스 자매는 유타 대학교에서 수학 학사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



첼렐 에이 에스플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본 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은 첼렐 어세이 에스플린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시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뭔가를 하기 전에는 기도로 도움을 구했고 항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1944년 10월에 올슨과 밀드레드 어세이 사이에서 태어난 에스플린 자매는 미국 와이오밍 주 로벨에서 동쪽으로 13킬로미터 떨어진 농장에서 자랐다. 아홉 자녀 중 둘째였기 때문에 종종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에스플린 자매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동안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족이 안전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한다.

에스플린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했으며, 대학 시절에 남편 맥스 에스플린을 만나 1967년 9월 1일에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결혼했다. 졸업 후

남편은 군대에 들어갔고 에스플린 자매는 가족들이 사는 와이오밍 주 바이런 근처에서 2년 동안 5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다.

에스플린 자매는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학교 보조 조직에서 봉사했으며, 최근에는 본부 초등학교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또한 남편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선교부 회장 부름을 수행하는 동안 함께 봉사했다.

슬하에는 다섯 자녀를 둔 에스플린 자매는 손자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 함께 팬케이크와 와플을 만들고, 분장 놀이를 하고, 도보여행을 하고, 이야기책도 읽는다.

에스플린 자매는 교리와 성약 84편 88절 내용을 아주 좋아한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기억하기를 에스플린 자매는 소망한다. ■